
갈라디아서 강해

Bible Class Lessons in the Book of Galatians

by
Don Fortner

번역: 박영호

© Don Fortner 2007.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목 차

- 1 장.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 2 장. 복음의 단일성
- 3 장. 우리 복음은 하나님께 속함
- 4 장. 은혜의 모든 것
- 5 장.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나?
- 6 장. 대가 없이 의롭게 함
- 7 장. 그리스도와 나
- 8 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 9 장. “누가 너희를 찌더냐?”
- 10 장 예방약
- 11 장 성령과 듣고 믿음
- 12 장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 13 장 아브라함의 자녀
- 14 장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 15 장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
- 16 장 구원 - 대가 없는 은혜의 약속된 기업
- 17 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
- 18 장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 19 장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
 - 20 장 성취된 아들 명분
 - 21 장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노라”
 - 22 장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 23 장 두 언약
 - 24 장 하가와 사라
 - 25 장 은혜의 복된 자유
 - 26 장 의의 소망
 - 27 장 이스라엘의 요동케 하는 자들
 - 28 장 “더욱 탁월한 방법”
 - 29 장 내 혼의 가장 큰 혼란
 - 30 장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 31 장 “성령의 열매는...”
 - 32 장 성령으로 행할찌니
 - 33 장 서로에게 종노릇 함
 - 34 장 성령 안에서 씨뿌림
 - 35 장 십자가 안에서 영화롭게 됨

1 장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갈라디아서 1:1-5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1-5)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 준다. 순수한 자유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음란함도 아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는 복된 자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꺼이 포로되는 자유,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에 우리 삶을 기꺼이 포기하며, 그분께 우리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분의 전능하심, 곧 구원 은혜에 의해 정복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8:34-35; 누가복음 14:25-33).

이 참 자유는 죄인들이, 그분의 십자가에서만 영광스럽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고 영원히 만족된 그분의 피와 의로서 “주 우리 의”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들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려는 모든 노력으로부터 기꺼이 그만두도록 은혜롭게 강요될 때 발견된다 (예레미야 23:6; 로마서 10:4).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된 모든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감으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구한다. 율법의 공포와 두려움은 더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의 정욕을 만족하게 하려고 전능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교만한 희망은 더이상 우리에게 흥미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동기를 준다. 감옥 문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갔다. 축복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

해서이기 때문이다.

서신서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전한다. 이 교회들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동안 세워졌으며, Pisidian Antioch, Iconium, Lystra, Derbe 그리고 아마 다른 곳들에 위치하였다. 이 서신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명확히 사도의 첫 번째 서신들 가운데 있었다. 그 서신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 기록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그 큰 집회에서 다른 지도자들과 바울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도행전 13-16 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의 갈라디아 방문 이후에 쓰여졌다. 바울이 최근의 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이 방문 이후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임이 분명하다 (1:6). 그것은 아마도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디도가 도착하기 전에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대략 50-53 A.D. 경으로 기록 시점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악한 자였으며, 어떤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성도들 가운데 스며든 유대교인들¹의 영향

¹유대교도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공언하지만, 믿는 자들이 여

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재 강조 하고, 그들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핌으로 그 순수한 특징을 입증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설득함으로 이 위험한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 책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적 가치와 율법적 노력을 비판하고, 복음의 믿음으로부터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한다. 그는 율법적 속박의 굴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부인하고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가는 행위 종교의 유혹의 체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갈라디아서 3:1; 5:1-4). 여기서 바울은 옛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명쾌한 부름을 주고 있다. 그것은 그가 구원 받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들이다 (1:6-9).

구분

이 책의 구분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

전히 삶의 법도로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
1. 복음의 근원과 권위 (1-2 장)
 2. 복음의 주장 (3-4 장)
 3. 복음의 적용 (5-6 장)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음해하려 하였던 유대교주의자들은 그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친한다고 고발하였다. 그들의 속임수 행위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공통적이다. 복음의 가르침은 반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분개하게 하려 시도한다. 갈라디아서의 이 처음 부분에서, 바울은 영원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의 권위를 제시하여야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사도의 책무는 신약 교회에서 임시 직책이었다. 오늘날 그 단어의 공식적 의미 가운데 사도는 없다. 그러나,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자(使者, 전달자 傳達者 칙사 勅使)”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들이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자인지 아는가? 어떻게 우리는 누가 우리 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참 사자인지 결정해야 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 시작 구절들에서 몇 가지 지침을 우리

에게 준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그에게 신용을 주었을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했다. 그는 많은 배움이 있고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동료들에 의해 높이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높은 존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열망이 아니었다. 그는 그 스스로에게 구별되거나 우월한 직책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형제 자매들처럼, 단지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었다. 그는 그 자신을 특정 사도로서가 아니라, 단지 한 사도로서 자신을 구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굉장히 무거운 책임의 짐을 지고 갔던가! 그는 매일 그의 마음에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고린도후서 11:28) 짊어졌다. 이 책임이 주어진 어떤 사람이든 주께서 그에게 주신 높은 존귀와 큰 책무에 대한 것을 안다.

바리새인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나는, 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전화번호부에 열거된 많은 수의 전도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자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우리 시대에 강단은 그 명확성을 잃었다.

그 간증은 의심스러운 소리들이 생겨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흠어졌기 때문에 망쳐졌다.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상상과 시대의 발명의 교리들을 내뱉고 있다. 계시 대신에, 우리는 철학이 있다. 신성한 무오 대신에 우리는 인간적 고찰이 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발전의 산물과 해마다 수정되고 새로 형성되는 것으로써 가르쳐지고 있다. 우리는 관용과 폭넓은 관점과 무한한 보편주의와 배교의 급격한 확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른 복음

만약 세상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의 “빛 비취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순화해야 하며, 복음에서 걸리는 것을 없애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가진 그런 어리석음은 자기 섬김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종교 행상들로부터 기대하도록 이른다. 슬프게도 오늘날 세상의 철학에 굴복한 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범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이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헛된 상상을 한다.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성취된 구속의 좋은 소식으로 선포하기 보다 (갈라디아서 3:13), 그들은 좋은 충고와 가능한 구속의 제안 정도로 복음을 제시한다. 구원의 특별하고 구별된 작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보다 (갈라디아서 1:15-16; 에베소서 2:8-9; 골로새서 1:12), 그들은 복음을 모든 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효험을 선포하는 대신 (갈라디아서 3:14; 로마서 9:16), 그들은 은혜의 운행을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만드는 은혜의 개념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낳는 그 자신의 택정함을 위한 하나님의 특정한 사랑을 제시하는 대신 (갈라디아서 2:21; 예레미야 31:3; 로마서 9:13-18; 요한일서 4:19),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을 사소하고 무력한 것으로 만든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한 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시고 역사하신 것으로 선포하는 대신 (갈라디아서 1:15-16; 골로새서 1:12),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죄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로 만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들은 너무도 복음을 왜곡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6-9).

내가 얼마나 자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적합 지 않고, 만약 내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내가 전하는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하고 나의 가르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은 성경 학교나 신학교, 혹은 사적이고 지적 토론을 위해서 모두

좋으나, 설교단을 위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아, 우리가 옛날 문구들을 사용해서 고집스런 정통주의자들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의미로 옷을 입혀서 그 말씀의 힘을 무력화해서 천연적인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시대의 영은 지혜로운 전도자는 매우 엄격하게 의로운 모든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확실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멀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셨으며, 그 말씀과 소통할 방법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말씀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단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실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1:3).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1:6).

바울이 이 서신에서 우리 앞에 제시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자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들이 구별되는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안에서 많은 방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 구절들에서 계시된 것처럼,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한 주

하나님의 사자인 자는 한 주와 함께한 사람이다 (1-2 절).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은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하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에게 있어서 거룩한 분노로부터 솟아나는 위촉시키는 고발이 있다. 그곳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회복을 위한 뚜렷한 불만과 정직한 갈망이 있다. 그를 부르셨던 그 한 분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겸손한 감사가 있다.

바울은 그가 분명하게 은사를 받았음 과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음을 알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였다.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에게서 직접 왔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사람들이나, 어떤 한 사람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사도행전 26:13-18).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 사역 안으로 두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 사역 안으로 들어갔다 (디모테전서 1:11-12). 그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사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로마서 1:1; 사도행전 9:15; 에베소서 3:3-8). 그의 부름은 다른 사도들이 우리 주의 세상에서의 사역 동안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바울은 높여지신 구원자에 의해 부름 받았다. 그의 부름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적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들처럼, 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오직 그는 특별한 계시로 그분을 보았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갈라디아서 1:11-12). 그것이 그의 권위였다.

그가 여는 말에서, 바울은 두 가지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성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것들은 본질적인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는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분이 사망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분은 죄를 없애버리지 않았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위임되었고 복음에 위임된 사람이었다 (로마서 1:1). 그리스도는 그의 주였다. 그는 그의 주께 헌신한 종이였다. 그는 완전히 복음에 구별되었다 (디모데전서 4:13-16).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였다. 그를 거절했던 자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였다.

이 서신과 이 인사말은 바울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고 사역 가운데 그를 도왔던 형제들 모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협력자들이었다. 그 서신은 갈라디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 교회들은 전국적인 교회나 교파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개별적 회중, 지역 교회들이었다. 각 지역 집회는 다른 교회들에 의한 통제가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한 가지 말씀 (3-4 절)

바울은 단 한 가지 말씀—“은혜”를 가진 자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견줄 수 없고, 대가 없으며, 영원하고, 주권적이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였다. 그는 다른 쟁점이 없었다. 그는 다른 어떤 교리도 없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결심을 전하였다 (고린도전서 2:2; 사도행전 20:27).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무기력한 열정,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무기력한 갈망이 아니다. 은혜는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은혜는 피난처로 그리스도께 돌이킨 결점 있는 죄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흠 없으며, 분에 넘치는 호의이고, 그분이 대가 없이 부어주신 사랑의 친절이며 구원이다. 은혜는 대가 없고, 어울리지 않고, 분에 넘치며, 효험이 있다. 은혜는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으며, 전능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 구하러 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진다 (요한복음 6:36; 디모데전서 1:15). 은혜는 그리스도를 대가로 한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며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호의와 선하신 뜻이다 (에베소서 1:3-7).

은혜는, 은혜만 평강을 가져온다.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평강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갖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을 갖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27; 빌립보서 4:7; 로마서 8:1).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답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양심 속에 평강을 갖는다. 은혜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심으로 우리 마음을 연합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평강을 갖는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평강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은혜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과 샘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중보자이고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다.

대속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를 통한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은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그 백성을 위하여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내려 놓으셨다. 선한 목자는 그의 생명을 양을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

대속자로서 주셨다 (요한복음 10:11, 17, 18). 그분의 계획은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었으며 (요한복음 15:19, 17:14), 그는 우리를 다가올 세상을 위하여 지키신다 (베드로후서 3:13-14). 바울은 심오한 단순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이 축복의 복음 교리를 고린도후서 5:21 에서 천명한다.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심오한 진리이며, 얼마나 경탄할 만한 은혜이며, 얼마나 경이로운 비밀이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거룩한 공의와 무한한 긍휼로, 신성한 전가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한하고, 매우 사랑스럽고, 독생 하시며, 흠이 없는 아들이, “죄가 되게,” 불법의 끔찍한 덩어리로, “우리를 위하여,” 무기력하고, 정죄 받고, 죄로 충만한 반역자들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구속이며, 구속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다.” (C.H. Spurgeon). 대속은 기독교의 기초 진리이며, 그 위에 우리 소망들이 건축되는 반석이다. 이것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며, 각각의 참 믿는 자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으셨다!” (고린도후서 5:21).

이것이 지구 상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거래이며,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경이로운 광경이며, 하늘이 지금까지 행했던 가장 놀랄만한 경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야 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지어져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흠 없는 아들은 죄가 되셔야 했다!

이천 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이 거래는 —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역사, 죄인으로부터 죄인의 보증으로 죄의 강력한 이전 — 죄인의 위치에서 보증자의 심판 — 우리로 인하여 우리 대속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병에서 쏟아 부음 —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이 땅 위에 살아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지금까지 정말로 이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영광스러운 실제에 의해 사로 잡혀야 한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 잡도록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짐에 있는 낡은 가구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 대속적 구속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고 영광이며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축복된 필연!) 하나

님의 절대적 주권을 포함한다 (에베소서 1:3-14; 히브리서 10:5-10). 바울은 모든 것 안에 있는, 특별히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역설하는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론과 설명도 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실의 문제로서 천명한다. 그것은 분명 여기에 보인 경우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주셨으며 그분의 그렇게 행하신 것의 확실한 결과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한다.

한 동기

바울이 한 주와 한 가지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 하나님의 영광이다 (5 절).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촉구하였으며, 그것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자신의 마음의 큰 열망이었다. 그의 서신서 들을 통하여 가장 구별되게 그는 우리 혼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고린도전서 1:30-31; 로마서 11:33-36). 그분은 우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가 영원히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7). 그것을 상상해 보라. 주 하나님,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 그분의 큰 은

혜로 인하여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 할 것이다!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동기를 부여 받고 우리 삶이 통치 받도록
하자.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아멘.

2 장

복음의 단일성

갈라디아서 1:6-10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6-10)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듣고 믿기로 확인했던 그 어떤 사람이 율법과 행위, 혹은 은혜와 행위가 혼합된 다른 복음 (전혀 복음이 아님!)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도록 유인될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자를 그야 말로 깜짝 놀라게 한다 (로마서 11:5-6).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 서신을 쓰는데 있어서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역사와 섞으려 하는 이단자들인 그들을 드러내고 질책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우려 함이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려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고백하는 한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뒤섞으려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하였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모든 충만과 효험 있는 인간의 구원자이심과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그분의 완성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쳤다 (로마서 5:11). 그는 그의 모든 선포에 대한 진리를 기적으로 입증하였다. 이 갈라디아 인들은 사도에 의해 전파되었고 확증되었기에 그 복음을 믿기로 고백하였다. 그들은 그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왔던 바울에게 매우 감사했으며, 그랬을 것이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들의 눈이라도 빼서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개종자들이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고 그 대신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영광스러운 복음에 상반되는 말씀을 받아들여도록 한 거짓 교사들의 달변의 설교에 의해 유도되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분노와 비통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 서신을 기록했다.

한 복음

여기서 바울은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단일성을 보여주기를 지속한다. 이 전갈은 독단주의, 목적론, 권위주의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은 관대한 타협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드문 교훈이다. 우리 세대는 어떤 것을 믿지 않도록 지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한 가지는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한 독단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 본질에 있어서, 절대 불변한 것에 대한 비타협적이고, 권위적인 말씀이다. 그 탄생지였던 이교도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가 꽃핀 바로 그 이유가 믿음에 있어 우리 조상들의 비타협적 영이었다. 믿음에 대한 한 항목을 빼거나 더하기 보다, 그들은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독단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그 강단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질 낭랑한 가르침의 절대 절명의 필요가 있다. 이 시대 복음을 위하여 전달하는 메시지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침묵이 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다. 그것은 절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적 억측들로 혼합되고 희석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 순수함 가운데 복음을 떠 받쳐야 한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으며 미친 듯 지옥으로 달려들며,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자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

으면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는 지에 대한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충만하고 무기력한 인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선포다. 그것은 결코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포,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구속의 선포이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순수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가 뒤섞인 복음으로 유혹을 받았다. 그와 같은 복음은 실로 복음 (좋은 소식)이 결코 아니라, 자기 의의 뼈뿔어진 체계이다 (고린도전서 1:30; 골로새서 1:19-22; 2:8-23).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행해진 어떤 것으로부터 별개로 그분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의 선포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선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은 복음의 왜곡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이 그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오고 유지할 것을 호소한다.

놀라움

그들이 지식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가 말씀을 전했던 그들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인식을 주는 것은 바울의 습관이였다.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내적 만족을 표현하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내어 놓는 것은 그에게 매우 일상적이었다. 그것이 그의 서신 가운데 이 지점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이 서신에서 우리는 바로 반대에 직면한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압도적인 놀라움과 고통스러운 혼란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것은 그들이 복음에서 제거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를 방해하였다. 법칙에 있어서 바울은 매우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많은 경우에 너무도 굴욕적으로 행동했던 고린도인들에게 쓴 그의 서신에서 큰 관용을 보여주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시기심 때문에 그에게 반대편에 있던 그 전도자들에 대하여 큰 관용을 보여 주었다 (빌립보서 1:15-18). 그는 언제나 매우 재치가 있었고 잘못들과 실패들을 다루기 전에 격려의 말을 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의 핵심적 본질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이 논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관용을 위한 자리가 없다. 갈라디아 인들은 배교의 과정에 있었다. 그들은 모세의 포로 상태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야말로 놀랍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들의 상황은 단순히 변하는 신학적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공활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분을 저버리고 있었으며, 그 핵심에 있어서 그분의 복음과 달랐던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너희를 부르신”

대체로, 바울은 그가 서신을 보내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참으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부름 받았던 자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을 불렀던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들이 위험하게 등을 돌리는 분은 그리스도였지 단지 바울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부름과 효험 있는 부름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으로 일반적인 방법과 외적으로 복음이 죄인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죄인들을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효험 있게 된다. 복음의 부르심의 효험은, 비록 특정하게 그리스도의 중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삼위의 모든 세 위격에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2-3; 로마서 1:6). 갈라디아 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치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로부터 제거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사람들을 위한 은혜에 속한 전 같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셨고 행하시는 것에 대한 전 같이다 (고린도전서 15:1-4; 고린도후서 5:19-21).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구원의 전 같이다. 그는 문이다. 그는 길이다. 그는 진리다. 그는 생명이다. 죄인들의 구원을 관심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0).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역사로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였다는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자의 피로 성취된 구속과 사함과 칭의와 화목과 성화의 좋은 소식이다 (로마서 5:10-11; 고린도후서 5:17-21; 에베소서 1:6-7; 골로새서 1:12-14; 히브리서 1:1-3; 9:12; 10-14).

“다른 복음”

갈라디아인들도 유대교 교사들도 모두 복음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교도들은 대부분 언제나 그 보다 더 교묘하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왜곡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에 모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함)은 그것의 완전한 부인한다 (갈라디아서 5:1-4).

Martin Luther 는 그가, “그들은 선한 행위를 했으며, 그것들은 칭의의 결과이고, 그것의 원인이다.”고 했을 때 옳았다. 그러나 갈라디아인의 오류는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은혜와 함께 혼합된 행위의 교묘한 사악함을 넘어서서 확장되었다. 바울은 일 장과 이 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삼 장에서 그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단의 더 교묘하고 더 매혹적인 형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성화의 성취 가운데 행위와 함께 은혜를 섞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축소되어서도 안되고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사람의 행위나 의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의이다. 그분은 구속 안에서, 칭의 안에서, 그리고 성화 안에서 우리의 의이다.

우리의 믿음도, 혹은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성취했던 의를 받는다. 우리의 행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에 의해 우리 안에서 그가 행했던 의를 구현한다.

“저주받은 자”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자들은 의의 사역자들로 자신을 변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1:3, 13-15).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이 “속임수 일꾼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있고 (혹은 적어도 그 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하며, 그래서 “주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6; 33:16)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혼을 속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8-9 절).

여기서 사도는 복음을 더럽히는 자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준엄하고 분명한 정죄의 말에서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만에 의한 충만하며 완전하고 효험 있는 구속과 영원한 구원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려 온다면, 그가 영원히 지옥에 있게 하자.

하나님의 계시는 최종적이며,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것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다 (히브리서 1:1-3). 그는 아버지의 충만한 계시이다. 그는 구속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 위로 왔다. 그는 그 일을 마쳤다. 하나님의 책은 최종적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계시된 뜻을 말한다. 그것은 그분의 일에 관한 총체를 계시한다. 하나님의 말씀 만이 그분의 집 안에 있는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이사야 8:20; 계시록 22:18-19). 복음은 최종적이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데,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우리 혼의 구원자로 계시된다 (사도행전 4:12; 요한일서 5:10-11).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요한이서 10-11).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혐의를 두는데 있어서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누가 다른 그리스도와 다른 복음을 전하려 올 때, (복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기보다 당신이 한 것에 좌우되는 어떤 정도나 어떤 점이 있다고 전하는 자) 우리 책임은 아주 분명하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10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자신을 생각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즉 회유하는 것임), 복음을 사람들에게 끌리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런 모든 노력들은 부패한 동기에서 나오며 사람의 혼의 파괴를 낳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다. 바울은 결코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하였고 그에 의해 동기를 받았다. 그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원칙은 그의 한 주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그 단순한 사실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6:24). 사람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람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성한 진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숨기려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율법에 따라 믿는 자들이 살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을 오용하는 것이며 (디모데전서 1:8-9),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속박의 짓누르는 멍에를 씌우려 한다.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으로부터 율법의 속박 아래로 되돌아가게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1-4).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정결함 안에서 복음을 제시하자. 죄인들을 유일하게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의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명이 없다.

3 장

우리 복음은 하나님께 속함

갈라디아서 1:11-24

자신들이 마치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했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었다. 같은 속임수로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가 원래 열두 사도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그가 사도들에 의해서 결코 인정받지 않았으며 그가 그들의 가르침을 합당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분은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선포하면서, 담대함으로 이 근거 없는 혐의에 응답한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고 한다. 다른 사도들은 우리 주로부터 그분이 굴욕을 당하는 동안 그들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은 이 직분에 높임 받은 구속자에 의해 부름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한 주장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그가 말했던 것을 계속하여 입증한다. 그는 그 사실들이 모든 미래 세대에 있어서 그의 전갈의 유효함에 대한 인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장 큰 진정으로 이것을 호소한다. 그가 기독교에 대한 맹렬한 공격이 그의 서신에서 드러난 가르침 위

에 임하였을 것을 미리 본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는 수고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Spurgeon 은, “어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 ‘나는 성 바울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기란 이상하지 않다. 내가 처음에 놀라서 이 표현을 듣고 놀라서 그들을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 소인배가 이 위대한 사도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것에 놀랐다. 그것은 그룹(천사)와 다른 치즈 조각이나, 마치 불기둥에 대하여 논하는 한 줌의 쓰레기 같아 보인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의 전갈을 방어하면서 자신의 사도직분을 지키고 있었다. 이 방어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절대적인 특징을 본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목적 (성령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성령의 효험 있는 권능에 의하여 아주 짧은 순간에 사람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 복음은 사람의 것일 수 없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되며, 하나님에 의해서만 계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적용됨을 보여준다.

형제들

(11 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을 “형제들”이라고 지칭한다. 지금에서조차도, 그들의 탈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그도 역시 한 지체인 — 아버지의 권속 — 동일한 영적 가족의 지체로 여긴다.

여기 우리를 위한 어떤 공과가 있는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타락하였고, 믿지 않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너무 서둘러 선포한다. 그런 판단은 모두 모질고 악하다. 당신과 나는 잡초와 밀을 구별하거나 염소와 양을 구별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주의 우화가 그 사실을 충분히 분명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기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는 자들을 언제나 추정하며, 그렇게 한다. 고린도 성도들이 매우 비탄스러운 도덕적 영적 오류들에 빠진 것처럼 (고린도전서 1-6), 이 갈라디아 인들은 통탄할만한 교리의 오류, 바울이 그것을 의심하도록 하게 했던 오류 (4:11, 20) 속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인들과 갈라디아 인들 모두를 “형제들”로 부르며 그들을 “형제들”로서 다루었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마음은 그들을 형제들로

품고 있음을 확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타협이나, 꺾치레가 없이 그렇게 했다.

계시

(11-12 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6-9 절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가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께서 시초인 까닭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갈임을 계속 보여준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의 형태는 매우 강하다. 그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할 때, 그는, “내가 너희를 가장 확실하게 확신시킨다. 나는 너희가 그것을 확신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발명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근원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은 신성한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을 죽여서 낮아지게 하며 삼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죄를 드러내고, 의를 요구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선물로

의를 선포한다. 복음은 좋은 충고도 아니고 은혜로운 제안도 아니다. 그것은 공홀의 제안도 아니고 구원에의 초대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얻은 영원한 구속이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하여 완료된 역사의 좋은 소식이지, 죄인들을 위하여 할 어떤 제안이 아니다.

대가 없이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은 그 근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창의력이나 고안의 결과 아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우리 위에 은혜롭게 된 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인간적인 공로가 없이 신성한 보증인과 대속자에 의해 성취된 구속은 내게 어리석음이다. 우리를 위하여 성취된 구원은, 하지만 모두 우리의 외부에서와 우리가 없이 성취된 구원은 신성한 계시로 인하지 않고는 사람이 결코 잡을 수 없다. 우리의 복음은 전적으로 인간적 생각에 반대이다 (고린도후서 2:14; 이사야 55:8-9; 요한복음 1:5).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가운데 고안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다.

복음이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한편 그 수혜에 있어서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포한다. — “나는 그것이 사람에게 속하여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다.” 바울

은 복음을 그의 부모로부터 그 자신의 의지로 받지 않았고 (요한복음 1:12-13), 가말리엘의 가르침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지 않았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는 분명히 사람의 입술로부터 그 복음을 들었고 (로마서 10:14-17). 그는 분명히 스테반에게서 들었으며 (사도행전 7:58),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여러 번 전해졌던 전갈을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가 들은 복음을 믿고 이해하게 하였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의 역사이다. 그분만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날 것을 명령하시며 우리 마음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4-6).

어떤 죄인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뿐이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받은 방법이고, 그것이 모든 선택 받은 죄인이 복음을 받는 방법이다 (에베소서 3:3-8). 바울의 회심은 예외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명령이었다 (디모데전서 1:16).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전형이고 예였다. 어떤 사람의 혼의 흑암의 심연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믿도록 빛비춤 받는 것은 오직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으며, 빛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이다 (마태복음 16:17; 요한복음 3:3; 고린도전서 12:3; 누가복음 10:21-22).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셨다.” (16 절)고 말한다.

회심

(13-16 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도는 그의 회심의 역사를 이야기 한다. 우리에게 전체 전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다. 그는 단지 그의 부름의 증명과 하늘로부터의 사도 직분을 뒷받침하는 그 사건들만 이야기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의 기록과 사도 행전에서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 (초대 교회를 통하여 행해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기록이다)은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다른 사건들을 빛 비추려 함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름과 기억을 파멸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잔혹한 박해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보물, 그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를 바라면서 박해하였다. 이것이 주께서 그를 구원하신 후 그에게 계속되는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그가 그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저주 받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로마서 9:1-4). 그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 (빌 3:4-7). 그러나, 모든 시간 동안 주 하나님은 그를 찾고 계셨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 주 하나님은 그를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의 모태로부터 섭리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 분별하셨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분의 은혜는 주권적이며, 영원하고, 거절할 수 없다 (예레미야 1:5; 누가복음 1:15; 로마서 9:10-24). 그분에게는 그분 자신의 특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세상의 기초 이전에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15:16; 에베소서 1:3-4, 11;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베드로전서 1:2; 디모데후서 1:9).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분의 택하신 자 가운데에서 각자를 부르신다 (로마서 8:30).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효험이 있다. 그렇다, 언제나 (요한복음 6:37-39; 63-65).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선택된 죄인들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시며, 달콤하게 그들을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시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속한 이 전능한 행위로 인함이다 (스가랴 12:10; 시편 65:4; 110:3).

전도자로 만들어짐

주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독자를 복음 전파자로 만드신 것은 그와 동일한 거절할 수 없는 권능이었다 (디모데전서 2:7; 디모데후서 1:11).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도자로 만들어졌다. 그는 단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여 된 것이 아니라, 큰 뜻을 품은 전도자로 만들어졌거나, 혹은 기꺼이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는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그것은 실제로 사역의 일에 참여하기 전에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관습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 일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음 사역의 일에 부름을 받았던 어떤 선지자나 사도나 목자의 예를 찾으려 당신은 헛되이 성경을 찾아볼 것이다.

사역에 부름의 이 문제 안에서, 다른 모든 것에서처럼, 관습적인 방법이 모두 틀리고 악한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 사역에 부름 받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할 때, 그 일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 앞에 마차를 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 가운데 두시기 전에는 그 일에 부름 받은 것으로 언급될 수 없다. 그 순서를 뒤집는 사악함은 속히 분명해진다. — 일단 사람이 그가 전도자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혹은 스스로를 확신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은 책무나 일에 가혹하게 추구

하도록 한다. 만약 그가 그의 추구에 성공하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다. 만약 그가 자신을 위한 방법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그는 끊임 없는 좌절 속에 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디모데전서 3:10).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책무와 일에 두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도록 하라.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그가 기쁜 평안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이상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서 기쁜 평안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다른 어떤 능력으로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다. 실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곳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잠언 18:16).

바울은 우리에게 일단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를 정복하고 복음 전파의 일에 그를 부르셨기에,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해야 했던 것에 대하여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만한 독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순종의 문제였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에 관하여 혈육과 의논하는 것은 불순종의 행위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5).

바울과 다른 사도들

17-24 절에서 바울은 간략하게 그의 초기 사역과 그에 앞선 우리 주의 사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는 그 신실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그들과 독립적인 것을 찾지 않는다. 주님은 단순히 그를 삼 년 동안 받은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그를 지키셨다. 그는 우리에게 17 절에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보냈으며, 후에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얼마나 그가 거기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으며,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들은바 없다.

그리고, 삼 년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베드로와 열 닷새를 보냈다 (18 절). 그러나 그가 거기에 있는 동안, 야고보 외에는 다른 어떤 사도들과 교통하지 않았다 (19 절).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그가 믿었고 전했던 것과 그것을 믿고 전하기 위한 그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고, 심지어 사도들로부터 오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단순히 재확인하고 있다 (20-21 절).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고, 감사를 드렸으며, 바울 안에 있는 은혜로운 그분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2-24 절).

4 장

은혜의 모든 것

갈라디아서 1: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갈라디아서 1:15)

“은혜 그 황홀하게 하는 소리,
나의 귀에 평화롭네;
메아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네,
또 모든 세상이 들을 것이라.

은혜가 처음 그 길을 예비하였네
반항적인 사람을 구하려;
그리고 은혜가 보여주는 모든 발걸음들
놀라운 계획을 그렸네.

은혜가 처음 나의 이름을 새겼네
하나님의 영원한 책 속에;
내게 어린 양을 주신 것은 은혜였네,
내 모든 슬픔을 가져간 분.

은혜가 나의 방랑하는 발길을 인도하셨네
하늘 길을 걷도록;
그리고 새로운 공급을 매시간 만나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동안.

은혜가 모든 일에 관 썩우리니,
영원한 날을 통하여;
하늘에 최고의 돌을 세우리,
그리고 찬양 받기 합당하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은혜는 사람을 향하여 운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가로 한 하나님의 부요함”임을 우리 자녀에게 일찍이 가르친다. 우리의 찬양은 은혜의 찬양이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경배 받으시는 모든 설교단의 끊임 없는 주제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은혜에 속한 생각과 체험을 발견하고 너무도 놀람도록 경이롭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 은혜는 그들의 이야기와 기도에 있어 지속적인 주제이다. 시간 가운데 지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찬송을 썼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그들의 입장에 대한 대가로서 조롱을 받고 특권을 잃으면서, 은혜를 위하여 싸웠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들 유대교인들과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

싸웠고, 종교개혁자들은 스콜라 철학과 싸웠고, 바울의 후손들과 어거스틴,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로마 가톨릭,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메니아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인문주의 교리들과 싸워오고 있었다. 바울과 함께 그들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나이다.”이며, 그들의 생활의 규율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이다.

하지만,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 사람이 극소수인가? (1.) 그들은 사람의 도덕적 질병의 사막을 보지 못한다. (2.)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그릇된 시야를 갖고 있다. (3.)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에 대하여 약하고 비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4.) 그들은 사람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5.)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유형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박해자였으며, 사람들을 불러내어 감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서신을 갖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던 길에 그는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을 보았

고, 하늘로부터 그에게 말하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사람 사울은 회심하였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사흘을 보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었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는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큰 소용이 되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회심을 그 갑작스러움과 구별됨으로 인하여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실로 그렇다. 하지만, 동시에 회심의 일반적인 법칙에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그분의 오래 참음과 은혜를 내 보이시는 방법의 예표, 혹은 모델, 혹은 전형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의 전형이었음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한다 (디모데전서 1:16). 그것은 단순히 바울이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된 때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회심하였지만 (에스겔 16:8), 주 하나님은 사소의 사울을 향하여 그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은혜로운 생각을 갖고 계셨다. 이 죄인 중의 괴수 위에 신성한 사랑과 은혜의 눈이 고정된 경우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분별해 두셨고, 그를 따로 떼어 두셨고, 심지어 그의 모태로부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도록 하셨음을 선포한다.

구원은 은혜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으며, 오로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다. 따라서 “어떤 육신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하늘로 데려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는 전적으로 지옥에 합당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다.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선택 받은 죄인이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 큰 실수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전체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역사는 하나님께 속하여 행해진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그것은 모두 은혜와 은혜로 만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의지나 행위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계획됨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였다 (에베소서 1:3-14). 전체 역사는 택정하심의 사랑으로 영원 가운데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영광으로 미리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안배하셨다 (로마서 8:28). 그리고 그분의 아들, 우리 중보자이고 보증자,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당한 어린 양의 위격 안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바라 보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 안에 받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의 시작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모든 축복으로 “그분의 은혜로운 영광의 찬양에 이르도록” 그들을 복 주셨다. 신성한 섭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모든 지혜로 세우신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 (로마서 8:28-31).

우리 구원의 대가는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만 나셨다 (에베소서 1:7-12).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로 요구된 그 대가는 그리스도 보혈이었다 (베드로전서 1:18-20).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지혜와 현명함”으로 그분의 사랑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길을 찾으셨으며, 그 길은 그리스도이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자, 우리가 이제 “그분의 영광의 찬양으로” 신뢰하는 동일한 보증자, 그리스도의 손에 그분의 택하신 자를 은혜롭게 맡기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3-6).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사셨다 (에베소서 1:7-12).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권능으로 은혜의 역사를 수행하신다 (에베소서 1:13-14).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당신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모든 선택 받은 죄인에게 약속된 사랑의 때에 주시고, 선택한 자들 안에 생명과 믿음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믿는 자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는 자를 변치 않는 은혜로 그를 지키며, 부활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이르도록” 인치신다.

앞서는 것

은혜는 구원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은혜는 구원에 앞선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거의 듣거나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를 앞서는 이 은혜는 “선행 은혜”라고 옛 자들은 불렀던 것이다. 이 선행 은혜는 바울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는 내적 외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모태로부터 구별하였던 바로 그것을 행할 특정한 계획, 그분의 은혜의 알 수 없는 부요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의 인성, 그의 교육, 그의 종교적 훈련, 심지어 교회에 대한 그의 박해들이 그의 혼의 선함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고 통치된 것이었다.

주께서 너무도 경이롭게도 한때 그가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몸의 지체로 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결코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그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언급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죄로 충만한 잔혹한 그의 과거 행동들은 그에게 언제나 낮아지게 하는 회개의 문제들이었다. 타락한 자로서 그 자신과 했던 것에 대한 기억은 그에게 그가 알았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목적 가운데 열심과 담대함을 그의 마음 속에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앞을 내다보는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하는지. 베드로가 만약 여중 앞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오순절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든다. 루터가 만약 그 자신의 행위로 영원한 구원을 찾으려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다면, 아마도 은혜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죄인 위에 영원 전부터 두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이” 합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택하신 자 가운데 언제 역사를 시작하실 지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살리는 은혜가 올 때 말할 수 있으나, 은혜 그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초년에 형성되는 은혜로서 시작한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두신다. 그분은 우리의 성향을 지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신다. 후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방적 은혜로 우리 위에 임한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개방된 죄와 타락의 과정에서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억제하는 은혜가 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걸지만, 심지어 그들의 주먹을 그분의 면전에 들이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부도덕을 억제하시고 파멸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유다서 1). 그분께서 대양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분의 사랑의 대상에게, “여기까지 너희가 같지니, 더 이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약속된 사랑의 때에 그들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전능한 구원의 공화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신다.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죄인들의 마음을 예비하신다 (마태복음 13:3-9).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능력의 날에 자원하게 하신다 (시편 110:3).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듣도록 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양심을 주신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현재 상태에 불만을 창조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혼 가운데 고난과 고뇌를 만드심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벗기신다 (시편 107).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하여 성취된 구속에 대하여 그들이 확신하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신다 (요한복음

16:8-11). 성령 하나님은 자포자기한 탕자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신다. 그분의 확고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을 효험있게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씩 믿음 가운데 그분께 오도록 하신다 (시편 65:4).

보존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신다 (요한복음 10:27-29; 빌립보서 1:6; 디모데후서 1:12).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것은 담요이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그것은 모든 때와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경우와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모든 양에 대하여,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내 양이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이고 그들의 열정이

강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약 그들이 늙은이들이고 그들의 이상이 희미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이 만약 시험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약 모든 지옥의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이 또 죄를 짓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이 타락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이 하루에도 일곱 번이나 타락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이 하루에 이른 번이나 타락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약속은 모든 양 떼 가운데 일어난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리스도의 양 가운데 하나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하나라도! 이것은 은혜를 입은 소수만을 위하여 구별된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택하신 양 떼에게 공통적인 공훈이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이 영생을 받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약속하셨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위에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 버릴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 노아의 타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강하게 하지 않았다. 롯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덜 의

롭게 만들지 않았다. 다윗의 범죄가 그를 멸망하게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이 그의 주께서 그를 부인하게 하지 않았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 그리스도의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보증의 교리는 모든 방면에서 제시된 모든 진리와 함께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마디라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말씀도 믿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양이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지 그 일곱 가지 이유가 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야 한다 —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디모데후서 2:19; 요한일서 3:19).
2.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 (요한복음 6:37-40).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 될 수 없다.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되돌이킬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증 계약은 파기될 수 없다 (히브리서 2:13).
3.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파기 될 수 없다 (이사야 53:10-11).

하나님의 책은 실제적이고, 거짓이 없고, 성취되고, 대소의 구속

을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빛을 지불하셨다. — 우리는 지불할 빛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지셨다. — 우리가 져야 할 심판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격노한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 우리가 져야 할 것이 남아 있지 않으며, 만족시켜야 할 것이 없다. 공의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공물을 강력하게 선포한다 (로마서 5:10; 8:31-34).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였다면, 그러면 그들을 대신한 죽음 안에서 그분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것이다 (에베소서 5:25-27; 갈라디아서 1:4-5; 디도서 2:14). 만약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였다면, 그러면 그분은 그의 혼의 고통에 대하여 결코 볼 수 없었고 만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4.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의롭게 됨은 은혜에 속한 돌이킬 수 없는 행위다.

시험은 끝났다. 하늘 법정은 우리에게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을 선포하였다 —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를 믿는 혼에게 전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서 4:8).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영원히 없애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다. 우리의 의롭게 됨은 대

가 없고, 완전하며, 영원하다!

5.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역사는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
(빌립보서 1:6).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것을 그분은 완벽에 이르도록 계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기꺼이 완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료하실 만큼 충분히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료하실 만큼 충분히 힘이 있다. 전혀 추정함이 없이, 모든 참 믿는 자는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시작된 그 역사,
 그분의 강한 팔이 끝낼 것이라;
 그의 약속은 예 이고 아멘 이니,
 결코 몰수 당하지 않았구나:
 미래의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분이 그의 계획을 버릴 수 없게 할 것이니,
 혹 나의 혼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라.

 그분의 손 바닥에서 나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그분의 마음에 새긴 것은 남아 있으니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표시 안에라:
그렇다, 나는 마지막까지 인내할 것이라,
보증자가 주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더욱 기쁘면, 더욱 안전하지 않으니,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영들이라.”

6. 그리스도의 중재 역사는 분명히 대언하신다 (요한복음 17:9-11, 15, 20; 요한일서 2:1-2). “우리의 이상은 결코, 결코 실패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변호하고 대언하시기 때문이다!”
7. 성령의 인침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 (에베소서 1:13-14).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8).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 속에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보존되어 있다. “너의 모든 성도들이 네 손 안에 있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얼마나 복된 곳인가! 여기가 우리 안전을 위한 곳이다. 이는 우리를 구속하시려 못 박혔던 손이다. 이는 전능한 능력의 손이다. 이는 우주 통치의 권을 가진 손이다. 이는 생명 안에 위를 잡고 있는 손이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손이다. —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29-30). 하

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확실히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음은 (스가랴 4:6-7; 유다 24-25), “구원”이라 부르는 이 축복의 역사는 은혜의 모든 것이다!

5 장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갈라디아서 2:1-10 과 사도행전 15:1-29

성경의 이 두 부분은 초대 교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간단한 사례들로서만 여겨지기 때문에 종종 가볍게 지나치게 되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이 두 장은 우리 구원자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심각한 비극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록 그 사건들을 알기 위하여 조심스런 비교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만약 그 연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적용한다면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시대 동안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교회는 매우 괴로운 국면을 격어야 하였다. 오순절에 “모두 하나가 되었던” 그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박해로 초기 믿는 자들을 세상의 여러 부분으로 흩어지게 하였던 것처럼, 복음의 소중한 씨가 흩어졌으며,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났다. 더욱이, 바울이 회심하였고, 사도로 만들어졌으며, 이방인들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였다.

한편, 기독교를 거짓되게 수용하는 바리새인들의 종파 중 몇몇이 있었다. 즉, 그들이 교회에 들어갔지만, 교묘하게 들어갔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여러 가지 율법의 의식과 행위들을 혼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으로부터 철저히 타락하여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저주의 율법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1).

옛 유대인 질서 하에서 할례는 도덕상 그리고 의식상 중요성을 모두 가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멀리하는 것은 모세 율법 전체를 멀리하는 것이었다. 히브리 인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이 분명하게 보여 주듯이,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것에 대하여 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세 율법은 천사의 손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 그것은 4 천 년 동안 진짜 종교가 되어 왔다. 모세 율법 체계 전체가 예표적이고, 따라서 덧없는 것이 없음을 깨닫기란 유대 믿는 자들에게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그 문제는 단지 할례뿐만 아니라 전체 율법 체계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가? 이것은 그 초대 때 교회를 분열하였던 의문이었다.

비록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이 질문을 진정시켰지만, 그것은 여

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누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을 모세 율법의 노예가 되고 예속되게 하려 고집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 옛날의 소문 끈들처럼,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전한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율법의 속박의 끈짜고 짜증나게 하는 멍에 아래로 두려 하는 것은 사람들의 혼에 유감스럽고 위험하다 (골로새서 2:8).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리가 결코 이렇게 공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율법에서 자유하니, 아 기쁜 상태,
예수께서 피 흘리셨으니, 용서가 있네;
율법으로 저주 받으니, 타락으로 멍들었네,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한 번에 모두.

이제 우리는 자유하니, 저주가 없네,
예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네,
내게로 오라, 아 그의 달콤한 부름을 들어라.
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한 번에 모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이나 권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 구절의 이 모든 의문에 대하여 한번에 자유를 주기 위함이며, 그와 모든 다른 사도들이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이 문제에 동의하였고, 어떤 곳도 그리스도인인 한 율법에 주어질 곳이 없다는 것이 염려된다는 것을 모든 세상에 보이려 함이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은 모두 복음의 교리에 동의하였다. 그들의 전같은 사람에 의해 행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의에 따른 구원이었다. 은혜만이 삶에 있어서 믿는 자의 동기다. 그리스도만이 구속과 칭의와 성화의 성취자이다 (고린도전서 1:30; 히브리서 10:10-14). 믿음만이 은혜의 모든 축복을 받고 품고 누리는 수단이다. 갈라디아서 2:1-10 안에서 성령은 사도행전 15 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났던 것을 설명하면서 영감 받은 설명을 우리에게 준다.

직접 계시

(1-2 절) “십 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어떤 이유에서 사도행전 1:30 에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방문 이후에 14

년 만에 일어났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바울의 회심 이후에 17 년 이후에 일어났다. 그는 이제 노련하고, 신중하며, 능력 있고, 확증된 사도였다.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들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그의 사도 직분을 확증 받기 위하여 아무런 필요도 없었다. 바울은 유대교인들이 이 율법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일으킨 분열을 확실하게 진정시켜려 예루살렘에 갔다. 그는 그와 다른 사도들이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는 그의 여정의 동료였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권고의 아들”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사도들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으며, 아마도 그의 사역의 특출한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11:24). 바울의 동역자 중 또 다른 사람인 디도 (바울의 사역 하에 회심하였던 자)는 또한 그와 함께 여정을 가졌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회심자였다. 바울 자신처럼 이 두 사람 모두 입증되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다 (2 절).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안

에서 주셨던 계시로 하나님의 영의 지침을 언제나 구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영적이고, 교리적이며, 전도의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사실이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영에 의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섭리로,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울은 신성한 계시로 예루살렘에 보내졌다. 하지만, 그는 안디옥 교회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사도행전 15:2-3).

교리적 고백

(2-5 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 하는 것이나 달음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조심스럽고, 솔직하며, 충분히 설명하였다. 첫째, 그는 지혜롭고 합

당하게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았다. 그는 명성이 있는 그들을 찾았다. 그들의 명성이 무엇이었나? 그들은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로서 형제들에 의해서 명성을 얻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찾았던 것은, 첫째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합당한 방법으로 그 명성이 당연한 그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한 집회 앞에 놓여진 논쟁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는 그 집회의 목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목적 가운데 그의 복음과 성공을 선언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사도행전 15:4). 그는 그의 말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께서 그가 전하였던 복음이 그를 보내셨던 곳마다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회심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선포했다 (로마서 1:16-17; 고린도후서 2:15-17).

다른 사도들과 장로와 전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난 후에, 바울은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아마도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교회에 직접 갔었다면, 그는 아마도 더 큰 분열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의 의도와 그의 전한 말 모두 오해 받았을 것이다.

바울과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 완전한 동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의 하나의 큰 증거는 다른 사도들이 디도가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심지어 제안도 하지 않았던 그 사실이다. 바울은 절반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가 후에 할례를 받도록 하였지만, 그는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교리적인 압박 때문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16:3; 고린도전서 10:28-31).

여전히, 그곳에는 이들 신실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 고소할 것을 찾아 그들의 자유함을 엿보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며서 들어왔던 어떤 거짓 형제들 사이에 날카로운 대결이 있었다 (4-5).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문제화 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존재였다 (사도행전 15:5; 유다서 4).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매인 죄인들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신실한 사람들은 한 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Henry Mahan 은 최근에 이렇게 썼다...

“현대 종교의 오류에 대항하여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나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모두에게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어떤 점들에 대하여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침묵하기를 요구하는 오늘날의 동정의 법칙을 나는 정말로 경멸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복의

존귀가 관련된 곳 어떤 곳에서든 침묵하는 것은 주 예수께 대역이다. 일반성 안에서 다뤄지고, 이것 저것 과장하여 떠버리는 것과 모두에게 친구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의 면류관에 대한 권리를 지속하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에 속한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는 것은 왕이신 예수의 충성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복음의 단일성

(6-9 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 없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씀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형제들은 (거짓 형제들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믿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그곳에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직 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복음의 믿음 안에서 모두 연합하였다. 모든 참된 믿는 자는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믿는다.

6 절은 비꼬는 말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각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얻은 평판에 대한 인정이다. 복음 전도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에 대해 높은 평판에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2-13; 히브리서 13:17).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천연적인 자격으로 인하여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아무 조건이 없이, 대가 없이 죄인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역의 일에서 사용하기에 기뻐하는 자들은 본성에서 그 일을 위한 최소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26-29). 바울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분의 부르심의 덕으로 이 사람들과 동등하였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던 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토기, 그 안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의 위대한 보화를 두셨던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 모두 그것을 안다 (고린도후서 4:7).

예루살렘의 신실한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며, 그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에 동일한 존귀를 표하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맡기셨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았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라고 그에게 위임된 복음의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 (고린도후서 9:17; 데살로니가전서 2:4; 디모데전서 1:11-12; 에베소서 3:8).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라고 그에게 위임된 복음의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 동일한 복음이 모두에게 위임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것에 신실하였다. 두 사람 모두 신실하였고 두 사람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모두 복음이 퍼져나갔던 도구로서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여겨졌다.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어떤 섬김을 위한 본질이 되는 그것은 신뢰감이다 (마태복음 25:21; 고린도후서 4:2). 하나님의 종들이 신뢰할 가치가 있게 되고 (고린도전서 7:25; 고린도후서 4:1), 그렇게 계속하며 (사도행전 26:22),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24; 디모데후서 4:7)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안에서 동역자들로서 사도의 교통 안으로 받아들여 졌다. 교통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통된 체험, 관심, 목적, 소망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교통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요한일서 1:3-7). 복음의 단일성이 없는 곳에 교통은 없다.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교통 안으

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승인의 도장을 찍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들이 모두 동역자들이었던 모든 교회에 선포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관심

(10 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락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을 받아들인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에 대하여만 관심을 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계명과 의례와 의식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역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아주 좋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그 종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개입되어 있었다—복음의 순수성! 아무것도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면 복음의 순수성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의 모든 수고 가운데 가난한 자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그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이었다. 가장 비난의 대상들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온화함의 실행은 언제나 시기 적절하고 언제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를 맛보았던 가난한 죄인들의 의무와 기쁨 모두이다 (출애굽기 23:10-11; 30:15; 레위기 19:10; 신명기 15:7-11; 예레미야 22:16; 다니엘 4:27; 아모스 2:6-7; 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6:36; 요한복음 13:29; 고린도전서 16:1-2; 고린도후서 8:9; 마태복음 25:31-4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의, 거룩, 그리고 선행은 언제나 사랑, 친절, 긍휼과 연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 받고 동기를 주는 율법이다 (요한일서 2:23).

6 장

대가 없이 의롭게 함

갈라디아서 2:11-19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의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은 있는 그대로 간결한데, 신약의 중추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현저하게 제시하고 근본적인 질문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 조망은 이 대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책망에 매우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 어떤 문제도 더 중요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에 초대 교회의 생존 아니면 난파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갈라디아의 위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일으켜졌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의 경우에서처럼, 위기는 한 사람의 역사,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사를 받았으며, 무장되고, 보내진 한 사람에 달려 있었다. 그 사람은 바울, 이방인의 사도였다. 하나님은 수임자들과 단체에 대해서 거의 소용이 없다. 인류 역사상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역사들은 한 사람, 진리의 근거를 위하여 성령 안

에서 한 눈을 갖고 강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셨다.” 따라서 바울은 혼자만 부름을 받았다. 그 뒤에 어떤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그 뒤에 어떤 사회나 당파가 없었다. 그 뒤에 어떤 종교적 명령도 없었다. 바나바조차도 그의 동기를 멈출 수 없었다. Luther, Calvin, Knox 처럼, 그는 큰 위기의 때에 홀로 섰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고 독자적으로 이 경우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만의 칭의이다. 그리스도 밖의 모든 것에 침례하게 대비되고 죄 있는 죄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더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만 바울의 주제였다. 다른 어떤 전갈도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체에 있어서 만유 가운데 만유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편에서 하는 그리스도와 우리 편에서 행하는 우리만한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빈 손으로 공홀과 연민에 대한 고마운 선물을 받는 자들인 가련한 거지의 처지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앞에 놓인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복음과 사도 위치에 대한 것 모두의 본질적인 독립을 계속 입증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둥들”에 의해 매우 열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왔던 그 복음은 필요성이 요구될 때, 그 “평판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맞닥뜨렸음이 강조되었다.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한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총회와 두 번째 사역 여행의 시작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했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얼마간 머물렀을 때가 그때였음을 사도행전에서 본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가 없이,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위에, 그들 자신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도 제외하고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대가 없는 칭의를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전갈이었다. 이것이 복음의 전갈이다 (로마서 3:19-26). 이것이 모든 참 믿는 자들의 가르침이다.

베드로의 오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좃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11-14)

베드로가 이 때 왜 안디옥에 방문하였는 지는 듣지 못한다. 그

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저지른 행동의 잘못이 너무도 심각하여 바울이 그의 면전에서 그에게 반대하려는 부자유스러운 것을 느꼈다. 바울은 숙덕거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말하는 자처럼 하려 하지 않았다. 다른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는 형체로서 그는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공격하였다. 그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는데, 베드로의 행동이 공개적이었고 큰 공개적 해를 끼쳤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어찌 되었든지, 베드로가 신성한 영감 하에 썼던 그것들이 권위와 무오함과 확실성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에서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들이 오류가 없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다른 믿는 자들처럼,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이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 단순한 사건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상의 승계자로서 교황의 무과실과 지고에 대한 로마 가톨릭 가르침을 완전히 파괴한다.

베드로는 비난 받아야 했다.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행위는 정죄 받아야 했다. 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그는 그의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아마도 교제 식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애찬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이 명절들의 마지막

에 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교제 식사가 고린도전서 11:17-34 에서 지적된 것처럼 많은 오용을 가져 올 수 있었다. 고린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부에 따라 차별이 있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차별은 인종적 특성에 따른 것이었으며, 유대인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이방인 형제들과 구별되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뿐만 아니라 그 모임의 구별이 이제 내려 놓아 졌고, 모임이든 사람들이든 아무것도 그 자체로 공통된 것이거나 불결한 것이 없음을 알았다 (사도행전 10:28-48; 15:8-11).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복음 시대에 은혜 아래 있음을 주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그는 유대 믿는 자들이라 할 지라도 더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음을 알았다. 분명 그때 율법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다.

베드로가 이것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목자로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역시 믿는 자들이었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것을 멈추었다.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결국, 그가 했던 모든 것은 이것이다. 그가 그의 유대인 친구들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단지 식탁에서 일어나서 그의 입에서 돼지

고기 냄새를 유대인 형제들 중 아무도 맡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방인 형제들에게서 걸어 나갔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 결과에 있어서 끔찍하였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서, 베드로는 여전히 식사와 음료,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있음을 우선적으로 내포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분노(유대 믿는 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소심한 행동을 하였다. 베드로 식탁에서 일어나서 이방인 형제들에게서 걸어 나왔을 때, 비록 그는 분명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본보기로 큰 소리로 말했고 그의 잘 못으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끌어들였다 (13 절).

공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몇 가지 분명한 공과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중 최고는 기껏해야 죄 있고, 약하며, 모순되고, 잘못으로 가득한 사람들일 뿐임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 자신만 남았을 때,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행동하고 자신을 정당화 하지 않는 것은 없다. 고귀한 노아는 취하여 무감각한 상태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신실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두려워서 매춘부 역할을 하게 한 것을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의로운 롯은 소돔에서 살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다. 헌신적인 다윗은 간음을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살인을 범하는 것으로 보였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글을 쓰는 자나

읽는 자에게도 어떤 예외가 없다. 이 사실을 모두 깨닫도록 하자. 그것으로 우리의 넘어진 형제를 향하여 은혜롭게 행하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나뉘어 지지 않도록 돕게 될 것이다.

둘째,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잠언 29:25). 주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 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통치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언짢은 표정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호의를 바라는 것으로 지배 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배 받을 수 없다.

셋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속담에,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는 말이 진리인 것은 그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영향에 대하여 우리를 본 삼아서 책임져야 한다. 우리 중 아무도, 확언컨대, 우리의 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영향이, 특히 그 본보기가 악할 때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못한다. 부모와 교사와 목사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인식하여야만 한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섬처럼 살지 않는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망각하였으며 탐욕과 도덕적 파산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무절제한 생활을 살도록 만든다. 슬프게도 내가 두려운 것은 동일한 것이 이 어두운 흑암의 시대에 있는 세상 전반에 있는 부모와 교사와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가 시대의 조류를 구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도록 결심하자.

바울의 질책

바울은 즉시 베드로가 행했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암시가 의도적임을 보았다. 그의 암시는 율법이 여전히 믿는 자에게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4 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참 복음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로마서 6:14-15; 7:4; 10:4; 골로새서 2:16-32). 은혜의 왕국 안에는 율법의 노예를 위해서 아무런 여지가 없다. 믿음의 가족 안에는 율법의 채찍을 위한 아무런 거처가 없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제와 그분의 은혜를 위한 감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동기를 갖게 되고 통치를 받는다 (고린도후서 5:14; 8:8-9; 요한일서 3:23; 고린도전서 10:31). 복음 안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들이 없다 (디모데전서 4:4-5).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것이 없다 (에베소서 2:13-22; 갈라디아서 3:28). 베드로는 이방인처럼 살았지

만, 그러나 이제 그는 행동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반되고 모든 사람 눈에 거슬렸다. 따라서 바울은 그를 공개적으로 질책하였다 (디모테 전서 5:20).

복음 교리

Matthew Henry 는, “바울이 그의 성품과 책무를 세웠고, 사도들 가운데 누구에게 보다 못하지 않으며, 물론 베드로 자신에게도 못하지 않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였던 질책의 이야기에서 그는 복음의 위대한 근본적인 교리에 대하여 말하는 기회로 삼는다 — 의롭게 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만이지 율법의 행위에 따름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혈었던 것

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15-19)

“의롭게 하다(justify)”는 수동태인데, 따라서 실제로 그것은 “의롭게 되다(to be justified)”이다. 그것은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이 곳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한 구절에 세 번 이하로 나타난다(16 절). 칭의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행해지고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고,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성취된 중보의 역사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그분이 죄인들이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역사는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졌다 (로마서 8:29-30). 그렇다.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에 의해 얻어졌다. 그분은 우리 죄들이 그분께 전가됨으로써 신성한 공의의 검에 의해 죽음에 옮겨졌으며, 그분의 희생으로 성취된 우리의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다시 사셨다 (로마서 4:25).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칭의를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선물로 그것을 받는다 (로마서 5:1, 10-11; 8:1, 30, 33; 디도서 3:7).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칭의가 보장된 조건이 아니라, 성취된 칭의의 축복의 열매들인 많은 것 중 하나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이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3:20, 28; 갈라디아서 3:11; 5:4). 그것은 믿음의 결과 조차도 아니다 (에베소서 2:8).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를 위하여 대속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였을 때 일어났다 (로마서 3:24; 고린도후서 5:21; 에베소서 1:7). 사람은 결코 그것을 획득할 수 없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믿음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선물이다 (에베소서 2:8).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대속자로 죽음에 까지 이르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으로), 우리는 율법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허가가 아니다 (17; 로마서 6:1-2, 15; 7:7). 그것은 은혜의 복된 자유이다. 베드로가 그의 혐오스런 상징적인 행위로 그랬듯이, 우리는 감히 율법에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저주와 정죄로 돌아가는 것이다 (18 절).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망을 다룬다. 그것은 결코 거룩함을 산출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죄를 회저을 뿐이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것을 정죄한다 (로마서 7:7-9).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향한 우리의 교사이다.

일단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나 권위를 갖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24).

내게 아주 좋은 친구가 North Carolina 에 있는데, Robert Spencer 라고 한다. 그와 나는 겨우 몇 년 전에 한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그의 아내 (Lib)를 우연히 만난 후,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는 그때 국제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이었으며, 클럽 회합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다. 나는 같은 도시에서 설교 약속에 맞추어서 가고 있었다. 나는 Bob 을 “Mr. Spencer”로 더 많은 해를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6 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었다. 나는 어린 반항아였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Mr. Spencer 는 많은 경우 지위의 (그리고 나의 부모의)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나의 불기를 아프게 내리쳤는데, 그렇게 하고, 나를 철이 들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 나는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였고 그가 화내는 것이 무서웠다. 이제, 그는 내 친구다. 나는 그를 보기를 고대하며 그가 있을 때를 언제나 좋아한다. 오늘 그가 나에게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더이상 그렇게 할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일단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오고 나면, 율법은 더이상 죄인을 지배할 권한이 없다 (로마서 6:14-15; 7:4; 10:4).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19; 로마서 6:7; 7:4;

고린도후서 5:15).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서거 아닌 우리 자신에게 산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사망하
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산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살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정도든, 어떤
이유에서든 율법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안디
옥에서 했던 것처럼 약한 형제들을 달래거나 이기려 해서도 안
된다 (로마서 7:1-4).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신뢰하
여야 한다 (로마서 10:1-4). 그분 만이 우리의 의이다 (고린도
전서 1:30).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을 모두 부인하
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1-4).

당신의 역사, 나의 것이 아니니, 아 그리스도여,
이 마음에 기쁨을 말하소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노라고 내게 말하며;
나의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구나.

예수의 어떠한 심이, 그 하나 만이,
믿음의 기뻐할 핑계라;
그것은 결코 죄로 충만한 자아도
내 안의 의로운 자아도 관계 없네.

7 장

그리스도와 나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바울은 만약 그가 한번 파괴했던 것들을 재건하여야 했다면, 그가 율법의 역사에 의한 구원에 대한 바리새인 가르침에 돌아갔다면, 그는 과거 체험에 근거한 가장 깊은 확신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것임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이것에 더하여 그런 행동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또한 파괴하였을 것임을 첨언했다. 바울은 그가 인간적 공로 가운데 가졌던 그 어떤 자신도 철저히 대치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체험하였다. 이것이 2 장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20 절과 21 절의 연결이다.

바울은 이 문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그의 선포를 소개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여기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가 있으니, 안디옥의 애찬에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믿는 자들인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회중 가운데 있었다. 의심할 필요 없이 모세의 율법을 놓고 그렇게 많은 분쟁을 일으킨 거짓 형제들 가운데 몇이 역시 그곳에 여전히 있었다. 이 집회에 비통한 상황이 있었다. 강력한 파벌이 형성되었고, 차별이 실행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배타적으로 먹고 있었고, 이방인 믿는 자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이 버려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베드로의 위선에 의해 원인이 되었다. 그와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과 이방인들 간 중간의 분리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데 있어서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에베소서 2:11-22).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바울은 선포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

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되지 않았으나,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주장하였다. 이제 그는 그의 교리를 이 경종의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한 가운데 있는 그 총결산과 실질적인 적용으로 가져간다. 바울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영원히 내주하는 중요성을 가진 어떤 경이로운 일이 발생하였다.

바울이 여기서 그 자신에 대하여 선포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한 진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의와 생명과 죽음과 부활이 그들의 것인 그런 연합 가운데 있다. 우리 구원자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인자로 행하셨고 경험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바울은 모두 영적인 것인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그를 위하여 그의 자리와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그의 중보자, 보증자, 대속자 그리고 대표자인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현재의 체험이 아니라, 성취된 일을 묘사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나니.” 그는 십자가에서의 자기 처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고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그가 체험하였던 것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의 백성에 대한 대표자였으며 영원하다. 그가 행했고 고난 받았던 모든 것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 위에 있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누그러지지 않은 진노에 고난 받았으며, 거룩한 율법의 징벌로 죽었을 때, 우리는 대표하는 그분 안에서 고난 받았고 죽었다. 그가 장사되었을 때, 우리는 장사되었다. 그가 살아 났을 때, 우리는 살아났다. 그가 하늘에 그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리하였다 (에베소서 2:5-6).

우리 중보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모든 죄들, 그 몸 전체가 그분 위에 놓여졌다. 저주의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그 죄들을 품으셨으며, 그것들을 품고 가셨다. 그는 그 죄들을 파괴하셨고 끝내셨다. 그는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셨다 (히브리서 9:26). 그는 그 죄들을 닦아내셨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셨으며, 신성한 망각의 심연 속으로 그것들을 던지셨으므로, 그 죄들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 다시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었을 때 성취되었다. 거듭남(성화)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죄의 통치로부터 구원 받았다.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취의 권능과 효험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우리는 은혜로운 체험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이것은 은혜에 속한 우리의 현재 체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확고하고 거절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였으므로,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던 우리는 산다. 모든 믿는 자는 역설적인 자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여전히 산다. 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살아 계시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바울이 이것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는 우리에게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임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17). 그는 더이상 모독자, 박해자,

그리고 해로운 사람 사울이 아니었다. 그는 더이상 바리새인 사울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옛 본성이 가버렸거나, 심지어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7:14-24).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피조 되었고, 그 안에 사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 새 생명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그 자신의 의로 얻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였다 (요한일서 3:1-9). 새롭고 의로운 본성이 은혜로 그의 속에서 피조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심겨졌던 그 새 본성, 그에게 전가된 그 의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였다 (골로새서 1:27; 베드로후서 1:4).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의 창시자이고 수여자이며 지지자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는 우리 안에서 형성 되었다. 그는 우리 안에 거한다. 그는 우리와 연합되었고, 우리는 그와 연합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이다 (에베소서 5:30-32). 하나님께로 난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었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그분의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여기서 바울은 그가 임시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육체적인 존재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이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사람으로써 실행하신 믿음이나 신실하심이 아니라, 그의 영에 효험 있는 부름에 따라 그분의 택정한 자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것은 그가 그 창시자이고 대상인 믿음이다. 이것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믿음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위에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살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위에서가 아니라, 용서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은혜의 모든 공급과 영원한 구원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위에 산다.

우리 구원자,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며, 그분의 아버지와 하나이고 동등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

분명한 사랑

“나를 사랑하사”—얼마나 바울은 그 말을 기록하면서 기뻐하였겠는가! 그는 주 하나님 그의 구원자께서 그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불멸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셨음을 알았다.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확신하게 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대가 없이 사랑하신다 (예레미야 31:3; 호세아 14:4).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의해 좌우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분명한 사랑으로 인격적이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듯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대하여 말하게 하라. 그런 말은 성경에 모순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감과 동기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만약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에서에 대하여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된다면, 야곱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신의 택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이고 특별한 사랑이며, 모든 다른 자와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를 구별하는 사랑이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사랑이다.

개별적 구속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그것을 상상해 보라.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려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과 희생으로서, 그분은 자신을 공의의 손에 내어 주셨고, 자신을 사망에 내어 주셨으며, 내 자리에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다! 나에게 대한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원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 구원자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속량으로 그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그분의 전체 교회와 그분의 비밀스런 몸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그분의 모든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려 죽었다. 그것이 신성한 계시의 축복된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은 거의 그가 마치 그리스도가 사랑했고 구속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신에 관하여 두드러지게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그를 위한 그리스도 사랑, 그를 압도하였던 그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믿음은 막연히 애매모호한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개인적인 실재들과 관련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1:13-14). John Gill 이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 “믿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서 사람의 자아에 대해 특별한 것과 관련 있다. 이것은 믿음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사람에게 행사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움직이

게 하고 격려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사람이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도 있으며, 두 인격은 하나로 짜여 있다. 그리스도와 믿는 자는 하나이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아담과 하나이듯이, 그가 행위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 대표자이듯이,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 대표자인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로마서 5:18-19).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한다. 이것으로 그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이다. “자궁 안에서, 머리와 지체들이 따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잉태된다. 역시 우리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하여 비밀스러운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택정함의 영원한 자궁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 (Thomas Goodwin)..

“주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하나입니까?

아, 사랑의 높고 깊음이여!

갈보리에서 당신은 우리와 하나이니,

우리는 위에서 당신과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은혜였으니, 우리를 위함이라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 오셨으니,

우리가 혈과 육에 참여하니,

우리 모든 비통 가운데, 하나라.

우리 죄들, 우리 유죄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였고 당신으로 거듭났으니;

고통, 저주가 당신의 것이 되었고,

당신의 지체들이 풀려나리라.

이제 영광의 빛 가운데 승천하셨고,

당신은 여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시니;

생명도, 죽음도, 깊음도, 높음도

당신의 성도들과 당신을 나눌 수 없으라.

아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여, 알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소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과 함께 하신 당신이 진실로 하나심을,

또 우리가 당신과 하나임을.

곧, 이제 곧, 그 영광의 날이 오리니,
당신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라,
당신께서 방황하는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니
당신이 우리와 하나이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하였고, 실제로 그분 안에서 죽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하게 되었다 (이사야 53: 4-6, 8, 12; 마태복음 20:28; 갈라디아서 1:4; 3:13).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한 것은 그분이 사망에서 살아나셨을 때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에베소서 2:3, 5, 6; 골로새서 2:12-14; 3:1; 로마서 8:1, 33-39).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28; 11:25-26).

8 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서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21)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분열을 이끌고 유대인 믿는 자들과 심지어 바나바도 이방인 형제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게 하였을 때, 왜 바울이 그토록 고집스럽고 담대하게 베드로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갈라디아서 2:21 안에서 발견된다.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로 이들 믿는 자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쓴다. “폐하다 (frustrate)”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던져 버리다. 부인하다, 경멸하다, 거절하다, 그리고 헛되게 하다.”이다. 구원이 사람들의 행하는 것의 결과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 버리고, 부인하고, 경멸하고, 거절하고,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여기서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 그분 자신의 희생 안에서 계시된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함이다.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혹은 어떤 정도이든,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체 복음에 대한 부정이다 (갈라디아서 5:1-4). 그런 교리는 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라기 보다 율법에 의해 온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폐하는 것이다. 의(공의로운 의 혹은 만족의 의)를 사람의 행위에 좌우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부인하고, 경멸하며, 거절하고, 무효로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나누어 놓았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의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께 모독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와 같은 교리는 무시무시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살육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 수 없었다. 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같은 가련한 죄인에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논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 (로마서 3:24-28). 오직 이런 방법 가운데 하

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의와 의롭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있다. 그분은 어떤 다른 방법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원자 (이사야 45:20)가 되실 수 없었다. 무한하게 지혜롭고,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직하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범죄적 교리

행위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그것은 범죄적 교리로 만든다. 바울이 그것을 위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기로 결정된 이유였다. 그는 담대하게 인간적 공로에 의한 구원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는 어떤 것도 반대하였다. 따라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유대교인들과 나란히 있었고, 이방인 믿는 자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그에게 대항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로 인한 구원의 선포이고, 죄인의 대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죽음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성취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바울은 율법을 준수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낳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에도 격렬히 반대하였다. 그는 독단적이고, 분명하며, 지속적으로 사람은 어떤 정도에서든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을 주장하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9). 은혜가 의미하는 것은 은혜, 은혜뿐이다. 은혜와 어떤 행위를 섞는 것도 은혜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다 (로마서 11:6).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외한 어떤 것이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하여 대치된 어떤 것, 사람에게 의해 행해진 것에 의해서 얻어 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악도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의 교리처럼 사람들의 혼에 몹시 나쁘고, 신성 모독적이며, 파괴적인 것은 없다. Martin Luther 는, “이것은 표현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끔찍한 신성 모독이다.”고 선포하였다. 아르미니아 주의, 자유 의지, 행위의 종교 같이 하나님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도적질 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더 공통적으로 사악한 것은 없다.

불가피한 결과들

바울은 행위에 의한 구원의 교리에 분명하고 피할 수 없는 결

과들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특정적으로 두 가지를 이른다. (1.) 만약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진다. 그리고 (2.) 만약 의가 율법으로 온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대가 없는 호의를 거절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폐하며, 그것을 뒤로 던지고, 그들의 발 아래 그것을 밟아 버린다. 만약 의가 율법으로 온다면, 그러면 은혜에 대한 필요는 없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 없다.

바울은 할례의 법적 의식 행위에 대하여 특정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의식은 율법 순종의 표현으로서만 사용된다. 이것은 3장의 10 절에서 그가 말한 것을 읽을 때 분명해진다. —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으로 믿는 자의 자유함에 관한 바울의 주장은 단지 의식법에만 적용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의 시도에만 적용된다고 우리가 믿게 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의롭게 하는 의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만족하게 하는 의는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은 3 장에서 의롭게 하는 의에서 만족하게 하는 의로 옮겨간다. —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찢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1-3).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자가 저주 받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상황 안에서 이다 (3:10).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위에 하나님에 의해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으로 되었다 (고린도전서 1:30).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의가 없다. 그분은 우리의 칭의이고 우리의 성화다 (히브리서 10:10-14). 그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전부이다 (에베소서 1:6).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의의 기초로 만들려는 것은, 칭의를 위해서든 성화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율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거나 더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이 비록 거룩하나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사악한 시도들로 만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

리의 연약함과 죄를 수용하려는 율법의 요구를 왜곡한다.

만약 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의가 사람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나 의식으로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다. 참회의 실행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행하였든지 간에, 죄인이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의는 침례의 물이나,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바울이 율법의 의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어떤 종류든 간의 행위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행위 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 버리고 폐하는 것이다. 은혜와 행위를 섞는 어떤 것도 은혜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로마서 11:6). 당신은 그리스도와 당신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행위와 은혜를 섞으려 하는 자들은, “나는 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거의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정확히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 이다. 그들의 확신의 근거에 대하여 물어보라.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행위를 꺼내 들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의 위로의 근거에 대하여 물어보라.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행위를 꺼내 들 것이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에 대하여 물어보라.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행위를 꺼내 들 것이다. 왜? 그들은 그들이 의롭다고 자신을 신뢰한다 (누가복음 18:9). —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로마서 10:3-4).

헛된 죽음

행위 종교의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었으며, 그의 피가 쓸모 없다고 끔찍하고 모독적인 주장이다. 이 모독이 행위 장사꾼에 의해 주장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은 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충분하지도 않고 효험이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어떤 미사여구를 만들어 내더라도 그대로 두라.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 백성의 죄를 없애지 않았다는 교리는 (히브리서 9:26), 그분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실제로 얻지 않았고 (히 9:12), 그 백성을 실제로 구속하고 의롭게 하지 않았고, 실제로 영원한 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죄를 끝내지 않았으나, 오직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밟아 아래 짓밟으며, 하나님의 영을 경멸한다 (히브리서 10:29).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신성하지 않은” (보통의) 것으로 만듦으로 그렇게

행한다.

그런 모독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험을 전적으로 죄인의 의지에 좌우되게 만든다. 그것이 성령이 우상숭배의 기반 형태라고 부른 것—“의지 경배”이다 (골로새서 2:23).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의 경배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외치지 않았는가? “다 이루었도다!” 그분의 피로 언약을 인치시지 않았는가? 아버지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지 않으셨겠는가?

행위에 의한 칭의의 교리는 성삼위의 모든 세 위격에 대한 죄이고 모독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헛되게 희생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한다. 그것은 아들 하나님을 모독한다. 아들이 그 사명에 실패하였고 (이사야 42:4), 그는 결코 만족함으로 그의 혼의 고통을 보지 않을 것이며 (이사야 53:11), 그가 갈보리에서 죽을 때 아무것도 실제로 성취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9:30)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에 대한 모독이고 여호와의 의로운 종인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그리스도가 의의 역사를 성취하였고, 그분의 죽음으로 심판을 끝냈음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확신시킬 때, 그가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증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8-11).

숨겨진 이단

행위에 의한 구원의 교리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으며 하늘에서 성도의 찬양을 침묵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거짓 종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고무되는 매우 일반적인 교리이다. 그것은 숨겨진 이단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이 자랑할 여지를 만든다.

Augustus Toplady 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천거하기 위하여 당신이 어떤 것을 하도록 한다…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의를 고치는 것은 모든 거짓 종교의 일이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복음의 책무는 우리에게 다가오며, 성령의 손에 의해, 역사하도록 준비된 의와 예비된 완전함의 옷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의와 기쁨의 모든 계획으로 보좌 앞에서 완전하고 흠 없이 서도록 하는 것이다.”고 기록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효험 있으며, 거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 그리스도의 효험 있고 용납되며 죄속량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가 없이 흘러오는 은혜이다.

은혜, 그것은 매력적인 음성,
나의 귀에 조화로운 소리네.
하늘에서 메아리로 다시 울려 퍼지리니,
또 땅의 모든 귀가 들을 것이라.

은혜가 먼저 길을 준비하니
반역적인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또 은혜를 보일 모든 단계
경이로운 계획을 끌어 내었어라.

은혜가 먼저 나의 이름을 새겼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책 안에라;
내게 어린 양을 준 것은 은혜였으니
나의 모든 슬픔을 가져간 분이라.

은혜가 내 방황하는 발을 인도하니
하늘의 길을 걷게 하려 함이라;
또 매 때마다 내가 새 공급을 받으니,
하나님께 전진하는 동안이라.

은혜의 모든 역사가 관 쓰리니,
영원한 날들을 통해서라;
하늘에 상석을 놓으며,
또 찬양 받기에 합당하도다.

“구원”을 부른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이다!” 그가 일단 그분 자신의 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을 때,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었고 지옥의 문을 닫았다. 그는 우리의 모든 지혜이고, 우리의 모든 의이며, 우리의 모든 성화이고, 우리의 모든 구속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폐하여 지지 않고, 헛되게 되지 않으며, 무효화되지 않는다 (욥기 23:13; 시편 33:11; 잠언 19:21; 이사야 46:10; 히브리서 6:17).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지 않으셨다 (이사야 53:11). 갈보리에서 그가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모든 자는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리할 것이다.

9 장

“누가 너희를 찢더냐?”

갈라디아서 3:1-18

바울은 그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영접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너무도 쉽사리 복음에 등을 돌리고 그를 그들의 대적으로 여겼던 것에 깜짝 놀라게 된다 (4:13-16). 그는 1 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썼다 (1:6). 여기서 그는 또 완전히 놀라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찢더냐?”고 기록한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갈보리를 시내 산으로, 그리스도를 모세로, 아들의 위치를 노예로, 자유함을 노예 상태로, 믿음을 행위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악한 것에 미혹되었으며, 그들을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의를 구하여야 하고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으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불길해졌다. 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감각한가! 하지만, 오늘날 이런 끔찍한 본보기를 직면한 채, 모세와 율법적 원칙과 종교적 의식과 사람의 계명과 자기 의와 같은 그들의 누더기 거적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면서, 갈라디아인들을 뒤따라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 (로마서 8:31-10:4).

믿음에 의한 칭의

바울은 그가 전파했던 복음—사람의 어떤 노력은 제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은 칭의—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는 이제 3 장과 3 정에서 성경의 일반적인 간증과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의 체험 모두가 복음의 교리를 실증함을 보여주기를 계속한다.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성취하셨던 칭의를 (로마서 4:25) 그들이 행했거나 체험한 어떤 것도 제외하고, 믿음으로만 받는다.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기여와 완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취된 역사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충만함과 효험 있는 대속자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역사에 대한 이와 같은 영접이다. 죄인들은 믿음에 의해 법적으로 용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지식이 가져오는 용서와 평강의 지식을 영접한다 (로마서 3:24; 히브리서 9:11-12; 에

베소서 1:7; 로마서 4:25-5:5, 10).

미혹하게 하는 교리

1 절 —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바울은 그가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한다 (2:11-17). 그는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직접 맞닥뜨렸다. 그는, 그가 한 것처럼,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을 화나게 하려는 엄한 영으로 서신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우리 주의 훈계에 어긋나지 않았다 (마태복음 5:22). 오히려, 그는 구원자 같은 한 사람으로 (누가복음 24:25), 사람들의 혼을 염려하여 목자 마음의 부드러움으로 (디모데후서 3:15) 기록하였다.

갈라디아인들은 미혹 당하였다. 그들은 복음의 단순함에 등을 돌렸다. “미혹된”이라는 말은 기만적인 매력, 유혹을 함축한다. 그들은 육체를 추켜세우는 가르침을 복음으로부터 멀리 끌려갔다. 행위 종교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마력이 있다. 그것은 육체에 대한 속임수의 감언이다. 기만적인 매춘부가 어리석은 자를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그 침대로 유혹하는 것처럼, 바빌론

의 종교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영원히 파멸시킨다 (잠언 7:1-27). 사탄의 사역은 죄인들이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며, 심지어 율법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의의 사역자들로 변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옥의 마귀는 어리석은 자들의 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믿음의 단일함)을 혼돈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1:3, 13-15).

갈라디아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 그들은 은혜와 행위, 그리스도의 의와 그들 자신의 의,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의 행위들을 혼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들 자신의 행위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기만 당하였다. 이 서신에 있는 (그의 모든 서신에 있는) 바울의 목적은 보완된 그리스도가 대체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 사람들은 총체적인 배교의 엄청난 위험 속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혼을 매우 염려하였다 (4:11, 20).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이 받아들였던 교리는 끔찍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회복할 것에 대하여 희망적이다. 그는 그들을 형제라 칭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한 사람들로 말하며, 그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근거 위에 그들에게 설명한다.

바울은 직접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접받은 대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 구절로, 바울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2).

많은 자들은 이런 저런 것들을 했지만 아무도 딱 집어 무엇인지 혹은 왜 그랬는지를 모를 막연하고 분명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그는 그의 청중의 눈 앞에 그리스도의 그림을 분명하게 그렸다 (고린도후서 1:2; 4:4-6; 로마서 10:4; 고린도전서 1:23-24; 갈라디아서 6:14).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혼에 좋은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생명 안에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그 공의에 대한 무한하게 가치가 있고 효험 있는 만족 가운데 그분이 가져왔던 의를 제외하고, 죄인들을 위한 의는 없다.

생명의 시작

2-5 절 —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행위에 의한 칭의에 대한 비난에서 행위에 의한 성화에 대한 비난으로 옮겨 간다. 칭의는 전가된 의다. 그것은 우리 체험 밖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성화는 거듭남 안에서 부여된 의다. 양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 우리가 아무 것도 기여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영은 거듭남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주권적으로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3:8). 그분은 “믿음의 들음”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 안으로 오셔서 역사하신다 (베드로전서 1:23-25). 그 영의 은사는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전파를 통하여 오신다 (로마서 10:16-17; 사도행전 11:14; 2:38; 5:31-32; 에베소서 1:12-13; 요한복음 7:38-39).

성화는 율법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역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따라온다 (고린도전서 1:30). 나는 이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임을 다만 충분히 확신하고 있다. 은혜로 만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여전히 성화를 우리 행위의 결

과인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나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그럴 수 없다.

“신성시 하다 (sanctify),” “신성하게 되다 (sanctified),” “신성하게 하다 (sanctifieth),”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 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서른 번 이상 사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됨을 듣는다. 그러나 결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성화는 하나님만의 역사다. 우리는 육체의 행위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은 믿음의 생명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2:6).

아브라함의 칭의

6-9 절 —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찌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전가된 의를 가진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15:6 에서 발견된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할례는 아직 명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창세기 15:6; 로마서 4:2, 9-10, 13, 20-25).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그리고 행위가 없이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모두 그들이고, 오직 그들, 하나님께 그들 모두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8:39; 빌립보서 3:3).

저주받음

10 절 —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칭의는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오지 않는데, 율법 아래 사는 (사는 척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아무

도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의를 수행할 수 없다. 아무도 율법에 진 빚을 충족시킬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신실한 순종은 충분하지 않다. 순종은 완벽해야 한다. 율법은 저주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로마서 3:19). 율법은 결코 공의로울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의롭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10 이 신명기 27:26 의 인용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이런 이유로 중요하다—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자의 생활법으로 만들려 노력하는 자들은 신약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을 가르칠 때 (로마서 6:14-15; 7:4; 10:4), 그것은 단지 의식법과 레위법에서 자유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 인용된 단락은 율법의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명기 27:14-26 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갈라디아서 3:10 은 십계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하는 자들은 여전히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특정해서 천명한다.

분명한 사실

11-12 절 —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칭의는 믿음으로만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생명이 율법 위에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생명은 최상급 원칙을 갖고 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고린도후서 5:14; 갈라디아서 5:6; 히브리서 8:10 요한일서 3:23). 믿음의 생명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신다 (요한일서 3:9). 믿음의 생명은 최상의 약속이다. 모세는 율법 안에서 오직 도덕적 순종에 대한 일시적인 축복을 약속하였다.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순종에 대하여 영생을 약속한다 (12 절; 요한복음 17:2).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아벨, 노아, 욥, 아브라함), 많은 사람이 율법 시대 동안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율법은 죄를 구별하고, 드러내며, 정죄하기 위하여 주어졌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다른 아무런 기능은 없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4; 로마서 1:17; 히브리서 10:38).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며, 완전한 순종, 외적 순종, 내적 순종, 지속적 순종, 완벽한 순종, 생각 가운데, 동기 가운데, 그리고 태도 가운데 순

종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구속하였음

13-14 절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따라서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그 마침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0:4). 그분은 율법의 종결이다. 그분은 율법이 주어졌던 목적이며, 율법이 지목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히브리서 10:1-14).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참으셨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53:5-6).

“그리스도께서(Christ)” — 지명되고, 기름부음 받고, 수락된 구속자이자 구원자, 하나님의 귀한 아들 — “하셨으니(hath)” — 한번에 그리고 모두를, 최종적으로, 죄를 위하여 그의 한번의 큰 희생으로 — “속량(redeemed)” — 공의롭고 율법에 따른

대가로 효험 있게 속량 되고 구원되었다 — “우리들(us)” —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죄인 — “율법의 저주에서 (from the curse of the law)” — 율법에 의한 심판과 정죄와 형벌과 사망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 “우리들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being made a curse for us)” —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대상, 율법의 공의로운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되심으로! —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that hangeth on a tree.)” (신명기 21:22-23). (*역주: 원문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영문법 순으로 번역함).

그리스도는 이런 계획—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동일한 축복—과, 칭의와 전가된 의와 영생을 위하여 우리 대속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위에 임하시려 (로마서 4:7-10)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아브라함은 행위나, 할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4:20-25).

바울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할 때, 그는 믿음으로 거듭남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는 성령의 은사이고 운행이다 (갈라디아서 5:22; 에베소서 1:19; 2:8-9; 골로새서 2:12). 우리가 받는 그 영의

약속은 할례 가운데 상징화되었던 믿음의 은사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인침 되고 확증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으로 인함이다 (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4-7; 요한일서 3:1-3).

약속들

15-18 절 —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칭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믿음에 따라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칭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을 수 없는데, 이 모든 약속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 년 전에 약속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언약 혹은 성약은 일단 그것이 확인되면 뒤집거나 무효화 될 수 없다. 분명히, 사람의 언약이 무효화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승인된 이 약속들, 칭의와 영생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한 자, 그의 교회, 그의 몸, 아브라함의 영적 씨의 연합된 머리와 대표이신 그리스도께 된 것이다. 그것들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 만들어 졌다 (에베소서 1:3-6; 디모데후서 1:9; 디도서 1: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은혜로운 축복들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후 430 년 뒤에 주어진 (창세기 12:1-3) 레위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무효화 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무효하게 할 수 없다.

바울이 18 절에서 말한 것은 그가 로마서 4:16 과 11:6 에서 말한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이다. —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칭의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 얻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 믿음과 행

위는 함께 설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행위를 가져오면, 믿음을 밀어내고, 은혜를 밀어내며, 그리스도를 완전히 밀어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기업을 주셨다.

얼마나 오래 율법 아래 놓여 있었는가,
노예 상태와 억압 속에서!
순종하려는 계율을 애써 지켰으나,
허나 성공 못한 채 애만 썼노라.

그리고 모든 나의 노예와 같은 행동을 했으니,
의를 세우려 함이라;
이제, 아들 안에 대가 없이 택함 받았으니,
내가 그의 길을 거저 선택하였네.

율법을 바라보니, 그리스도로 충만 되었고,
또 그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노예를 자녀로 바꿀 것이며,
또 의무를 선택으로 바꾸리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0-31).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그분의 존귀를 구하자 (고린도전서 10:31).

10 장

예방약

갈라디아서 3: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찢더냐?” (갈라디아서 3:1)

갈라디아인들은 큰 열심으로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았다. 갈라디아인들은 분명히 매우 인정이 많았지만,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그가 크게 비통해할 정도로 그가 그들에게서 떠나 멀리 있을 때, 어떤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로 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으로부터 피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해야 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도록 누가 너희를 찢더냐?” 나는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도 그런 마법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두 우리를 축복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마귀의 위험한 교리에 지배당한다 (고린도후서 11:3). 오늘날 공중에는 매력적인 교리들이 있다.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합당하게 전해져야 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발견된다.

분명하게 제시됨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회심에 대하여 일깨운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자들로 우리에게 말한다. 여기서 “밝히 보이는”으로 번역된 말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된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시된 벽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문이 없었기에, 공개적 안내는 이런 방법으로 고대에 이루어졌다. 그것들은 대중이 뒤섞여서 모두가 그것들을 읽을 수 있는 지역에 게시되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상상에서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거리를 통하여 로마 병사의 행진을 따라갔다. 그들은 구원자께서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혔던 것 같은 망치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몸부림과 고통으로 인한 그의 눈물을 보았고 외침을 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과 상처 난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기에 그의 고통을 느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받았다. 그들이 이교도와 우상숭배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 피조물들이 되었다. 옛 생명, 옛 세상, 예전의 방법, 예전의 즐거움들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믿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거듭났다. 그들은 그들의 옛날 신들을 버렸으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를 받아들였다.

바울의 의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의도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보고 있다. 그의 설교들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는 성경에 따라 우리 죄들 때문에 죽었으며, 장사 되었고, 셋째 날 다시 사셨다.”는 이것이었다. 바울이 전할 때, 그는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전서 9:16).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이 사람의 전갈이었다 (사도행전 9:20; 고린도전서 2:2). 그것은 믿음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정수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했다. 요한이 아버지와 영생의 계시에 대하여 기록하였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다. 야고보가 위대한 입법자와 재판자에 대하여 말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바울이 히브리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에 관하여 썼을 때, 그는 우리 구원자에 관하여 썼다. 그리스도인 믿음은 그리스도이다. 그

것을 제외하고, 그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고 갈라디아인 위에 그 권능과 효험이 그들의 혼의 구원에 효험이 있었다. 복음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빛을 두었다. 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쳤으며,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형성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자유와 생명을 가졌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변화에 기뻐하였으며 그들 대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운행 하심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있다.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의 멍에 안에 다시 걸려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부터 떨어지고 그 외의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경고의 말이 필요하게 되는 위험이다. 바울이 그토록 엄하게 정죄하는 이런 사악함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당한 교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므로 우리는 이단의 꾀임에서 보존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하게 지켜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의 모든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정되도록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오류로부터 지켜지게 될 것이다.

위험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더 이상 사도 시대에도 이단의 미묘한 위험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자유롭지 않았다.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곳에 받아들여지자마자, 사탄은 복음에 대한 극악무도한 왜곡으로 넘어간 자들을 “피면서” 복음의 전갈을 오염시킴으로 그 영향력을 떨하러 시도하는 거짓 사도를 보낸다. 이것들은 복음을 부인하든 안 하든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더 위험하고 미묘한 부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부인일 뿐이다. 유대주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은혜와 행위를 혼합하려 하며 전복하였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회심을 지식과 배움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 영지주의(Gnosticism)가 콜로새 교회에서 초기에 일어났다. 영성으로 가는 길은 천연적인 것들을 피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쾌락의 육체를 빼앗는 금욕주의(Asceticism)가 고린도 믿는 자들 가운데로 빠르게 기어들어 왔다. 미래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는 영혼 멸절주의(Annihilationism)도 고린도 교회를 괴롭혔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격과 아들의 자격에 대한 부인으로 사람들의 혼을 파괴하는 아리우스 주의(Arianism)가 사도시대 이후 아주 신속하게 스며들었다. 어거스틴(Augustine)은 그의 시대에 사람의 도덕적 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던 펠라기우스 주의(Pelagianism)의 영향에 저항해야 했다. 로마 가톨릭 지배의 길고도 어두운 그 기

간 동안, 교황에 대한 미신들이 거의 우주적으로 만연하였다. 종교 개혁 이후 곧,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영국의 John Gill 과 John Brine 시대와 미국의 Jonathan Edwards 시대 동안, 대단히 많은 수의 침례교와 조합교회 회중 속으로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와 소치니주의(Socinianism)가 스며들어 왔다.

우리 시대에 사탄은 계속하여 많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왜곡한다. 러셀라이트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와 몰몬(Mormons)이 기독교 단체로서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졌지만, 그들의 교리의 핵심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많은 종교적 집단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과로 알려진 집단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받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된다고(거듭나고) 가르친다. 아무도 우리가 그들이 “성례”라 부르는 것이나 선행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은혜만으로도 아니며 그리스도만으로도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선포한다.

그러나 보다 미묘하고, 따라서 더욱 위험한 이단들이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여겨지는 것 주변에 넘쳐 난다. 그런 일들이 Augustus Toplady 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오늘날도 차이가 없다...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천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한다… 그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의를 붙이도록 하는 모든 종교의 일이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복음의 책무는 성령의 손으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한 의와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이미 만들어진 온전케 함의 관복에 가까이 가게하고, 칭의와 기쁨의 모든 계획에 가까이 가게 함으로, 보좌 앞에서 온전하고 흠 없이 서도록 하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자유 의지와 행위의 종교는 그 시대의 종교다. 사람이 만든 제단, 의지 경배 가운데 그들의 치부를 노출하는 의와 거룩의 상승 단계 (계단)을 가진 제단이 없는 교회는 거의 드물다 (출애굽기 20:22-26; 골로새서 2:23).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죄인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기여함 없이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역사를 근거로 그분의 전능한 대가 없는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는 보수적인 교회들(다른 교회들은 커녕,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로 여겨지는 교회들)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께 영접됨이 자신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라는 생각에 속는다. 그들은 실제로 구원이 제단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에 대하여 결단하며, 기도의 말을 반복하고, 단순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믿는다.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운행이며 (에베소서 1:19; 2:8-9; 골로새서 2:12), 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고린도후서 4:4-6; 갈라디아서 1:15-16) 복음의 전파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1:23, 25) 역사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사람, 선한 선지자, 따를만한 좋은 본으로서 그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보이려 한다. 그와 같은 겉치레의 존경심은 그것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독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의 생애와 죽음은 모하메드의 삶과 죽음처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나사렛 예수가 단지 사람이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이 확실한 미치광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실제로 사람 이외의 아무도 아니었다면, 오직 미치광이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영원하고, 자존 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신격을 필사적으로 변론하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아마도, 당신은, “어떻게 그게 사실인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

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낙오자로서 그분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멸망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헛되이 죽었으며, 그가 구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며, 결코 성취된 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에 그분은 뜻을 둔다고 천명한다.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갈라디아서 3:1 과 갈라디아인들이 피임을 당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가?” 사실은 율법주의의 모든 형태들의 바로 그 본질이 사람의 행위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기여—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어떤 것을 더해야 한다는 것 —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 —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게 서도록 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죄인 쪽에서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 — 를 해야 한다는 미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바울이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투명하게 분명하다. 은혜와 행위의 어떤 혼합도 은혜에 대한 전적인 부인이다 (로마서 11:6). 주 예수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분별된 것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10-14).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의이다 (예레미야 23:6; 로마서 10:4).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골로새서 2:10).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의이고 성화이며, 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

이고 구속이다 (고린도전서 1:30).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3:11).

방부제

나는 이들 이단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그 혼을 난파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통제하에 있으며, 그것으로 그 일들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일어났음을 충분히 인식한다 (고린도전서 11:19). 하지만, 그것들은 피해야 하는 위험이며, 확실한 우려를 갖고 피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이단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견실하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확정된 합당한 대상을 가져야 한다 —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우리 혼을 위한 뛰어난 방부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은혜와 믿음 가운데 보존하며 그분의 택정한 자를 사람들이 파멸되는 이단에서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이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전파이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를 제시하였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쓸모 없는 종교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없는 전도의 흥내는 쓸모 없는 흥내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그리스도만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한다. 그분은 기초이다. 그분은 초석이다. 그분

은 상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확신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평강이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현저히 분명하게 제시할 때,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그의 청중이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려고 고통을 택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이었다 (사도행전 9:16, 20; 고린도전서 2:2).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 의지와 행위 종교의 꾀는 교리로부터 보존하는 교리이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어떤 교리도 거짓 교리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분리된 어떤 규례나 종교적 의식은 무의미한 의식주의다. 종교적 헌신의 어떤 행위나 행동,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감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기인한 희생도 자기 의 안에 있는 실행들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의 본질이다.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하여 그분이 영접될 수 있도록 하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 우리 재판장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이며, 그 피로 우리가 구속 받고, 그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한 분이다. 그분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어떤 교리도 피하라. 이 한 가지 표준으로 모든 사역과 모든 교리와 모든 종교적 생각을 심판하라 —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며 구원자 그리스도를 높이고 확대하는가?

단순성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잡한 불가사의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고, 단순하며 분명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 안에 계시가 제시된다. — “한 몸” — “한 영” — “한 소망” — “한 주” — “한 믿음” — “한 침례” — “한 분 하나님” — “한 분 중재자” — “한 가지 필요한 것” — “길” — “진리” — “생명.”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 바로 단순성이다. 그들에게 그것이 걸림이다 (갈라디아서 5:11).

우리는 어떤 것이 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는 지혜의 표시와 경이와 출현을 원한다. 우리는 도전, 해야 할 어떤 것, 발견할 것, 해독할 것, 은혜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갖도록 허용될 어떤 것을 원한다. 이것이 바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파멸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을 파멸케 하는 것이다. 사람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 아래 살려고 하는 사람의 여전히 본성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의를 산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거짓 종교의 등록상표다 (로마서 9:33-10:4).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 지속적이고 극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모든 믿는 죄인에게 주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로마서 1:15-17).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이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혼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모든 기회를 잡아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자.

11 장

성령과 듣고 믿음

갈라디아서 3: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인의 큰 오류가 있는 마음을 때리고, 성령의 은사,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가 그로 인하여 인침이고 확증이 된 은혜에 속한 언약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모든 축복들이 (갈라디아서 3:13-14; 에베소서 1:13-14)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들이 오직 듣고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 John Gill은 이렇게 강조한다. “이 질문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가정한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거듭남과 성화의 영으로, 믿음과 양자의 영으로, 그리고 그들의 미래 영광에 대한 정직과 인침과 맹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참 믿는 자

바울은 갈라디아 인들을 형제들, 순수한 믿는 자들이라고 지칭한다. 그의 소망은 그들의 배교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혼이 난파하지 않았기를 소망하였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교리와 관련하여 많은 오류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갈라디아 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오류 속에 개입되었다(2:11-16). 그들은 총체적인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5:1-4). 실로, 어떤 사람은 그들이 한때 믿기로 고백하였던 그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의 말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으로 참되게 난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신뢰하였고, 성령을 품은 자들이었으며, 어떤 정도로는 율법주의의 끔찍한 이단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 전파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심판자로 만들고, 복음에 관련한 교리적 오류 속으로 떨어지는 모든 사람을 속히 정죄하고 비난하는 끔찍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강조한다.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교회 가

운데 (참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슬픈 분열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관대한 편에 남고, 가혹한 편에 있지 않도록 하자.

바울은 여전히 엄격한 재 검증의 말을 사용한다. 그의 목적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변이 진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만약 구원의 최초 체험 (거듭남과 회심)은 모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믿음 만으로 받은 은혜만의 역사이며 구원 전체는 동일하여야 한다. 은혜를 처음 체험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분인 성령 (사도행전 10:44; 11:16)은 그들에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증거였다. 만약 우리가 행위가 없이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행위가 없이 성화와 인내와 영화를 받는다.

“그들은 회심하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갖고 있었고,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이것이 있었든지 아니든 간에, 복음의 정규적인 효과로서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는가?” (Albert Barnes).

성령의 선물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나, 다른 어떤 법에 순종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듯, 어떤 믿는 자에게도 절대적인 명확성의 문제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형언 할 수 없는 풍성한 은사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다.

듣고 믿음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고 질문할 때, 그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만하고 얻었거나, 하나님의 영이 율법을 전함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상상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율법이 죄에 대하여 알도록 하지만,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율법은 죽이는 문자이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아니라, 진노와 정죄와 사망을 알게 한다.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오며, 그것은 복음을 들음에 의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의와 칭의, 구속과 용서의 선포다 (로마서 4:25; 갈라디아서 3:13; 히브리서 9:12). John Gill 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영접되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그것을 듣고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도록 그들 위에 내려온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음성에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내게 와서 편히 쉬라; 내려 놓아라, 지친 자여, 아내 가슴 위에 너의 머리를 내려 놓으라.’

내가 지치고, 낡아지고, 슬프니 주께로 왔습니다.
안식할 곳을 그분 안에서 찾았으니, 그가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예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보라, 내가 대가 없이 주니

생명수라 - 목마른 자여, 허리를 숙이고, 마시면, 살리라.’

내가 주께 나왔으며, 생명수의 강을 마셨노라;
나의 갈증이 없어졌고, 내 혼이 살아났으니, 이제 내가 그분 안에서 사내.

예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나는 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라;

나를 바라보라, 너의 여명이 오를 것이며, 모든 너의 낮이 밝으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그 안에서 나의 별, 나의 해를 보았노라;
그리고 생명의 그 빛 가운데 순례의 날이 마칠 때까지 걸어 갈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음 과 믿음으로 그 음성에 응답하였음을 가르친다 (로마서 10:17).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믿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박국 24; 로마서 1:17; 갈라디아서 3:11; 히브리서 10:38). 믿는 자의 생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생명이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 구원받지 않았고, 율법에 의하여 성화되지 않았으며, 율법에 의해 지켜지지도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뿐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은, 곧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모든 은사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혼 안으로 영접된다. 구원자의 역사들이 알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영에 의해서이다. 성령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침, 그분의 약속의 인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강의 선물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며, 양자됨을 깨달아 아는 것에 이르게 된다 (갈라디아서 4:6-7; 디모데후서 1:9-10). 성령은 우리 혼 안에서 빛과 생명과 믿음과 사랑과 자유의 원천이다. 성령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믿고 들음

으로 하나님의 영이 죄인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믿음 안에서 그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어졌다 (사도행전 1:4-5, 8; 2:1-4). 동일한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 (사도행전 8:12-17). 따라서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듣고 믿음을 통하여 왔다 (사도행전 10:44-45).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듣는 자들 위에 주권적으로 임하였다 (사도행전 15:7-12).

성령과 구원

바울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은혜의 두 번째 역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원에 있는 은혜의 초기 체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1:13 은 King James Version 에서 번역된 것처럼, 죄인들이 구원받은 후, 그들이 정말로 선택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영적 생명의 가장 높은 형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끔찍할 정도로 곡해되어 왔다. King James Version 에 있는 그 본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In whom ye also trusted, after that ye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in whom also, after that ye believed, ye were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라고 말씀한다. 그

번역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의 인침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에베소서 1:13 은 보다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In whom you also trusted, having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in whom also, having believed, you were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다시 말해서,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그 자신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 성령이 그에게 인치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공훈과 사랑과 은혜에 속한 모든 축복들에 대한 인식의 확증이 주어진다 것이다 (에베소서 1:3-7). 그리고 그는 은혜 안에서 인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고 불멸의 보증 가운데 인침 받았다 (요한복음 10:27-30).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이 해석과 관련한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죄인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성령의 보편적인 증거이

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 믿음, 소망, 사랑의 모든 은혜들은 그 영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22-24).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분의 은혜의 전능한 운행으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 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분은 성령이다 (갈라디아서 1:15; 에베소서 2:8; 빌립보서 2:13; 골로새서 1:12).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취하시고 그분께 그것들을 계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요한복음 16:8-14).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2:13). 우리는 성령에 의해 빛 비춤을 받았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죄에 대해 확신케 하신다. 성령은 의에 대해서, 우리 대속자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가져온 의에 대해서 확신시켰다. 성령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심판, 만족하게 된 공의, 영원히 제거된 정죄에 대하여 우리를 확신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였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로마서 3:24-26; 고린도후서 4:3-6).

이 은혜에 속한 큰 은사는 모두 우리 행위가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받았다 (에베소서 2:8-9). 우리 행위는 결

코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평강을 받았다 (로마서 5:1-5). 우리 행위는 결코 그것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면서, 새로 태어남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베드로후서 1:4). 우리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이상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 행위는 결코 우리가 그분께 접근할 수 있게 못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돕는다 (에베소서 1:13). 율법은 결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그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안식으로 옮기시며, 모세와 여호수아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성령의 운행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4:9-10). 성령은 혼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다 (요한복음 7:36-39). 율법의 행위는 터진 저수지다.

연결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듣고 믿음과 성령을 받음 사이와 듣고 믿음과 구원의 체험 사이의 연결인가. 그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역사하실 바로 그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구원과 믿음이 그들에게 오게 될 방법들도 또한 정하셨으며, 그 방법은 복음의 전파다. 이것이 정확히 그분의 책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그것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추측하게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분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신다 (베드로전서 1:23-25).

사랑의 시간이 왔을 때 (에스겔 16:8), 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내실 때, 그분은 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세우시며 어떻게 하든 그들의 길을 건너도록 하신다. 그분은 전해지는 복음을 선택 받은 죄인이 듣도록 하시지만, 죄인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 죄인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없다. 복음은 그 죄인에게 어리석음이다 (고린도전서 2:14).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복음 안에서 체시되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과 함께 오시고, 마음을 밝히시며, 이해력을 주시고, 달콤하고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게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과 영접하는 의지와 품도록 하신다 (요한복음 1:12-13; 6:63; 고린도전서 2:9-13; 히브리서 4:12).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였으

로, 구원받은 죄인은 다윗과 함께 노래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12 장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서 3: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3)

갈라디아 사람들은 완전한 우둔함 가운데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 충만한 증거 하에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령의 주권적인 영향 아래 복음의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꼬임 당하였다.

사탄의 종들이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옛 뱀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복음의 단순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 어떤 것을 더해진 것이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 만약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려 한다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체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에 더해져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쳤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서, “당신은 은혜와 행위로 구원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탄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교활하다. 이 유대교인들이 선포했던 것은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역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너희가 그토록 어리석으나? 영 안에서 시작했으며, 그리스도의 역사로 의롭게 되었고, 그 영에 따라 그것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제 스스로 온전하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한다.

육체와 영

우리 구원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 복음 6:33)고 선포하신다. 그 영은 생명이다. 육체는 사망이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고, 생명의 내주하심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다. 우리는 그 영의 은사와 운행하심으로 믿음을 갖는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확신과 아들 명분의 확신을 주는 분은 성령이다. 우리 생각을 비추고, 우리 마음을 확신케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소유임을 은혜 가운데 인침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증거를 품게 하는 분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성령이다. 육신은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신은 그리스도가 없음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육신이란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것, 혹은 그리스도에 더해진 것을 가리키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의지한다. 갈라디아 인들은 모든 충만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 그들은 육체적인 것들, 율법의 행위, 의례를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들이나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과 같은 것에 그들은 확신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의 행위로 스스로를 온전하고, 완전하며, 거룩하게 만들기를 희망하였다. 얼마나 놀랍고 비극적인 어리석음인가!

바울은, “너희의 시작이 그토록 소망에 가득하였지만, 너희의 계속은 너무도 비탄스럽다.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라.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거짓 인도자들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이 과정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부른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위한 그의 소망을,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것, 혹은 그리스도에 더해진 어떤 것에 근거를 둔다면, 그는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삼위 일체 신봉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일체 신봉자들이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계시며, 신격 가운데 세 위격들,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심을 믿는다. 각각은 만유 가운데 서로 동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 선포하는 것이다. —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세분은 하나시니라.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역주: 영문을 그대로 번역함. 개역한글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로 번역되어 있음. 개역개정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의 8 절 원문 앞 부분을 7 절로 옮김.)” (요한 일서 5:7). 하지만, 우리 구속의 계획을 위하여, 은혜의 언약 가운데 성삼위의 각각이 자원하여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한 방면을 담당하셨다.

에베소서 1 장은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친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설계자시다. 그분은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셨다 (3-6 절). 아들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성취자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 (구속과 용서)을 사셨다 (7-11 절).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적용자시다. 그분은 마음 속에 은혜의 역사를 산출하시고 그것을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효험있게 적용하신다 (12:14 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그분은 우리

위에 임하는 단순한 감화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며, 그분의 책무는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를 택정한 자들의 마음에 적용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늘로 데려오는 것이다. 구원은 그 체험 가운데 모두 성령의 역사이다.

처음

거듭남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 처음에, 믿음의 은사 안에서, 또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구원은 그 영의 역사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한 결과가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1:12-13).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아무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거나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새로 태어남은 그 영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역사임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1-8).

그렇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 전부터 구원받았다. 사람들로 다룰 것으로 다루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로마서 8:28-30; 디모데후서 1:9). 그렇다, 모든 선택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셨을 때 구원받았다 (로마서 5:10; 갈라디아서 3:13).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영원히 사로잡힌 죄인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범죄와 죄

들 가운데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성취된 구속과 완성된 구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모두 우리 체험 밖에 있다.

하지만, 구원은 시간 안에서 선택되고 구원된 모든 죄인이 체험하는 어떤 것이다. 선택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임이 분명하다. 구속 받은 자는 불음 받은 자가 분명하다. 부름 받은 자는 분명 믿는다. 믿는 자는 분명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종말에 반드시 보존된다. 구원의 전체는 시간 가운데 체험되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 날 수 있는 것보다 자신들을 영적 생명으로 더이상 살아날 수 없다. 생명으로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에베소서 2:1-5). 불신자들은 더이상 자신들을 맹인이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스스로를 믿는 자로 만들 수 없다. 믿음은 그 영의 열매이며 (갈라디아서 5:22), 그분의 은혜의 선물이며 (에베소서 2:8), 그분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공훈의 운행하심이다 (에베소서 1:19; 골로새서 2:12).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선택 받은 죄인들이 말씀 안에서뿐만 아니라, 권능 안에서, 풍성한 확신 가운데 그 안에 생명과 믿음을 창조하며 복음을 듣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테살로니가 전서 1:5; 로마서 10:17; 베드로후서 1:23-25). 그분은 구속 받은 자 각각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그분 자신의 구원의

복음을 역사하게 하면서 복음을 효험있게 만드신다 (에베소서 1:12-14).

그분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4-6; 갈라디아서 1:15-16; 스가랴 10:12). 그리스도께서 계시될 때, 성령은 죄인에게 그의 죄에 대하여 확신시키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성취된 의와 만족하게 된 공의에 대해 확신시킨다 (요한복음 16:8-11). 그리고 우리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1:14; 4:30).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지켜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보존된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 가운데 육신에 기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체 역사는 은혜의 역사이고,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거절할 수 없고, 멸망할 수 없고, 영원한 은혜의 역사다.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재한

성령은 각각의 믿는 자에게 내주하신다. 우주적인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후서 6:16). 각각의 참된 지역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16-17),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의 거주지이다 (에베소서 2:22). 그분은 구약에 있는 쉼의 예표이다 (민수기 9:15-23; 역대하 7:1-3).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히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보혜사이고 선생이며 수호자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3-16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신다 (요한복음 10:28; 베드로전서 1:5). 그분은 우리의 신성케 하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분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며, 은혜의 체험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이고 유약인 분이며, 그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침 받는다 (요한복음 14:26; 요한일서 2:27; 고린도전서 2:14).

그분은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한다 (요한복음 14:16-18).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마음과 양심에 적용함)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용서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히브리서 9:12-14).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공의를 만족 하였다고 선포하시며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들에 대하여 용서받았음을 안다. 우리의 변치 않고 받으시는 대속자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영원히 변함 없이 받아들여졌다 (로마서 8:16; 고린도후서 1:22; 에베소서 1:14; 히브리서 11:1-2).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은 믿음의 이 은사이다 (갈라디아서 5:6).

마치심

그렇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그것을 마치실 것이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3 에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디아인들을 유혹하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비록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을 우리 육신의 행위 (자기 의, 율법 순종)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에 더함으로써 이제 완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독적인 언동인가!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종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들은 후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되는지 모른다. “당신이 전한 것에 따르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군요.” 내 대답은 언제나 이렇다. “내가 말씀 드린 것을 들으셨다니 기쁩니다.” 그게 뭔지 알겠는가?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당신을 부르신 그분이 당신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의 선한 일을 (당신의 도움 없이) 마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서 1:6; 요한복음 6:39).. 당신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첫 번째 부활 안에서 당

신을 영적으로 살리셨던 그분이 당신을 무덤에서 데리고 나와 두 번째 부활 안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로마서 8:11-23).

믿음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우리 구원의 전체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고, 교리를 찾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우리는 육신의 행위로나 율법을 듣고서 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갈라디아서 3:1-3).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율법을 성취하고, 우리 구원자를 확대한다 (로마서 3:31). 그렇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였는가? 만약 당신이 그분을 영접하였다면,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당신은 그분께 죄인으로서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신뢰하며 왔다 (고린도전서 1:30-31).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주로 영접하며 종으로서 그분께 엎드렸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사랑에 정복당하여 고메르처럼 신부로서 그분께 왔다. 당신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만을 신뢰하며 행하라.

육신과 그 영은 결코 함께 올 수 없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영”으로 언급한다. 율법을 그는 “육신”으로 부른다.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이상하게 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임을 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 많은 사람이 육신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하려 한다.

율법의 계명이 “세상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그는 육신이라 부른다 (히브리서 9:10). 구약 성경 안의 유대인들 위에 부여되었다. 율법의 계명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 (골로새서 2:8, 20)과 “율법의 천한 초등 학문” (갈라디아서 4:9)라고 부른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계명들은 영적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이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은 계획에 있어 일시적이었으며,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

으셨으며, 사망에서 다시 사셨고, 율법의 세상 계명들이 쓸모 없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일시적인 기초와 초등 학문이 아니 다른 어떤 것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예배하며 산다 (빌립보서 3:3).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변절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다 (갈라디아서 5:1-4).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여 말했던 이유이다. 그리고 율법이 그렇게 하도록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의 속박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절하고 피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13 장

아브라함의 자녀

갈라디아서 3:6-14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찌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

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6-14)

이 장에서 바울의 목적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지, 그 자신의 어떤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 모든 충만 가운데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운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전가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의 나무 위에서 죽으시도록 되셨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성취된 우리의 칭의 때문에 다시 살았을 때 일어났다 (로마서 4:25). 우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공의가 만족하게 된 결과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체험 밖에서 성취된 은혜의 역사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하여 말한다 (로마서 3:28; 갈라디아서 3:24).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려되었듯이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하늘 법정에서 의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평온한 만족감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공홀 가운데 죄인들을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의 공의가 이미 완전히 만족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어떤 죄인도 살도록 허락하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믿기 오래 전에 그분

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화해와 칭의를 믿음으로 받았다 (고린도후서 5:19; 로마서 5:9-11). 우리는 믿음으로 양심의 법정 안에서 칭의를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함으로써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때 이다. 따라서 우리 육체적인 생각, 천연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인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런 의미, 오직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은혜로만 으로서 칭의의 이 교리가 정확히 우리 주의 모든 사도들을 가르쳤던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분은 만약 의가 다른 어떤 길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 장의 시작하는 구절에서 바울은 모든 구원받은 죄인의 체험은 복음 이 진리를 확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그는 믿는 자들이 율법에 의해 의롭게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경 역사로 호소한다. 바울이 이 사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 “씨,”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분

명한 증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태초로부터 은혜의 이 축복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단락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있다. 그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모든 자들은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참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자의 아버지이다. 그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은 (로마서 4:11), 그가 하나님의 책이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고 선포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5:6; 로마서 4:3; 갈라디아서 3:6).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다. 그는 그에게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나셨던 나라의 조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이다. 성령이 그것을 빌립보서 3:3 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분명함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다. 육신을 따른 아브라함의 천연적이고 육적인 자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육체적인 출생의 권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에게 한정적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두 성취되었으며 (여호수아 21:43-45; 23:14-15), 그들은 순종의 조건으로 받은 바 되었다.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마태복음 22:1-4; 23:37-38). 바울은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로마서 2:28-29; 9:4-7). 하나님은 더 위대한 영적 자손을 데려 오기 위하여 천연적인 후손을 잘라내셨다 (로마서 11:22, 25-36).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복음의 통치로 살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로마서 8:4) 구원 받은 죄인들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갈라디아서 6:14-16). 바울은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로마서 4:11)으로서 제시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분명한 표시들과 분명한 특징들을 보게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포

바울의 대가 없는 은혜의 전도에 반대하며 그렇게 필사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임과 그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라고 맹렬하게 주장하였다 (사도행전 15:5; 갈

라디아서 2:3; 5:2-3; 6:12, 13, 15; 마태복음 3:9; 누가복음 3:8; 요한복음 8:33, 39, 40, 53). 따라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의 선포로 돌이켜 모든 육신에 속한 소망,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모두를 파멸하는 그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선포를 한다.

첫째,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행위와는 별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6 절). 아브라함의 칭의는 그가 할례 받기보다 수 년을 앞선다 (창세기 15:6; 16:16; 17:24; 로마서 4:9-12).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였다 (창세기 15:1, 6). 그분은 아브라함의 방패이고 (에베소서 6:16) 그의 보상이었다 (고린도전서 1:30).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에게 의를 준 것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였다 (비교: 로마서 4:22-25; 요한복음 8:56). 그의 믿음은 의의 축복,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던 통로였다.

그리고, 사도는 선포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찌어다.” (7 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육신에 속한 혈통은 유대인에게 아무런 영적 축복을 보장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3:9). 그리고 거룩한 (믿는) 부모의 육신의 후손들이 되는 것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영적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11-13). 모든 영적 축복들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모든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은혜로만 죄인들에게 온다. 믿음에 속한 모든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8-9 절). —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떤 이상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사실에 몹시 불편해 한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불편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신 것과 달리 구약 성경에서 다른 방법과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헛된 상상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육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 결코 아니고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8:11-12). 이것은 그분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였으며, 따라서 아브라함이 복음,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성경의 완전함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제시하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직접 선포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56). 하나님은 그 씨가 그의 음부에서 나올 것임과 그가 메시아일 것임과 그 안에서 그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그의 메시아-구속자로 믿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의 축복이 모든 세상에 임할 것임과 (마태복음 28:19-20), 세상의 모든 열방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축복받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9 절에서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필요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와 함께 축복을 받는다.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 교회가 모두 하나라는 중요한 진리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았다 (에베소서 1:4).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을 누린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구속 받았다 (이사야 53; 마태복음 1:21; 요한복음 3:16). 모두가 그분의 양이며, 한 목자를 가졌고, 한 우리 안에 속하였다 (에스겔 37:22; 요한복음 10:16; 에베소서 2:14-15). 모든 택정 받은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3:8). 모든 택정 받은 자는 동일한 영광에 예정되어 있다 (로마서 8:29-30). 모두가 하늘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한다 (계시록 21:12-14; 마태복음 8:11-12). 그리고 모두가 함께 온전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40).

믿음으로 삶

10-12 절을 보라. —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의의 불가능함을 안다. 모든 믿는 자가 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며, 우리가

산출할 수 없는 의를 요구하고, 우리가 줄 수 없는 만족을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칭의를 받은 자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1:1-3).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한다. 아브라함의 삶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찾아서 자신의 나라를 떠났다 (창세기 11:28-32).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을 떠났다 (창세기 12:1; 히브리서 11:8).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롯과 분별하였다 (창세기 13:1-13).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았다 (창세기 17).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희생하였다 (창세기 22).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사망에서 돌려받았다 (창세기 22).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을 위한 한 필지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찾아 이 세상을 여행하였다 (창세기 13:14-18; 히브리서 11:10).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었다 (히브리서 11:13).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 한다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한다 (12 절). 생명의 원칙으로 율법을 기꺼이 받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은혜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1-4).

구속

구속 받은 죄인들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우리는 율법으로 저주 받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3 절).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분명한 각별하고 효험 있는 구속에 대한 말씀인가!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목적은, 여기서 천명된 것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모든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 장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11)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 왔으며 시간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하므로, 우리는 우리 주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Benjamin Beddome 은 그의 찬송 중 하나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았다.

“이 믿음이 깊은 비통한 시간 가운데 내 연약한 혼을 지탱하니,
폭풍 일고 파도 칠 때, 위대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어떤 슬픔이 닥쳐도, 당신의 강한 팔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네;

당신은 내 생명, 내 기쁨, 내 소망, 또 당신은 내 모든 것 중 모든 것이네.

친구를 잃고, 적의 공격을 받으며, 주변에 위험이 닥치니,
당신께 내 모든 두려움 보이고, 당신 안에서 나의 도움 발견하네.

모든 곤궁 가운데, 모든 곤경 가운데, 당신께로만 나는 날아가네;

위로하는 자 모두 떠날 때, 당신은 영원히 가까이 계시네.”

칭의

분명히 이 본문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칭의는 율법의 행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선포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 아벨, 노아 그리고 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아론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분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 율법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순종은 그들의 칭의와 어떤 관계가 있기로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시대 동안에 의롭게 되었다. 그 시대에 조차도, 아무도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율법은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율법은 결코 어떤 사람도 의식상의 (표상적인) 방법 안에서를 제외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다. 율법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었으며, 구속과 의와 은혜를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믿음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다. 율법의 모든 예표와 계명은 우리의 대속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와 죄 속량 희생으로 그분의 역사의 축복된 효험 모두를 계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따라서, 기록되기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성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하박국을 인용한다 (하박국 2:4). 사실, 이 선포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좋아하는 문구들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그는 하박국의 말을 세 차례 그의 서신서 들에서 인용한다 (로마서 1:17; 갈라디아서 3:11; 히브리서 10:38). 성경에서 이 말씀의 기록을 네 번이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 그 안에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내포한다.

만약 우리가 이 인용이 인용된 상황과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상황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성령의 의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칭의 만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화를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임이 분명하여 질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와 운행하심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천연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분의 성령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22; 에베소서 2:8-9; 골로새서 1:12).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운행은 사랑을 산출한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을 산출한다. 이 은혜의 은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이유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이다. 이런 것들은 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부터 흘러 나온다. 봄에 우리는 우리 집 주변에 만발하고, 공기에 그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장미와 꽃들로 우리 눈이 즐겁지만, 아무도 그 꽃들이 식물이 살게 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가져온 것은 살아 있는 식물이라는 것을 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같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과 의와 성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생명은 그분의 은혜의 열매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은 은혜의 열매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주어진 생명의 결과다.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은 믿는 자의 사람의 뚜렷한 원칙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자를 영접하고 그분 위에 산다. 하박국 1 장 (2-3 절) 에서 선지자는 그의 부담의 억누르는 무게 아래에서 외쳤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에서 (13-17 절), 그에게 그분 자신을 설명해 주실 것과, 왜 유대를 벌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할 것을 택하셔야 했는지 설명해 주실 것을 주께 물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주여, 패역을 목도하기 보다 더 순수한 눈을 가진 하나님께서 심지어 더 악한 백성으로 유다에게 당신의 진노를 행하실 분이 당신이신지요?”

이 말은 반역자 혹은 타락한 불신자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역사로 어찌할 줄 모르는 신실한 사람의 질문이었다. 우리는 그 말을 입에 담을 만큼 정직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말은 또한 우리를 수시로 방해하는 질문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에게 시편 73 편에 있는 다윗의 큰 몸부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운다.

하나님의 대답

우리가 동일한 질문들로 다투어 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은 역력한 편견으로 가득하다. 의로운 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동안 사악한 자가 번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질문을 제기한 후,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작정한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하고, 그 대답을 마음에 두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2 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의 파수대 위에 올라서며, 주께서 그 대답을 그에게 이상으로 주신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그의 나머지 예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상의 결과임을 내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상을 기록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고 (2-3 절), 하나님의 이상의 선포가 처음이고 가장 우선하는 가르침과 책망과 확신을 하박국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겠다. 그 가르침을 듣고, 책망을 받으며, 확신 가운데 기뻐하도록 하자. —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획에 맞추어 시행하신다는 것이다 (2:3).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한 시계로 맞출 수 없다. 이스라엘은 그리스

도, 오실 희생자, 그로써 죄가 없어지게 될 분을 기대하며 수세기 동안 제물을 드렸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치는 돌 위에 걸렸다(로마서 9:33-10:4). 그들 자신의 의를 이루려 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로마서 10:4)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갈라디아서 3:11; 로마서 1:17; 히브리서 10:38; 하박국 2:4)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였고 멸망하였다.

여전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갈라디아서 4:4-5).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한 가지 것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그대로 정확한 시간에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각에 천 년은 하루 같다. 그분은 결코 서둘지 않으시며,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

이것은 하박국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다. —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하박국 2:4). 이 공과의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에 의해 하박국에게 하신 이 위

대한 선언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바울에 의해서 세 번이나 반복된다. 각각에서 우리 보증자이고 대속자로서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과 절대 확실한 효험 있는 역사의 특정한 방면을 묘사한다.

로마서 1:17

첫 번째 신약의 인용은 로마서 1:17 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바울의 선포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를 뒤이어 나온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고 말한다.

로마서 1 장에서 바울은 마치 그가 우리에게 죄인들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는 가를 보여주는 가운데 칭의에 대한 그의 위대한 서신의 한계를 견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영감을 받은 기록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의와 피로 성취된 구속에 대한 기록을 본다.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에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

고 대가 없고,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칭의를 받는다. 반복하건대,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로마서 4:25). 믿음은 그로 인하여 가져온 속량과 의를 받는다 (로마서 5:11). 우리 형제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 자신의 아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받는다 (히브리서 11:4).

갈라디아서 3:11

두 번째 인용은 여기, 갈라디아서 3:11 에 있다. —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서 2:6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 에서 그가 기록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 인들은 유대주의 율법사들인 거짓 전도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모두를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5:1-4). 이 거짓 교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들은 구원 받은 자신을 이제 지켜야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들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바울은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것들을 이해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3:1-10) 그는 성화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그 두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받으며, 그 모두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역사들임을 말하고 있다. 그는, “만약 너희가 행위로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너희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11 에서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의 행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지속한다.

히브리서 10:38

우리는 히브리서 10:38 에서 다시 하박국의 말을 본다. 여기서 성령은 그 인내와 확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0:39). 밤이 깊을 때, 믿음은 어둠을 찌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빛을 보면서 멈추기를 거부한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안기고 매달린다.

하박국의 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심판이 오고 있음을 말한다. 모든 교만한 반역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시

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섭리에 따른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조차, 그리고 진노의 큰 마지막 날이 올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전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그들의 혼의 닳이신 한 분께 고정한다 (2:14, 20). —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분명,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이 덮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하며,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모든 땅에 퍼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짓 종교인 바벨론 이라는 큰 음녀로 인하여 모든 열방을 파멸하실 지라도 이 복음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분명하다.

아직 더 있다. 만약 당신이 한계에 다다른 번역을 하더라도, 하박국 2:14 의 말씀은, “세상이 주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리라.”고 번역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는 세상 전체를 통하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을 본다.” (로마서 8:28-39). 이것은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1:40 에서 하신 선포와 똑같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는 시내 산 위에서였으며 (하박국 3:3-4), 지금도 같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불 눈을 가졌다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하다. 곧 어느 날, 모든 것이 그분의 찬양을 보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분의 번쩍이는 검을 꺼내서 세상을 행진하실 때, 그분은 “구원의 마차”를 타고 계실 것이며 (하박국 3:8), 그분의 기름 부은 자인 그리스도에 의한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앞으로 나간다 (하박국 3:12-13).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상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로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신다. 진노 가운데, 그분은 긍휼을 기억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알게 하시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보존하고 계신다.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라고 선포한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네 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박국의 믿음

이것을 알기에, 고난 받고, 무거운 마음의 선지자가 정한 믿음의 경이로운 선포와 함께 그의 찬송과 예언을 단으며, 어둡고 힘들게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섭리에 속한 지혜와

선하심과 은혜에 앞드린다 (3:17-19).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것은 정확히 이 말씀으로 인한 뜻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며 베푸시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하소서.

15 장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갈라디아서 3 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별개로, 그리스도의 흘린 피의 공로 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10 절에서 모든 율법주의자들에게 매우 놀랍고 귀에 거슬리는 선언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을 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사람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킴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려 할 때, 그는 바로 그의 노력 안에서 저주 받았다. 그와 같은 선언은 사람들의 천연적인 의견에 정반대 되며, 모든 다른 형태의 종교이다.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기독교가 자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지침을 주어야 하고, “당신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여야 당신은 살 것입니다. 이 계명들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영생을 소유 할 것

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정 반대로 말씀하신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율법이 주어진 것은 경외롭고 끔찍한 사건이었다. 시내 산이 불타고 있었다. 천둥 번개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다. 율법을 주는 것은 나팔 소리에 뒤이었다. 그것은 마치 멸망의 날, 저주의 날, 파멸의 날 같은 소리였다. 너무도 경외하고 끔찍한 것은 모세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노라.”라고 말했던 그 광경이었다. 만약 어떤 짐승의 발 조차도 그 산에 닿았다고 한다면 그 짐승은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뺨죽한 것으로 밀어내야 했던 그런 두려운 때였다.

그 극적인 사건의 어마어마함은 커다란 두 장의 돌판 위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으로 결론 났다. 그 율법은 어렵고 완고하며, 냉정하다. 그것은 우리를 가루로 만들 정도로 저주하는 돌판, 무거운 돌판 위에 기록되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자신의 행위를 딛고 서서 구원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들이 그에게 저주이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13 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없고, 다만 다른 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께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유일한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의로운 것으로 은혜로이 받으신다.

죄는 저주받은 것이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셔야 한다. 그분의 의는 모든 죄를 벌하고 죄에 대하여 사람들을 벌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의 백성이 받았어야 할 그 저주를 남자답게 고난 당하셨다. 우리 대속물로서 그 자신의 아들의 희생 가운데 하나님은 죄의 심판 가운데 그의 공의를 만족하셨고,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그 손에 구원을 받는 그 아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 위에 내려주신다.

우리의 파멸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하여 유죄이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10 절). 당신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다 (출애굽기

20:1-17). 율법을 조금만 보아도 우리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성장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는 율법을 어겨왔다. 죄로 충만한 인간이라면 아무도 계명의 하나 조차도 지킬 능력이 없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 생각 자체가 거짓이다. 그리고 당신은 안다. 아무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결코 하지 않았다. 악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죄뿐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어김이 없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지 않다는 가정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지옥으로 끌어버리실 때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끔찍한 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인이 그 자신만 저주 받았던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당신의 삶의 여명부터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지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

우리 마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죄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타락하였다 (로마서 5:12).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다 (시편 51:5; 58:3).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들이

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행한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 우리의 그 본성은 사악하다 (마가복음 7:20-23).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갈망을 이루며 산다 (에베소서 2:1-3).

우리의 저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신명기 27:14-26).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히 공의롭고 의로운 저주, 우리가 받은 저주이다 (창세기 2:17; 에스겔 18:4; 로마서 6:23).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나훔 1:2-6; 말라기 4:1). 물에서 일단 세상을 멸한 분이 곧 세상을 불로 깨끗이 하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 비를 내렸던 분이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꺼지지 않는 불과 고통의 영원한 유황을 유일한 피난성인 그리스도 밖에서 그분의 되갚는 공의로 발견될 모든 죄인 위에 퍼부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장래의 어떤 때 그들 위에 떨어질 어떤 것임을 아무도 상상하지 말자.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불신자들 위에 있다 (요한복음 3:36; 신명기 28:15-19). 영원한 지옥은 진노가 경감 없이 불신자 위에 영원히 행해질 곳이다.

구속

그러나 이 세상에는 더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더이상 정죄 받지 않으며, 결코 정죄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믿는 죄인이 기뻐하고 노래하도록 하자.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구속하셨다 (고린도전서 12:3; 신명기 21:22-23; 여호수아 10:24-27).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의 구속-대속-만 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실 유일한 방법은 죄속량의 죽음과 공의가 무한한 가치와 공로의 대속자의 희생을 만족함에 의함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속자이다.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무한하고 거룩한 진노를 아들 위에 부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변쩍이는 검을 한번 가공하게 내리치심으로 공의가 만족되었다.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하였을 공의의 검은 우리의 거룩한 대속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졌다.

“사랑의 한 엄청난 송풍기로,
그분이 저주를 말려 버렸네!”

그렇다, 그분은 죄를 대신한 그분의 한번의 큰 희생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 우리 구속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버지로 인하여 이 일에 약속되고 부름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구속자가 되시기로 동의하셨고, 영원 가운데,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 구속자가 되셨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음 당한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구약 성경 예언 가운데 우리 구속자로서 언급되었고, 율법과 보아스에 의해 우리 일가의 구속자로 예표 되었다. 시간의 충만 가운데 우리 구속자가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속자로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어내셨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시다. 인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가까운 인척이며, 율법으로 구속의 권리가 그분께 속하였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었다.

구속 받은 자

그리스도로 구속 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택정한 자 (테살로니가후서 2:13-14), 영원한 사랑의 대상들이다 (예레미야 31:3; 로마서 8:28-30). 그들은 온 세상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백성, 특정한 백성, 은혜의 특정하게 구별된 대상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구원하려 오신 자들이고 (마태복음 1:21),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다 (요한복음 6:39). 그리스도로 구속 받은 자들은 그의 양이며 (요한복음 10:11-16), 그들을 위하여 그분이 중보를 하셨고 또 하시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7:9, 20).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께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을 것을 상상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던 자들은 사실상 구속 받은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을 구속하셨다고 상상하는 것은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우습지 않은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은 모든 사람은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로 이끌린 “우리”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은 갈보리에서 성취한 구속의 결과다.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의 무한한 공로와 효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를 효험 있게 구속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얻으셨던 그 축복은 영원한 구속이다 (히브리서 9:12).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

셨다.”고 말할 때, 그의 의미하는 바는 — “과거 한 때, 완성된 것으로, 모두를 위하여 한번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그분 자신께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구속의 대가는 그분 자신의 피였다 (베드로전서 1:18-20). 우리는 그분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선물로 그분의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율법적인 속량으로 그분의 것이다. 그분을 우리를 그분 자신의 피 값을 치르시고 사셨으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 곧 정죄와 사망의 그 선고에서, 그리고 영원한 진노 가운데 그 집행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 받은 모든 사람은 철저하고 효험 있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되었던 것은, “따라서,” John Gill 이 그것에 대해, “그들은 결코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진노로부터 구원 받은 그분이 오셔서 둘째 사망에서 구속하셨으며,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저주받은 바 되심

어떻게 우리 구원자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셨는가?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바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그분이 단순하게 율법에 따라 저주 받은 자처럼 되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가증스럽고 사악한 사람으로 그분이 여겨졌거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분을 원래 그랬던

분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 상상된 저주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우리 모든 영광스러운 대속자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한 저주”가 되신 것이었다. 우리 보증으로 주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서 되셨다. 그분은 우리 대신 법적으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셨다.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보증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지심으로, 그분은 그들을 대신하여 책임질 자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책임질 유일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셨다. 그분에게서 우리 죄를 찾음으로, 율법은 그것에 대한 혐의를 그분께 가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저주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기로 하셨을 때, 공의가 그분에게서 받은 대가로 완전히 만족하실 때까지 최고에 달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격노를 그분 위에 행사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구하셨던 분이 그분께 대하여 진노한 공의의 검을 뽑으셨으며, 그분의 죽음, 십자가의 끔찍하고, 경멸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을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저주가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으로 “저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와 아버지의 의로운 종으로서, 주 예수께서 그 역사에 기꺼이 동의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 놓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자원하여 주셨다.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위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전적인 동의 하에 그분 자신의 혼을 죄에 대한 제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그것은 신명기 21:23 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23 에 있는 그 구절은 여백의 의미로 번역되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 구속자의 고통과 그분의 희생의 크기와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역사의 효험을 묘사하기 위하여 더이상 강한 말이 사용될 수 없다.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다리셨을 때, 영광의 주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어떤 죄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소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가 되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으며, 우리 대신에, 그분의 것이 되도록 되었던 우리 죄들 때문에 저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보증이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내렸다. 그분 자신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죄로 만드셨고, 그로써 그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죄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한다. 그 처벌은 죽음이다. 그것이 그 율법의 저주다.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그 저주인 사망을 견디고,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다. 실로, 지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한데, 엄밀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저주 받은 자들은 결코 그 무한한 저주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복음의 크나큰 아름다움과 경이와 영광이 있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을 때와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견디었던 그가 대신하여 죽었던 모든 자들은,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었다. 이제, 만족된 공의의 근거 위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었던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은 공의이자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의 의롭게 하는 분이다 (로마서 3:24-26). 그분이 자신을,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 (이사야 45:20)임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16 장

구원

대가 없는 은혜의 약속된 기업

갈라디아서 3:15-20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15-20)

갈라디아서 3 장에서 바울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이 그 전체에 있어서 대가 없는 은혜의 기업,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어떤 부분도 육체의 행위,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신성한 영감으로 쓰면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구약 성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논쟁 후의 논쟁을 사용한다. 이 단락에서 그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운행에 의한 구원의 축복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임을 보여준다.

예시

바울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약속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언약의 확고함과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을 하늘에 속한 것의 예시로 땅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며 보여준다. —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5 절). 약속이 430 년 전에 시내 산에서 주어졌던 율법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 약속을 결코 무효화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일단 언약이 비준되면 그것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 조항들은 변경될 수 없다. 바울의 요점은 이것이다. — 은혜와 구원의 약속들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 약속들을 바꾸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효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칭의, 구원, 성화, 그리고 영생은 율법에서 올 수 없다. 복음의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바뀔 수 없는 약속에 의해서 오고,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의 공로와 효험을 통해서 온다.

바울의 주장

만일 사람의 약속이 언약이 비준된 후 일어난 어떤 것으로 뒤집어 질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럴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다. —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6 절). 복음의 약속들은 율법보다 오래 전에 주어졌으며 후에 온 율법으로 무효화하거나 변경될 수 없다. 15 절에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유언(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이 자신의 요점을 예시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사람의 유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어떤 것을 가리키려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

의 약속,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아들과 맺은 약속을 가리키려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전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약속은, 처음부터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음 당한 어린 양으로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우리의 보증, 구속자, 그리고 언약의 머리로서 시간 가운데 성취하셨을 그 역사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시간의 시작부터 있어왔던 것처럼, 지금도 존재한다. 은혜, 구원, 용서, 그리고 영생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대가 없이 믿는 죄인들에게 흐른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던 그것은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인하여 무효화될 수 없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디모데후서 1:9-10; 에베소서 1:3-7, 13-14), 시간 가운데 나타난 어떤 것으로도 무효화될 수 없다. —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7 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18 절). 바울이 말하는 기업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이고 영생이며 기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 그것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은사로 얻어진다. 이 은혜에 속한 기업은 은혜와 영광의 모든 축복을 포함한다 (에베소서 1:3; 고린도전서 1:30-31). 바울은 이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 자손에게 한 언약 안에서 약속된 은혜의 특정한 축복을 포함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는 것을 특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은 율법의 행위로 그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의 상속자들이 아니다 (로마서 4:14). 이 약속들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만 얻어진다 (로마서 4:16).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혼합, 은혜와 율법의 혼합, 공홀과 공로의 혼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만약 구원이 약속으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으로 올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율법에 의해 온다면, 약속으로 올 수 없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율법의 행위가 없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이다. John Gill은 그것을 이렇게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가 없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따라서 칭의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있으며, 또 이

런 방법으로 사람이 영생의 소망에 따른 상속자가 된다.”

430 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430 년이란 간격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사실은 혼란을 일으킨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인 하나님의 언약과 (창세기 12 장)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출애굽기 20 장) 시간 사이가 430 년 보다 훨씬 더 길었다. 실제로 600 년 이상이 이 두 사건 사이에 소요되었다.

바울이 실수를 한 것인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오류가 있는가? 물론 아니다! 나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에서의 여정의 시간을 가리키는 출애굽기 12:40-41 부터 430 년을 택하여 의도적으로 시간 간격을 적게 하였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는 단순히 한 예시로서 그 사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숫자를 선택하였다. 이 숫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는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께서 성공적으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셨던 마지막 열조의 날을 그 모든 열조들을 한 사람으로 합하여 계산한다 (야곱 - 창세기 28 장).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는 염소들에게 썩을 것을 담은 통을 주며 양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다른 어떤 것을 준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고 동일한 언약의 축복으로 은혜

만으로 대가 없이 충만하게 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언약 가운데 은혜의 모든 축복들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언약의 머리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바울이 마음 속에 분명하게 가졌던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 축복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은혜에 속한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책 가운데 종종 언급된다 (예레미야 31; 시편 89; 히브리서 12; 에베소서 1; 디모데후서 1). John Gill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한다. “은혜의 언약은 간결하고, 신성한 위격들 가운데 모든 영원 전부터 만들어진 약정이며, 택정한 자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늘에 별이 있기 전에, 태양이 그 위치에 고정되기 전에, 삼일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땅에 지어지기 전에, 영전하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처럼, 그분 자신을 위한 백성을 갖기로 정하셨다.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7:23-24). 그것은 순전한 은혜와 대가 없는 공훈의 언약이었으며, 우리 보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

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히브리서 7:20).

이 말씀들은 성경에서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들이다. —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시편 89:2-4, 28). 시편 기자는 선포하였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103:17).

은혜와 구속과 생명의 이 언약은 세상의 시작 전에 축복된 삼위의 신성한 위격들 간에 이루어졌다. 사람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적인 기쁨이다. 언약은 전적으로 대가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유일한 원인이다.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역사의 근거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에 따른 “그분 자신의 계획”이다 (로마서 8:28-30). 하나님은 천사들을 구원의 상속자들로 지명하셨던 자들의 종이 되도록 하셨다. 그분은 지구를 그분의 택하신 자의 거주지로 정하셨다. 그분은 인류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타락의 파멸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속함에 있어서 그의 사랑의 충만을 보이기 위하여 그 인류의 타락을 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두려움을 보이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분은 율법을 확대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함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율법의 손에 그분의 아들을 부치셨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단계를 명하심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들 각자가 그분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가장 뛰어나게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죄인들,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가련하고, 나약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이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사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망라한다. 나는 또 당신에게 이것이 불변의 언약임을 상기시키겠다.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확실하게 명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느헤미야 9:32).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언약 가운데 맺어졌다.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율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사야 54:10).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

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89:34). 이 언약은 결코 다른 것에 굽히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시대에, 율법 아래에, 예표와 그림자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영원히 서 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11:9).

바울이 갈라디아서 3:15-20 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히브리서 13:20 에서 그는 그것을 “영원한 언약” 이라고 부른다. 율법은 행위의 언약으로써 낡아져 갔으며 사라졌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의 충만한 계시로 대치되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그분의 중보의 왕국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인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4).

율법의 계획

19-20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이 죄인이 구원받게 될 체계로서가 아니고, 믿는 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영적 능력과 우월함을 측정하는 행위의 법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충만케 할 때까지 심판의 위협으로 사악한 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더해졌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

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 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율법은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래 후에 주어졌다 (디도서 1:2). 그것은 사람의 죄와 유죄를 드러내고 노출하기 위하여 주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일깨우고 자각하게 만들려 주어졌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대속자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표와 그림 속에서 메시아이고 구속자인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시내 산에서 주어졌다 (히브리서 10:1-9).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분의 율법을 주셨을 지라도, 그분은 모세의 중보 가운데 예표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은혜롭게 보여주셨다. 모세는 죄로 충만한 이스라엘과 거룩한 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 있었다 (출애굽기 20:18-19).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에 있어 쓰셨던 사자이고 도구였다.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사람 구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다 (디모데전서 2:5; 히브리서 8:6; 9:15; 12:24; 사도행전 4:12). 중보자는 어느 한 편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오직 한 사람만 개입되어 있다면 중보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한 분 노하신 분이요, 거리를 두고 서 계시며, 중보자의 손에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처분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칭의는 율법을 통해서 기대될 수 없다. 누군가 개입하여야 하고, 우리에게 가담하여야 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만족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중보자이고 보증이다. 그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가담하셨고, 세상의 시작 전에 우리 혼을 위한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이셨고, 언약의 조항에 따라 (에베소서 1:3-6),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거룩한 임재 앞에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제시하시며, 그분의 의와 거룩의 완전함 가운데 마침내 그분 자신의 택한 자를 안전하게 영광으로 데려올 것을 그분의 아버지께 맹세하셨다 (요한복음 10:16; 히브리서 2:13).

17 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갈라디아서 3:19-29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 왔으며 율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추구해야 한다는 많은 자들을 확신시켰고, 믿는 자의 칭의와 성화는 은혜로만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들은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또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담대하고 독단적으로 율법과 은혜의 혼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그가 로마서 11:6 과 갈라디아서 5:1-4 에서 선포하였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을 선포할 수 없었다. 그 두 부분에서 그는 선포한다. — 만약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칭의와 성화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행위를 더한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며, 길 잃은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지하며, 그리스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1 에서, 율법과 은혜를 혼합한 것에 대한 인식을 산산이 내던지면서, 이 담대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한다. —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를 정당화하거나 의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헛되
이 죽으셨느니라!”

단지 그의 경우를 천명하기 위하여 더 강한 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율법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될 것이라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무의미하게 죽었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라고 선포한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갈라디아서 3:19-29 를 읽도록 하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는 한편
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
러면 율법이 하나님이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
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
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
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
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영감의 열한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획을 말해준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비난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의 말을 미리 알렸다. 그는 그들이 와서 일하게 말할 것을 알았다. “만약 율법이 믿는 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우리의 칭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율법이 생명의 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왜 그것이 주어졌는가? 그 용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가 이 구절들에서 대답한 질문이다. —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과 예배와 국가 통치와 구약 성경 안에서 주어진 매일의 생활)은 의의 수단이나, 은혜의 수단, 혹은 구원의 수단이기를 결코 의도되지 않았다. 그것은 도덕적 윤리의 법전으로 주어지지 않았

다. 그것은 믿는 자의 생활법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위한 동기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화의 척도로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도록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보상을 위한 기초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공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율법의 의도와 계획과 용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책은 이것에 관련하여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한다.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14-15). 양쪽 모두 아래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7:4).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로마서 10:4).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만 가두기 위함이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19).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20).

어떤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와 유죄를 확신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그들의 죄를 확신하는데 이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전한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

움을 받기 전에, 율법에 의해 죽임 당하여야 한다. 율법은 하나님께의 깊이 파는 쟁기이며, 그것으로 사람 마음과 양심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일구며, 복음을 위한 땅을 준비 한다. 이 쟁기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행해져야 한다.

“그때까지 주어짐”

19 절에서 다음 행을 보자. 율법이 주어졌던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언급된 자손이란 그리스도이다. 언급된 약속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약속이다. 그 약속은 성령이 그의 택정한 자에게 대한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된 은사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고,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 의해 성취된 의를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다.

내가 이것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이 그것을 드러낸다. 시내 산에서 주어진 모세 율법은 단지 사람이었던 중개자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언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한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라. 그것은 여기 20 절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의미이다. —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시작 전부터 그분의 택정하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 약속하셨다 (디도서 1:1-3). 믿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참되고 영적인 자손을 위하여 그것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이 언약을 얻었다 (갈라디아서 3:13-14; 히브리서 9:12; 2:16).

율법의 의가 없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이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1 절). — 이 얼마나 분명한 선포인가! 그것은 실로 반박의 여지가 없다. 모세에 의해 주어진 율법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에게 주어진 영생의 언약에 반대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하셨다고 상상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으며, 엄청나게 불합리한 것이다. 만약 의가 어떤 것을 행한 우리에게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갈보리에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율법 아래 지켜짐”

이제 22 절과 23 절을 보라. —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두기 위하여 주어졌다.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자를 죄 아래 있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선택에 의해, 실행으로 죄 아래 있다 (로마서 3:19-23). 우리는 죄의 지배와 타락과 징벌과 저주 아래 있다. 이 이유는 이것이다 —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이 장을 통하여 논의되었던 동일한 약속,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읽고 복음을 이해하라. — 은혜와 구원과 영생은 우리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실하심, 혹은 신실한 순종을 근거로 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온 것이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의를 가져오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다. 우리를 구속하셨던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다. 우리 죄

를 없애 버린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다.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함으로 우리를 위한 속량을 만드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던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들을 성취함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받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죄인 각자는 은혜와 구원화 영생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 받으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들께서 그것을 사셨기 때문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믿음이 오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기 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기 전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에베소서 2 장을 읽으면 —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영원 전부터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갈보리에서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진노로 충만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증오하며, 유죄의 느낌 아래, 저주받고 정죄 받은 죄인들로서 소망 없이 살았다. 우리 첫 번째 유죄 판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생각들은 공포로 우리를 가득 채웠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고, 우리를 공의롭

게 정죄하였다. 율법이 왔을 때, 죄가 살아났고 내가 죽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다 (로마서 7:9).

믿음에 간헐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따라서 (율법의 공포로 우리를 저주하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 간혀 있다. 23-24 절에 있는 것을 보라. —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과 기능과 용도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함이다. 일단 율법이 그 목적인 바를 행하면 다른 기능은 없다. 그것은 나의 의견이나, 해석이나, 신학적 관점이 아니다. 그것은 정확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 절에 말씀하신 것이다. —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정확히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Martin Luther King 이 민권 법안 (Civil Rights Bill)의 구절로 선포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자유다!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

니, 나는 마침내 자유다!” 따라서 그것은 율법과 함께 있다. 일단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율법은 그 죄인 위에 더이상 균림하지 않는다 (로마서 6:14-15; 7:4; 10:4).

믿음으로만

구원은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가 없이 죄인들에게 온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26 절을 읽어보라. —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말을 믿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였으므로, 그는 그들의 고백이 순수함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입양됨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결코 아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회적인 방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양자됨의 결과이다.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신성한 예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양자되었다 (에베소서 1:5). 성령을 우리에게 효험있게,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보냈던 것은 우리의 양자됨이었다. 택정함 가운데 우리의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영

의 부르심의 이유였다 (갈라디아서 4:3-7; 요한일서 3:1).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 절). — 바울은 여기서 교회 안에 침례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이 있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잠기는 복음의 포고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의 말은 단순히 그들 가운데 몇몇이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John Gill 은 그 본문을 이와 같이 말하며 올바르게 설명한다. “진실로 그리고 올바르게 침례를 받은 자들, 그것에 합당하게 순종한 자들,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

바울은 침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침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위이고 순종일 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참되게 침례 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가 침례 받기 전이나 침례를 받았을 때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침례 받기 전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의이신 주로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었다.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공개적인 고백으로 그분이 우리 주와 왕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자원하여 그분의 영원한 종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새롭게 함 안에서 그분과 함께 행보하기를 결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Gill 은 “그 암시는 공통된 옷을 벗은 제사장들에게 한 것이며, 자신을 물에 씻거나 담근 자들이고, 그들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의복을 입은 자들인 제사장들에게 한 것이다.”고 제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 절).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장벽들은 소멸된다. 세상에서 인종과 입장의 차이가 없는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다. 은혜만 죄인들을 참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이다.

29 절에서 사도는 놀라운 결론으로 그의 주장을 가져간다. —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른 어떤 것도 실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아버지의 택정하심으로, 아들의 구속으로, 그 영의 부르심으로, 또 그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것이 그 의미하는 바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분의 은혜의 수혜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이고 그분은 영원히 당신의 소유이다! “약속대로,”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아들에게 하신 영생의 약속에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18 장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갈라디아서 3:26-29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26-29)

율법적 모세 시대 아래에 많은 구별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의 계시를 주셨던 자들인 그들만 구별되었다. 주인들이 종들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있어서 조차도 여자들보다 더 크게 귀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오면서 모든 이런 것들이 변하였다.

이런 변화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이상 세상의 다른 열방들보다 이스라엘 나라를 더이상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다. 그들은 하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불신의 이유로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버려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받은 나라임을 추정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동등하게 그들의 아들딸들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믿는 자들보다 특정한 우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속 받은 형제들보다 하늘에서 더 큰 축복들을 받을 것임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오류투성이 견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구원자의 피로 인하여 치유된 모든 택정한 자들을 위한 대가 없는 은혜로운 은사들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장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이다. 우리 보상은 우리의 노력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망에의 순종으로 인함이다. 그것들은 우리 구속자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사신 것들이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실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만이 우리 믿

음의 보상이다.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모든 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언제나 지역 집회를 지키고 높여야 한다. 신약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 있는 지역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위치로 높여서는 안 된다. 모든 세대와 시간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 즉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기도하셨던 것이며 우리 사이에 있는 장막의 한 가운데를 가르셨을 때 성취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처럼 행동해야 한다.

“정치적 정확성”과 “다문화주의”의 이 시대에 대부분의 개개인은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사고에 대하여 말뿐이며 편견이 없다는 척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말뿐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서구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난 오십 년 동안 사람들 사이의 인종과 사회적 장벽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하나됨을 법제화하려 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대부분

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해도, 장벽은 더 크고 사회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편견은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사람의 피부색이나 부와 가난의 척도나 교육의 많고 적음이 전혀 상관 없는 곳은 우주 가운데 오직 한 곳 뿐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이다. 갈라디아서 3:26-29 는 이런 구별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그 존재가 그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있다. 흑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 흑인인 것이 그치지 않고, 백인은 백인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남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날 때 남성이기를 그치지 않으며, 여자는 여성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26-29 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천연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회, 인종, 성별, 심지어 대륙별의 모든 것이 그 중요성을 모두 잃어버린다 (골로새서 3:11).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모두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오직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동등하게 영접된다. 그리고 모두가 그분 안에서 동등한 상속을 받으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던 그 피로 보증 받는다.

“교회는 하나의 기초에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라;
교회는 그의 새 창조
물과 말씀으로라.
하늘로부터 그가 오셨고 교회를 찾으셨으니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함이라;
그 자신의 피로써 그가 교회를 사셨으니,
또 교회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네.

모든 열방에서 택정하시고,
하지만 모든 세상 위에 한 분,
교회의 구원의 특권,
한 주, 한 믿음, 한 출생;
한 분 거룩한 이름을 교회가 축복하고,
한 거룩한 음식에 참여하네,
또 교회는 한 소망을 내 놓네,
받은 모든 은혜로.”

갈라디아서의 이 세 번째 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세 시대를 넘어서 이 복음 시대의 우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 시대 아래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경륜 아래 행했던 것보다 더 분명한 신성한 은혜와 공훈의 계시를 누린다. 이것 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속박이 부과하였던 율법과 공포 아래의 속박의 상태로부터 또한 자유롭게 되었다. 이 복음 시대에 우리는 미성년자들인 자녀들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성장한 아들들로서 위협

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충만의 시대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더 큰 자유와 특권을 보장 받았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특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유하였다. 우리는 한 분 위대한 구속자에 의해 모두 구속 받았다. 우리는 모두 한 분 큰 형 — 그리스도를 소유하였다. 우리는 모두 거듭났으며, 한 분 성령, 우리 복된 보혜사에 의해 인침 받았고 내주 하신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한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모두 한 분 남편 —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혼인하였다. 모든 믿는 자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그리스도의 하나의 단일한 몸을 이룬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이다 (요한복음 10:16; 에베소서 5:25; 히브리서 12:23).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는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갈라디아서 4:6-7; 에베소서 1:5; 요한일서 3:1). 모든 믿는 자는 완전히 성장한 아들들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 가운데, 택정

하심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아들로 입양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셨을 때 양자의 기쁨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를 우리가 받는 것에 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지 않으며, 단지 아들의 명분의 은사를 받는다 (요한복음 1:12).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신다 (갈라디아서 4:6). 양자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지위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은혜의 언약 가운데 양자됨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자녀들로 입양됨을 예정하셨다. 하나님 아들,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이 은혜에 속하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길을 만드셨다. 우리가 영원 가운데 양자되었고 갈보리에서 구속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아들의 지위를 선포하시고 그로써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신다.

바울은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을 여전히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아이들로 비유하며 이 복음 시대에 있는 믿는 자들을 성숙한 세대에 이른 자녀들로 비유한다. 우리는 더이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고 가르침 받는 성숙한 자녀들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사야 54:13 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6:45; 예레미야 31:34).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는 더이상 우리 몽학선생인 율법이 필요 없다 (히브리서 8:10; 10:16).

침례

27 을 읽어보라 —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물 침례의 행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비밀스럽게 침례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 중 어느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문장의 단순한 의미는 올바르게 침례 받은 자들은 모두, 믿는 자들로서 침례를 받았으므로, 모든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함으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는 자들로 공개적으로 침례의 물 안에 잠겼던 자는 모두 그들이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과 하나임을 고백한다.

믿는 자의 침례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던 그것이다.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다 (베드로전서 3:21). 사람이 침례가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것에 순종할 의무임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 안에서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대속자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행할 때, 침례는 올바르게 행해지고 그 마지막도 합당하게 답을 받는다 (로마서 6:3-4; 골로새서 2:11-12). 이런 믿음의 공개적 고백으로, 침례 받은 자는 모두 한 몸 —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가지 이유 —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연합된다. 바울이 에베소서 4:3-6 에서 우리가 왜 “평안의 때는 줄로 그 영의 하나도심을 지키도록” 언제나 힘써야 하는 이유로서 에베소서 4:3-6 에서 사용한 것이 이 “한 침례”로 인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믿음의 이런 연합이다.

사회적 구별 없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해져야 할 명백한 의무들이 있다. 이것 때문에 수행 가운데 어떤 구별들이 있다. 목사들은 교회 안에 영적 교사와 통치자들이 되도록 주어졌다 (에베소서 4:11; 히브리서 13:7, 17). 집사들은 교회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섬기도록 주어졌다. 지체 각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

자, 흑인과 백인) 책임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합당한 영역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허용된 계급의 구별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의 오래된 세상적 선은 모두 지워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한 성품을 소유하였고, 한 가지 길 안에서 받아들여졌으며, 한 가족에 속하였고, 한 머리 — 그리스도 아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은혜의 모든 축복들과 아들의 명분의 특권들을 동일하게 받았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새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의 인격이다 (에베소서 2:15). 인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전체 안으로 융합되었다. 그것이 28 절에 있는 바울의 말의 의미이다.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 절). —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분께 주신 아버지의 은사이고, 그분 자신의 피로 사신 바이며,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기꺼이 드리도록 만들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므로,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자손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와야 하는 자손, 언약들이 맺어진 자손들이다 (3:16, 19).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의 “거룩한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5-9)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16)로 불리도록 된다. 세상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소유로 다른 어떤 나라도 소유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우리는 “언약에 따른 기업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언약의 자녀들이며, 그것은 자손으로 여겨진다.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약속된 자손이며, 구속 받은 자손이고 (시편 22:30; 이사야 53:10-11; 히브리서 2:10), 의의 자손이다 (로마서 9:7-8). 그들은 모두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 자손으로,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상속자들로, 그리고 영원한 기업에 속한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다. 우리 중보자이고 언약의 머리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에게 속한 그분의 부활 후에 영광에 승천하셨을 때 그분 위에 부여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의 속량과 그분의 의의 전가로 우리는 이 큰 존귀함을 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들의 기업의 참여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만드셨다 (골로새서 1:12).

믿는 자들의 이 연합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피이다 (고린도전서 3 장; 에베소서 2 장). 만약 우리가 실제로 있어서 한나라면, 영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 주도록 하자 (빌립보서 2:1-4).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1-6)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뭍고 있는 매듭이 있음을 찬양하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
동족간 생각의 교통은
위에 있는 그것과 같구나.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 헌신적인 기도를 쏟아 붓네;
우리 두려움, 소망, 목표가 하나이니,
우리 위로와 염려라.

우리 공통의 고뇌를 나누니,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
수시로 서로 흘리니
동정의 눈물이네.

우리가 산산이 나뉠 때
우리 안에 고통을 주노라;
하지만 마음 속에 여전히 연합될 것이니,
또 다시 만나길 소망하노라.”

-- *John Fawcett* --

19 장

그리스도의 믿음 과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

갈라디아서 3:22-26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하여 모두 말한다. 갈라디아서 3:19 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시내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특정적이고 지정된 시간의 기간 동안 주어졌음을 말한다. —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약속) 하신 자손(그리스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1 절에서 사도는 시내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어떤 방법으로든 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율법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3:7 에서 제시한 것처럼, “죽음의 직분”이다. 그것은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의를 산출 할 수 없다. —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21).

갈라디아서 3:22-26

22 절 —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 성경 전권과 하나님의 율법의 죽이는 의문은 특정하게 모든 사람, 천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의해 행해진 모든 것은 죄의 권세와 지배와 범죄 사실 아래 있다. 타락한 아담의 모든 아들딸들은 더럽혀 졌고, 죄로 충만하며, 죄가 있다.

바울의 언어는 모든 사람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내포한다. —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 우리 혼의 모든 기능. — 우리 지성의 모든 생각. — 우리 마음의 모든 감정. — 우리 의지의 모든 의도. — 우리 모든 선택. — 우리 모든 행위. —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 모든 섬김. — 심지어,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은 의의 모든 우리 최고 행위. — 모든 것이 죄로 충만하고 오염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가 있으며 사망 선고하에 우리 자신에 소망이 없이 죄인으로 간헐했다고 선포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 생명의 약속은 영생과 구원의 약속이며, 영원한 의의 약속이며, 신성한 호의의 끝이 없는 미소이다.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충만케 하였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그

분 앞에 이제 서게 된 그 복된 의를 가져왔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그 약속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충만케 되었고 우리에게 온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 대속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순종의 조건 위에 약속을 받았던 분은 우리 보증이신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약정의 신실한 충만으로 그 약속을 얻었던 분은 그리스도이다 (히브리서 10:5-14).

23 절 —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느니라.” — 어떤 믿음을 바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가? 이것은 누구의 믿음인가? 당신의 믿음인가? 나의 믿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믿음은 22 절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간헐으며, 복음 안에 지금 계시된 믿음에 간헐다.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운행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에베소서 1:19-20; 2:8-9; 골로새서 1:12). (“그리스도의 믿음”을) 계시하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에 속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행하신 그분의 신실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신다. 사람 안의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 죄가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왔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확신시킨다 (요한복음 16:8-11).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받으면서, 죄인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24 절 —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번역자들이 “우리를 인도하다”라는 말을 강조 문자로 우리의 주의를 이 말이 문장을 더 유연하게 읽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삼입한 것이었고 본문의 원어에는 해당되는 말이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따라서 24 절은 좀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혹은 까지) 우리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자는 율법을 몽학선생에 비유하는 것으로 바울이 의미했던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였을 것이다. 몽학선생은 그의 자녀가 성장하게 될 때까지 보살피고 교육을 맡길 수 있을 종이였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것이 그의 책임

이었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보살피는 것이 그 책임이었다. 몽학선생처럼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신실한 순종으로 율법과 그 만족에 이르게 한 것이 몽학선생이었다. 일단 성취되면 몽학선생의 임무는 끝났다 (로마서 10:4).

이제 율법의 의가 우리 대표자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충만케 되었으며 율법의 공의가 그의 사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으로 충만케 되었으므로 (로마서 4:25),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되었다. 칭의가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의 법정 가운데 공의롭게 될 수 있다.

믿음은 자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린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성취된 우리 칭의를 보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충만한 칭의를 받으며 “우리가 이제 속량 받게 하였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25 절 —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

하도다.” — 믿음이 온 이후로,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더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며, 몽학선생처럼, 모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갖도록 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율법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그것의 만족케 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실 때까지 자녀들의 몽학선생이었다. 일단 그것이 이뤄졌기 때문에 몽학선생의 임무는 끝났다 (로마서 10:4).

26 절 —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 분명히, 그것이 칭의의 경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택정 가운데 행해졌다 (에베소서 1:3-6). 오히려,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우리 칭의의 열매이고 증거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자됨의 열매이고 증거이다 (갈라디아서 4:6-7).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양자됨의 확증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자신 있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포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칭의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우리 체험 외적으로, 우리를 제외하고 모든 것으로, 우리 대속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한 순종)으로 성취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문구,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의 기록에서 일곱 번을 사용한다 (로마서 3:22; 갈라디아서 2:16, 20; 3:22; 에베소서 3:12; 빌립보서 3:9).

우리를 위하여 성취된 칭의에 대하여 그가 언급할 때마다, 그는 이 문구나 그와 동등한 문구를 사용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오직 우리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상태에 있어 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읽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말하는 유별난 방법일 뿐이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번역

그것이 바로 이 문구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수의 해석이 처리하는 것이다. 그 해석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임을 말한다. 이 말, “그리스도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본문의 오역이었다

는 것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그것은 오역이 아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확인하였다. 우리 번역이 옳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영어 번역 (옛 번역인, 구식 King James Version 을 토대로 한 “큰 개선”들인 것) 각각이 이 문구를 오역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 오역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 해석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현대 번역에 의해서 그 문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방법인 것처럼 믿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도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름에 있어서 그런 무모함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분명한 구별

바울이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과 구별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언급할 때, 그 구별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그가 우리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분명하다 (로마서 3:25, 28; 4:5; 갈라디아서 3:26; 골로새서 1:4). 애매모호한 것이 전혀 없다. 이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들처럼 수십 곳의 다른 단락들 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사이를 구별하려 할 때, 그 구별은 대등하게 분명하다 (로마서 3:21-22; 갈라디아서 2:15-16; 3:22; 빌립보서 3:9).

모두 중대함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을 동일한 문장에서 단지 다른 방법으로 두 번이나 표명하지 않는다. 그는 장황하지 않다. 절대 아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계셨던 동안 우리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과다.

우리 신실하신 보증

“그리스도의 믿음” —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

은 아버지의 모든 뜻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신실하신 수행을 우리 언약의 보증, 대속자, 그리고 구속자로 지칭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 구원자의 충절을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을 지칭한다. 그것은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모든 것에 속한 그의 신실한 수행을 언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우리 중보자인 그분의 손에 위탁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신실함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1:12).

믿음과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언급할 때, 그 “믿음”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신실함을 말한다. 그것은 신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과 충절을 말한다.

이런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로마서 3:3-4 에서 보다 분명한 예를 본다. —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분명 그가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 정확함, 그리고 미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번역된 “믿음”은 디도서 2:10 에서 “충성”으로 번역되었다. 거기서, 바울이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신실 하라고 강조했을 때, “선한 충성을 다하라,” 그 말은 “모든 선한 믿음을 보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이다. 우리의 칭의는 성취되었고 영원한 구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어졌다 (마태복음 1:21; 히브리서 10:1-14).

우리의 인척 구속자

룻기에서 묘사되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척 구속자이다. 보아스가 룻이 스스로를 위하여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와 구원자로서 우리 인척 구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받으셨고, 율법에 완전하게 복종하셨고, 영원한 의 가운데로 옮기셨고, 율법의 징벌 아래 죽으셨고, 저주의 나무 위에서 그가 죽으셨으므로 율법의 모든 거룩한 요구들을 만족시키셨다.

구속은, 율법에 기술되고 룯기에서 예시된 것처럼, 구속자 편에 두 가지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구속자는 구속 할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해야 한다. 둘째, 그는 궁핍한 인척의 잃어버린 상속을 되 사기 위하여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충실히 해야 하였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자는 전적으로 구원을 위한 인척 구속자의 신실함에 의존하였다. 룯은 그녀의 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보아스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보아스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찾았다. 그는 그것을 수행할 때까지 안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 죄들의 빛과 형벌은 우리가 탈출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 하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의는 우리가 행할 수 없다. —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행위 중 아무 것도, 얼마나 좋은 의도로 행해졌든지 간에, 얼마나 잘 행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할 수 있고 기꺼이 하실 한 분, 구속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실 수 있고 기꺼이 하실 구속자가 있어야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간의 단계

위로 발걸음을 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신실하게 행하실 구속자가 있어야 한다. “보라, 인자로다!” — 여기 우리의 강력한 보아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4-5).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성취하신 구속과 칭의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리라!

구절들

바울이 이 굉장한 구절—“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용한 그 단락을 보며, 복음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복종으로 얻은 구속과 성취된 칭의—가운데 기뻐하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21-22).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5-16).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22).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9).

대가 없는 구원

“하나님의 의,” 칭의, 영생에 이르는 칭의의 약속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 오지 않고 결코 올 수도 없다. 절대로!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취되었으며 죄인에게 온다 (에베소서 1:11-12; 3:8-12).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구원자를 대가로 한다. 그러나 그가 주시

는 구원은 전적으로 대가 없는 구원이다.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영원 전부터 우리의 보증으로 위탁하였으며 그는 그 위탁에 신실하였다.

실로,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다! 우리 위치에서 우리 대신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분의 신실한 순종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죄인은 모두 하늘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접을 받을 완전한 가치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구원자에 의한 그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골로새서 1:12-14).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고 누리는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다 (갈라디아서 2:19-20).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

이 모든 것이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부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믿음”만큼이나 필요한 전부이다.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

보증이며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는 만큼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씀한다 (사도행전 3:16; 24:24; 로마서 3:25; 갈라디아서 3:26; 에베소서 1:15; 골로새서 1:4; 2:5).

우리는 도처에 있는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호소하며,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것은 납관 싱크이다.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36). 우리는 도처의 죄인들에게 빌립보 간수가 떨어져 사도의 발 아래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외칠 때 바울이 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한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0-31).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당신은 구속과 의와 칭의와 영생을 가졌다. 당신은 그 웅장하게 큰 말 — “구원!”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가졌다. 당신을 위하여 얻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함이었다. 그분 안의 당신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어졌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0-31 에서 처럼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

록된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
이니라.”

20 장

성취된 아들 명분

갈라디아서 4:1-7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1-7)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 의한 선포, “사랑하는 자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들이노라.”에 대한 영감을 받은 해석을 주신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의 우리 양자에 대한 큰 진리와 우리의 양자됨과 관련한 특권을 강조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에 하나님의 백성은 미성년자들과 같아서, 몽학선생인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음 시대에 있는 교회가 나이가 찬 아이들과 같고 성숙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충만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갔다 (로마서 8:21).

하나님의 백성 위에 우리 중 아무도 질 수 없는 율법의 예속의 멍에를 올려 놓으려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했으나, 두려워하는 노예로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로서 섬기게 하려 했다. 여기 그가 우리에게 보인 것은 우리는 더이상 율법의 노예 상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안에 있다는 것이다.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매달리자.

“아무런 천연적인 힘은 만족시킬 수 없네
주를 올바르게 섬기기에는;
또 그녀가 가진 것을 잘못 적용하니,
더 분명한 빛에 대하여 원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율법 아래 놓였는지
노예상태로 비탄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로 한 교훈을 힘써 지켰지만,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애썼네.

그리고, 외적인 죄를 그만두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는데;
이제 만약 내가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느낀다면,
내가 그것 또한 중요함을 느끼네.

그리고 나의 모든 노예 같은 일이 행해졌으니
찬양할만한 의라;
이제, 아들 안에서 자유롭게 택한,
그의 길을 내가 자유롭게 택하네.

내가 무엇을 하리, 그 말이었네,
내가 더 값지게 성장할까?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까?
그것이 이제 나의 질문이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을 보는 것이,
또 그분의 용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한 노예를 자녀로 바꾸니,
또 택함 안에 책무도 있네.”

우리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은 우리가 구원자를 사랑하게 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양자의 영으로 일어난다.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율법적 구속에서 마지못해 행해지는 섬김은 전혀 섬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우

리가 하나님의 권속에 입양된 결과로서 우리 것이 된 특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으로 주께 놀라고 주를 섬기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아들들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오직 종들에게 합당한 노예 상태의 멍에를 우리 자신에게 걸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를 그분의 권속으로 입양하셨으며, 우리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안으로 넣으시고, 따라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신다 (에베소서 1:3-4).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를 아들들로서 받아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름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성을 주신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양자됨은 성취된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쁜 위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버지께서 부어주셨네;
죽을 수 밖에 없는 종족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라면,
나는 자식의 도리를 나누오니,
당신의 영을 비둘기처럼 내려 보내시고,
나의 마음 위에 안식하시네.”

아들, 종이 아니라

1 절과 2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더이상 우리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주인의 자녀들을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 몽학선생의 일이었다. 일단 자녀가 나이에 이르면 그는 그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서, 비록 그가 자녀였지만, 몽학선생에 완전한 순종 아래 있었다. 몽학선생은 불순종 때문에 그 자녀를 종종 벌하였을 것이다.

몽학선생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대표한다.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사람들을 다룬다. 그것은 죽이는 문자이다 (고린도후서 3:6). 그것은 죄의 힘이다 (고린도전서 15:56). 그것은 사망에 속한 직무이다 (고린도후서 3:7).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방법으로 절기를 위해 율법에 순종하여야 한다.

비록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지만, 동일한 것

이 이 복음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로 해당되는데, 율법 (그 도덕 계명)은 유죄의 양심으로 모두 정죄하면서 창조로 모든 사람의 마음 위에 기록된다 (로마서 2:14-15). John Calvin 이 기록하였던 것처럼, “택정한 자들은, 비록 그들이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자유를 소유하게 될 때까지, 율법 아래 노예처럼 남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더이상 이 속박 아래 남지 않는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는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때까지이다.” 율법 체계는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그것을 끝낼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의 마음 속에 오실 때, 아버지께 의해 약속된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기업의 증표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15, 16; 에스겔 16:8, 9, 11, 12; 이사야 42:16).

계시된 소망

3-5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위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소망을 계시하였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녀들이었으나,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녀들이었다. 피상속자가 미성년자인 한,

종의 신분 이상 아무런 혜택이 없다. 비록, 아들로써, 그는 모든 상속을 소유하지만, 그의 자유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와 관리자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3 절).

교회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나옴으로부터 유아기의 상태에 있었다 (호세아 11:1, 3). 구약 교회는 율법에 노예 상태로 두려운 속박 가운데 있었다. 계시된 모든 것이 예표와 그림자와 예언 안에서만 계시되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다. 신약의 교회, 혹은 복음 시대는 성숙한 세대의 교회이다. 우리는 더이상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 받았지만, 본성적으로 노예 상태 가운데 있기도 하다 (에베소서 2:1-3). 바울이, 우리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진노의 대상들, 진노가 가득한 자녀들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식과 진노의 느낌 아래 있었고, 우리 자신의 양심 안에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지배 받고 통제되며, 율법의 위협과 두려움에 의해 지배 받는다 (디모데전서 1:9-10). 우리는 이 세상의 과정을 따라 행보하였다. 우리는 반역과 불신

안에서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으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되었다 (골로새서 1:21).

4-5 절 —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을 양자 삼으셨다. 평안의 결정과 그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아버지께 화목하게 하실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약속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영원 전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확정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자로 나게 하셨으며, 율법에 순종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속하실 수 있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 일단 성취되고 만족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양자된 자녀들이 은혜에 속한 그들의 모든 의로운 유업을 체험하고 누릴 길이 열렸다.

시간의 충만

그 말, “시간의 충만”은 가르침이 충만하다.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영원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설정되어 있었다. 실로,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하여 그분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약속하신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아무것도 그 때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 때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거나 결코 너무 지체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가운데 동의한 약속된 시간에 세상 안으로 오셨다 (창세기 49:10; 다니엘 9:24; 마가복음 1:15; 에베소서 1:10).

역사를 일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오심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동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았다. 후에 그들은 결코 다시는 공개적인 우상숭배로 넘겨지지 않았다. 에스라와 서기들은 성경을 집필했으며 그들을 가르쳤다. 공회가 알려진 세상을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워졌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들을 통하여, 그리스어는 세상의 언어가 되었다. 하나님은 로마제국을 일으키셨고 로마는 도처에 길을 닦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납세를 위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하였던 이상한 세제를 만들었다.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일어

나게 하려고 세상을 준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의 두 단락을 서로 비교해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미가 5:2; 누가복음 2:1-7).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늘에서 보내신 사실은 아들의 아버지와 영원한 선재를 내포한다. 비록 그분이 그 영원한 신격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시고 모두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하여 그분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우리 보증으로 복종하셨으며, 그로써 그분은 그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었다 (히브리서 10:5-14).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도록 보내셨다. 그 동일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아들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려 기꺼이 이곳에 오셨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 4:9-10).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과 영광에 그들 자신을 기꺼이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고무로서 아버지의 뜻에 그리스도의 자원한 순종의 본으로 사용한다 (빌립보서 2:5-11).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인내로 향한 우리 마음을 휘젓는데 사용한다 (베드로전서 2:21-24).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

우리 구속자의 사람의 몸과 혼은 여자에게서 났으며 (창세기 3:15; 요한복음 1:14; 로마서 1:3; 빌립보서 2:7; 히브리서 2:14),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태복음 1:21-25). 성령 하나님은 처녀의 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예비하셨으며 (히브리서 10:5), 그분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든 역사를 행하셨다 (고린도후서 5:21).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권한이 속한 우리 가까운 동족 사람이 되셨다 (레위기 25:24-32; 룻기 4:4; 예레미야 32:7).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그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이 의를 성취하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려고 그분 자신을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 그분은 국가와 의식과 도덕적인 모든 율법 아래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그분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그분의 백성의 의를 세우심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마태복음 5:17-20).

그분의 성육신의 시작부터 그분의 땅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기록, 즉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이유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 책에서 우리 이름에 반대 입장에 있는 기록을 만들고 계셨다.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명들을 지키셨으며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분의 피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망한 자들에게 뿌리심으로, 우리 대속자이신 복된 구원자께서 율법의 징벌을 폐하셨으며,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율법을 성취하셨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생명과 죽음의 빛 가운데 성령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라.”고 선포하신다 (로마서 5:19; 고린도후서 5:21; 로마서 10:4; 사도행전 13:39).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사야 59:16; 63:5; 요한일서 4:10). 그것이 구속 가운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남 가운데서도 동일하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께 오도록 하게 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은 하나님이다.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게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다.

속량하시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 인간의 육신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함이다. 이것은 그분의 의의 중으로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던 것 위이 사명이었다 (요한복음

10:16-18). 이것은 그가 행하려 오셨던 일이었다 (마태복음 1:21; 20:28; 베드로전서 1:18; 디모데전서 1:15). 이것은 우리 보증이신 그분의 아들에게 아버지께 신탁하셨던 것이었다 (에베소서 1:12).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42:4). 그리고 그는 죄하지 않았다. 그분의 모든 백성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에 대한 그분의 한 큰 희생으로 구속 받았다 (갈라디아서 3:13; 에베소서 1:7).

이 모든 것 행해지므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었다.”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비록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에 들어가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의의 근거와 만족된 공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 (로마서 3:24-26).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공의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의 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든지 그들의 미리 예정된 기업을 그리워 할 수 있다. 구속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아들의 명분을 받도록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정하신 자를 위한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보증하였다 (로마서 8:32-39; 고린도후서 8:9).

너희가 아들인고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모든 선택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수혜자로 될 것이며 새로 태어남 가운데 양자의 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6-7 절에서 선포한 것이다 —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선택 받은 죄인들은 그들의 택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됨을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운행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만 알게 된다. 사랑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시고 입양된 그분의 아들들이 아들의 명분을 기쁘게 받도록 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리우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권리를 우리 자신의 양심 가운데 주신다.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1-2).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특권이다. 성도가 되는 것보다 아들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천사들은 성도들이지, 아들들이 아니다. 그들은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속 받고, 용서 받고, 의롭게 되는 것보다 낫다.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되는 것과 범죄를 용서 받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은 큰 은혜이지만, 그들을 아들들로 만드는 것은 다른 더 높은 은혜로운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위대한 권세가의 아들딸들이 되는 것보다 무한하고 더 존귀하게 만든다. 그렇다. 결백한 가운데 아담이 갖고 있지 않았고, 창조에 의해 아들이었으나, 양자됨에 의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들도 받지 않은 존귀를 준다.” (John Gill).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가장 고귀한 지위다. 만약 우리가 아들들이며, 우리는 속박 가운데 있는 노예와 같이 율법의 공포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성장한 아들의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하자. 곧,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대하여 말할 때 의미했던 것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21 장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8-12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8-12).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그의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자인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말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명령으로부터 나온 그 말은 모든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구속력 있는 맹세로 만든다. 그 말 속에서 성령은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의무에 대한 틀림없는 강조를 말한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

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1-5).

바울은 그 말에 있어서 아주 선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서의 혼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신실하였으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입증하였다. 그는 사람의 혼에 조심스러웠다. 그는 전도자의 일을 행하였다. 그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때도 일반적이지 않을 때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류를 범했을 때, 그는 신실하고 인내하였고, 그들의 배교를 나무랐고, 그들의 죄들을 질책하고, 회개하도록 그들을 독려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는 박해 받았고, 비판 받았으며, 오해 받았고, 잘못 전해졌고, 고통 받았으며, 투옥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름에 신실하였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다.

그것이 사역의 일에 포함된 것이다. 어떤 집단에게든 하나님께

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신실한 복음 전도자와 복음이 자유로이 선포되고 담대하게 높여지는 교회이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사회 위에든 내려 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가운데서 모두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 용어의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복음에 있어서 그의 일은 참으로 사랑의 수고였다. 그는 그에게 큰 희생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 되었다. 그의 신실한 수고의 결과로, 복음 교회가 갈라디아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갈라디아인들은 유대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기” 시작하였다. 이 스승들은 사람들의 혼보다 그들의 명성과 명망을 더 관심하면서 그들의 “가려운 귀”를 만족시켜 주었다. 곧, 갈라디아인들은 더이상 사기꾼들의 편에 서지 않고, 바울의 사랑의 책망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혼에 신실함으로 남았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는 이 부서진 마음과 사랑하는 전도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본다.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의 모든 축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완전한 구속,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확신과 하늘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원한 영광.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고 그들의 이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의 바로 그 혼에 간청한다.

한 때의 우상숭배자들

바울은 아마도 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돌리도록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 그분을 위해 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음을 알았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교도들의 우상숭배로부터 구원하셨다. —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8 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자 (고린도전서 6:9-11).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한 합당한 구원의 지식이 없음을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로마서 1:19-20).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쓰여져 있다 (로마서 2:14-15). 그들은 불의 가운데 이 지식을 억누른다 (로마서 1:18).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 가운데 계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로마서 1:21).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므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지하다 (에베소서 2:12). 그들은 사탄에 의해 소경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4:4).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고, 그로부터 그들은 탈출 할 수 없다. 사람은 영적이기도 하고 육체적이기도 한 피조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경배의 대상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너무도 타락하였고 영적인 모든 것에 소경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어떤 창조물로 돌아서서 그것에 경배한다 (로마서 1:25; 데살로니가전서 1:9). 사람들은 그들의 형상을 따라 만든 신을 갖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물질적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관념일 수도 있다. 그런 우상들은 바울이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신들이 아니다.” 사람들의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10:19; 8:4-5). 그것들은 신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교도 우상숭배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멸시하며 사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날카롭게 질타한다. —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9-11 절).

하나님을 앎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결과이다 (이사야 53:11).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으로 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지식은 신약의 약속이다 (예레미야 31:33-34).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요한복음 6:44-46; 1:14, 18; 고린도후서 4:6; 히브리서 1: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고린도후서 4:4-7).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들 갈라디아인들에게 가져왔다 (이사야 52:7; 로마서 10:15).

그들이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은 가르침으로 풍성하다. 바울은 말한다, “너희가 그분의 지식을 얻으려 너희 편에서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너희가 능동적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에 속한 드러난 사실 그대로의 지식 그 이상이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사랑의 영원한 지식이다 (요한복음 10:14; 디모데후서 2:19; 출애굽기 3:12, 17; 나훔 1:7; 요한복음 10:28; 로마서 8:28-29).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은 특정하며 (마태복음 7:23), 구별되고 (로마서 8:29-30), 영원하다. 우리의 그분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 있는 기쁨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분과 함께 시작한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안다.

“천한 초등 학문”

바울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요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부터 율법의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섰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에베소서 1:18).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이런 날카롭지만, 사랑에 찬 질책을 한다. —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은 죄로 충만한 헛된 전통들과, 종교적 사고와 원칙

들로써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법으로 천연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다. 유대 율법학자들과 이교도 우상숭배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복종한다. 그것들은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한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의 시도이다. 특히, 갈라디아 성도들, 율법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주장하였던 유대 선생들에 의해 율법을 지키도록 유혹을 받고 있었다.

바울은 업신여기는 말, 분명 유대주의자들을 마음 상하게 했고 그 말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희망했던 말을 사용했다. 그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경배에 대한 모든 계명에 대하여, 그것이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이제 성취된 것을 말한다.

율법은 약하며, 약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사망의 원조다. 율법은 기쁨을 줄 수 없다. 율법은 평강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위로를 줄 수 없다. 율법은 의를 산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율법은 또한 천하다. 율법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생명을 갖는 그리스도에 비하여 빈약한 것들(음식과 마시는 것과 거룩한 날)를 지키는 것에 자리한다.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은혜와 영광의 부요함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을 섬김은 속박과 의지 경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골로새서 2:18-23).

Martin Luther 는, “복음보다 율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의 고기를 낚아채려 고기를 떨어뜨린 이슴의 개와 같다…율법은 연약하고 가련하며, 죄인은 연약하고 가련하다. 서로 도우려 애쓰는 두 무능한 거지들이다. 그들은 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서로 낚아지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약하고 가련한 죄인은 영생으로 살아나고 부유하게 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0 절). — 바울은 분명 모세 시대에 예시된 어떤 성일과 안식일을 지키도록 유대인에게 요구하는 구약 율법을 가리킨다 (골로새서 2:16).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런 율법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강요하려 했다. 율법적 의식주의와 인간 전통은 종교의 파멸이다. 그것들은 혼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자유의지/행위 종교이며, 본질적으로 율법적이고 의식적이며, 인간의 선택과 행위와 율법의 속박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구원하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만 성령 안에서 자유한 생명,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만 대가 없는 칭의의 영광스러운 자유,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통치되고 움직이며 기인되는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그것에서부터 구원하였다. “다시는 중

의 멩에를 메기”를 거절하며 그분께 언제나 매달리도록 하자.

생명이라 불리우기에 가치가 있는 그 생명을 발견했다면, 왜 누가 율법의 종노릇과 헛된 것으로 돌아가려 그것을 포기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 질문은 물론 과장되다. 그 이유는 분명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Calvin 이 언급한 것처럼, “우상 공장”이다. 그리고, Charles Simeon 이 기록한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속박을 매우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해서 속박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죄는 우리 모든 것을 어리석게 만든다!

바울의 두려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1 절). — 참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일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경의 연구 (디모테전서 4:12-15)와 기도 가운데, 주의 부담 아래 수고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좋은 결코 헛되이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사야 49:5; 고린도후서 2:14-16). 그는 여기서 모세로 돌아가는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효험 있게 만들고자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사를 율법

의 의식과 인간 행위를 섞는 것을 고집했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의 수고가 헛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혼합도 은혜의 실패이고 저주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1; 5:1-4).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절). —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믿는 자들과 우리에게 사랑과 부드러움 안에서, 그들의 타락의 길에서 되돌리고 구원자에 대한 경배와 섬김으로 돌아가도록 호소한다. 그는,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며, 율법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율법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 죽었다고 간주하라. 이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이며 쓰레기로 여기라 (빌립보서 3:7-11).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 그들(이방인)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하였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 그분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분 안에서 구속 받았으며, 그분 안에서 온전하여 졌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그들의 행동으로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을 해롭게 했다. 그들에 대한 그의 느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한 그들의 느낌이 변하였다 (4:16).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께만 매달릴 것을 그는 그들에게 원했다 (갈라디아서

6:14).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개인적인 의를 단념하도록 하였을 것이고, 그로써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므로,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빌립보서 3:9).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지키기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운 복음을 저버린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그들의 “복음” 속에 행위 (자기 구원)를 집어넣고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지만, 그들의 새로운 행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철저하게 확신한다.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믿는 자들은, 내가 확신컨대,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이동시켰음을 행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례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그들이 품었던 믿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등을 돌렸을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음을 필사적으로 부인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유대인 의식을 받아들인 것이 단지 우상숭배이고 그들의 우상숭배 조상들의 인간적 전통과 야만적 종교의식을 받아들인 것과 동일한 것임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의 배척이었음을 결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며, 더 강한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생각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 잘못이며 큰 오류였는지를 그들에게 말했으며, 그들이 그를 오

해할 수 없도록 그런 솔직한 호소로 그와 같이 했어야 했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며 그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 날에 그들의 종교가 모든 종교적 행위와 의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며, 그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어당길 그들의 목에 달린 맷돌처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마태복음 7:21-23). 그들 가운데 우리가 계수되지 않도록 하자 (로마서 4:16; 11:6; 골로새서 2:6, 8, 16-23).

“아무것도,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아무것도, 죄인도, 아무도;
예수께서 그것을 하셨네, 모든 것을 하셨네,
오래, 오래 전에!

그 때 그가, 그의 높은 보좌에서,
행하고 죽으시려 몸을 낮추셨으니,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네;
그분의 외침을 들어라 -

‘다 이루었도다!’ 실로 그렇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죄인아, 이것이 네게 필요한 전부다.
말해보라, 그렇지 않은가?

지치고, 수고하고, 발걸음 무거운 자여,
왜 그렇게 수고하는가?
너의 하는 것을 그쳐라, 모두 이루어졌다
오래, 오래 전에!

네가 예수의 역사에 매달릴 때까지
그저 믿음 만으로,
행위는 죽은 것이다.
행위는 사망 가운데 멈추네!

너의 죽음의 ‘행위’를 던져버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라.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서니,
영광스러운 성취라!”

-- James Procter --

22 장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12-20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있을 때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4:12-20)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종종 양에 비유된다. 목자들은 양을 보살피야 하는 그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자”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 때문이다. 양처럼 그들은 인도받아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종종 미리 설명한 길을 벗어난다. 그들은 쉽게 길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속이기 잘하는 늑대로 인하여 위험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들이 직면하는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며, 옳은 길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넘어지거나, 등을 돌리거나, 혹은 밧에 걸렸을 때 그들을 신실하게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명된 목자들의 책무이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유대주의,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고 있었으며, 자기 의에 대한 사탄의 사자의 밧에 걸려들고 있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의 큰 치욕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던 자의 비통과 고뇌로 이 의지 경배의 교리를 그들은 어리석게도 받아들였다. 바울은 그들의 회개의 도구였으며 그들의 혼을 사랑하였다. 그는 그들의 혼에 신실한 목자였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을 날카롭게 질책하였다. 바울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들의 혼에 신실하였던 것을 사랑하기 보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를 그들의 대적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방해하려 그들이 그를 모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8-11 절에서 그는 날카롭게 그들을 질책하였다. 여기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혼에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여이기도 했던 자로서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는 절박하고 강한 개인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때 그를 그렇게 많은 호의적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전한 복음을 큰 열심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진리로부터 더욱더 멀리 방황하기를 지속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고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록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에 찬 호소를 한다.

“나와 같이”

12 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바울은 그들의 말을 믿음으로, 갈라디아인들을 그의 “형제들”로 지칭한다. 그들은 그의 형제들이 되기를 고백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멀리 되돌아 가버렸고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의 소망은 참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그가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했고 그들을 관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폭정과 속박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다 (갈라디아서 2:19).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율법에 따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모든 모세 의식과

모든 개인적인 의를 영원히 포기할 것을 원했다 (골로새서 2:16-23; 빌립보서 3:7-14).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 그가 좋기보다 더이상 해가 되지 않도록 염려하며, 바울은 조심스럽게 그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고,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와 하나인 것처럼 사랑함을 갈라디아인들에게 보여 준다. 그는 그의 날카로운 질책이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왔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 구절을 해설하는데 있어서, Martin Luth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바울처럼, 모든 목사와 사역자들은 그들의 가련한 방황하는 양 떼를 위한 많은 동정을 품어야 하며, 온유함의 영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올바르게 될 수 없다. 예민한 비평은 회개가 없는 분노와 좌절을 일으킨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참 가르침은 언제나 화합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류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매미가 깨진다.

종교개혁의 시작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들로 존경을 받았다. 갑자기 어떤 거짓 형제들이 우리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증오할 만큼 어떤 잘못된 경우를 주지 않았다. 우리의 갈망이 도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출판하는 단순한 갈망임을 이제 알

왔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다. 무엇이 그들의 우리에게 대한 태도를 바꾸었는가? 거짓 가르침이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 오류로 유혹되었기에, 갈라디아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들의 목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바울의 이름과 가르침은 그들에게 불쾌하게 되었다. 나는 이 서신서가 그들의 오류를 거의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두렵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그의 책망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곡해하여 말하였을 것임을 알았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토록 칭찬하던 여러분의 바울이다. 그의 서신에서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달콤한 이름들을 부르고 있는가. 그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아버지처럼 행동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독재자처럼 행동한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기대하였고 따라서 그가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개인적으로 경멸 속에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이유가 있을 때, 멀리서 그 이유를 변론하기란 힘들다.”

바울은, “나는 너희와 같으며, 너희는 나처럼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나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으며, 그분 안에서 선택 받았고, 그분에 의해 구속 받았다.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동등하게 거듭났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더이상 종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그분의 자유자들이다. 따라

서, 나처럼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들 자신의 혼에 얼마나 해롭게 한 것인지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그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음을 알기 원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거절은 그에게 해를 주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바울이 그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이었다 (사무엘상 8:6-7; 출애굽기 16:8). 그가 이 서신서에서 기록한 것들이 분개하여 쓴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이 그들의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목자로 매이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그들과 하나였던 것처럼 행하였다. 그보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게 되기를 원했다 (갈라디아서 2:20; 6:14; 빌립보서 3:7-10).

“하나님의 천사”

13-16 절 —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가 처음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그를 그들의 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로,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로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백성에게 누구인가 이다. 신실한 목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에게 복음으로써 말씀하시는 자로 (고린도후서 5:20) 그 교회에 하나님의 천사로 묘사된다 (계시록 1-3 장).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제 바울을 적으로 취급하였다.

처음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연약함과 겸손과 박해와 육체적 고통 가운데 전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온 복음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천거되었을 것이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그에 대항하여 격분하였다. 그의 시대의 모든 영향력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달랐다. 그것은 매우 그들의 명예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그들을 칭찬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 칭찬을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에도 하지 않았다.

바울의 약점

그가 그의 육체의 약점을 언급할 때 어떤 육체적 결점이나 육체적 정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 안에서 견뎌야 했던 고난과 고통을 말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약점들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2:9-10 에서 말한다. —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따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는 같은 방법으로 고린도후서 11:23-25 에서 말한다. —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이것들이 그가 그의 “육체의 약함”에 대하여 언급할 때 말하고 있는 고난들이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가 어떻게 언제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거짓 형제들의 손에 위협에 처했는지, 얼마나 그가 굶주림과 궁핍에 고통 당했는지를 일깨운다.

지금은, 믿는 자들의 고뇌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따라서 갈라디아인들을 높이 칭찬하는데, 그들이 그의 고뇌를 못 본 체 하였고, 그를 천사처럼 영접하였다. 우리 구원자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다 (마태복음 11:6).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세상의 비웃음거리였던 분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편 22:7). 그토록 악의적으로 경멸 당하고, 침을 뱉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스도를 가장 부한 자 중의 부한 자들보다, 가장 강한 자들 중 강한 자보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 중 지혜자보다 더 높임은, 그를 “복되도다”고 부르는 것이다.

바울은 그 외적 고통과 내적이고, 영적인 고통도 받았다. 그는 고린도후서 7:5 에서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 —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가 빌립보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훈의 특별한 행위로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며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들은 바울을 경의와 존경과 높은 존중과 존경심과 애정 모두로 받아들였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게 드러졌을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사명과 위임을 받았던 자로서 받아들였다.

그들은 바울을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의 대사로서, 그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분 대신 그들에게 말하는 자로서,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 가운데 사람으로 친히 나타나셨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에게 더큰 존경을 보일 수 없었다. 같

라디아인들은 바울과 그의 약점들을 불쾌한 것들로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너무 기뻐하여 가능하다면 그들의 눈을 땔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에게 집중하였을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침입하기 전에 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와 그를 얼마나 존경하였는지를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그는 그들이 이제 그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을 그들에게 부드럽게 촉구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행복하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죄인들에 주는 복음을 듣게 됨을 너무도 감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을 그들의 귀한 친구로 여겼다. 이제 율법 전파자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등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적이 되었다. 좀더 열정적인 호소가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으며, 노예의 멍에 아래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적으로 취급하였다.

거짓 헌신

17 절 —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 여기서 바울은 가능한 경멸스럽게 그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그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을 육신의 행위로 의를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가르침만큼이나 후대에 전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거짓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유혹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기만적인 아침의 말이었다. 사탄의 사자들은 “공교하고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로마서 16:18).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큰 사랑이 있는 척 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을 위한 사랑 외에 어떤 것으로도 기인하지 않았다. 율법의 의를 진작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척 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의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뛰어난 자를 자랑하며 변명을 늘어 놓으므로, 그들의 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으쓱거리며 말한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은 십자가의 대적들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이며, 그리고 사람의 혼에 대한 대적들이다 (빌립보서 3:18-19).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사람의 혼을 이용하려 한다. 갈라디아의 유대교주의자들은 바울과 다른 참된 사도들에게서 온 성도들을 배척하고 고립시키려 시도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고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 (베드로후서 2:1-3).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갈라디아인들을

그리스도께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일반적 좋은 칭찬을 받으려 한 것이었다. 그 마지막에 그들은 사람의 혼을 기꺼이 파는 것이었다.

18 절 —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너희 혼으로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았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향한 너희의 태도가 변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영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의 영을 받게 된 나나 나의 가르침을 그런 사악한 자들의 악한 영향 때문에 거절해서는 안되느니라.”

바울의 수고

19 절 —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그에게 그리고 복음에 헌신되었지만, 그가 떠났을 때, 그와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애정이 식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버렸다고 그들을 확신시켰던 다른 교사들에게로 등을 돌렸다.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을 수 없다.

“나의 자녀들아” — 바울은 부드럽고, 애정 어린 아버지의 말투로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다. 바울이 소망하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젖먹이들이었다. 따라서, “자녀들아”라는 말은 적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바울의 자녀들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도구였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출산하는 여인에 비유한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고들을 출산 가운데 있는 여자의 고통에 비교한다. 그럴 때, 여자는 오직 한 가지 일만 걱정한다. 만약 살아 있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며 자신의 고통과 고생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염려하고 기도와 전도와 고난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은 구원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로 된다 (베드로후서 1:4). “너희 속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27). 그 율법과 계명과 의식이 있는 종교의 형상은 영생이 아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있는 도덕의 형상은 영생이 아니다. 그 결정과 침례와 신조가 있는 종교적 고백의 형상은 영생이 아니다. 영생

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영생은, Henry Mahan 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와 그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의 임재와 우리 안에 나시고, 창조되고, 형성된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영광”을 소유함이다 (갈라디아서 2:20).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 은혜의 기적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종교는 헛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나를 알지도 않으며 나의 아버지도 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옛날의 바리새인의 종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구원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생명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5:11-12).

바울의 의심

20 절 —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를 원했고, 그의 염려가 쓸데 없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율법 순종과 할례와 안식일과 의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를 두렵게 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고 적는다.

바울이 결코 다른 어떤 회중에 대하여 그런 의심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교회 안에 있던 부도덕성과 분열조차도 사도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그

들의 고백의 순수성을 염려하여 의심을 표출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의의 행위 종교를 받아들이고, 율법의 연약하고 초라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등을 돌릴 때, 그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으며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갈라디아서 5:1-4). 자칭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23 장

두 언약

갈라디아서 4:21-24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갈라디아서 4:21-24)

이 서신서의 앞선 장들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칭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세웠다. 그는 율법은 죄인들이 칭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를 데려오므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누리도록 데려오기 위한 책 전체를 통한 그의 목적이었다. 이제 바울은 성경에 대한 더 깊고 더 충만한 가르침을 진행한다.

두 언약

갈라디아서 4:21-31 에서 바울은 행위와 은혜에 대한 두 언약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비유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또 그들의 어머니들인 사라와 하가를 사용하여,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두 구별된 언약이 두 가지 구별된 원칙으로 역사함을 보여 준다: 육체와 영. 행위의 언약은 언제나 속박을 가지고 오며, 은혜의 언약을 자유를 가져옴을 그는 보여준다. 바울의 말은 결정처럼 분명하다.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구별되고 상호 배타적이다.

이 구절들에서 성경은 새라와 하가의 역사적 관계의 영적 의미를 창세기 16 장과 21 장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준다. 성령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이 두 장에 기록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비유 — 복음 진리의 세상적 그림 — 였다.

“그 기록에 대한 영적 의미를 직접 주신 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릴 수 없을 것이다. 결론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므로,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본성이 그 덮개 아래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두 가지 역사를 읽고 또 읽어야 하며, 두 가지 다른 성격이 성경 안에 천명되고 있기 때문이며, 전체가 세상의 초기 시대에 족장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 흥미로운 회고록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매우 광범위한 참고가 되었고, 사라의 아들 안에서 은혜의 택정을 보여주려 하였고, 종의 여인 하가

의 아들 안에서 사도가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였다 (로마서 11:7). 그 주제에 대한 영적 이해, 곧 하나님께 타고난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였고 (실로 그것은 지금 동일한 신성한 가르침이 없이) 알려지지 말아야 했다.”

(Robert Hawker)

여기 계시된 가르침은 복음에 대한 합당한 이해에 필연적이다. 하나님은 오직 언약 관계 안에서만 사람을 다루신다.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요구되는 조건의 성취 위에 만든 약속이다. 행위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후에 시내 산에서 보다 충만하게 계시되었다. 말하자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은혜의 언약은 영원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많은 약속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 그것은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가운데 충만이 인지된다 (히브리서 7:22).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언약을 가르친다.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동의였으며, 그것은 아담의 후대 모두를 포함하였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조건으로 아담의 생명과 기쁨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 아담이 그분의 계명을 어긴다면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아담을 위협하셨다 (마태복음 19:17; 누가복음 10:28; 호세아 6:7).

은혜의 언약은 성삼위의 인격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영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구원의 합의이다. 혈족이 아담 안에 타락하여야 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아야 할 것이 합의 되었다 (이사야 53:10; 히브리서 8:6).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워졌다. 아담은 타락하였고 이제 그것은 소망 없이 깨어졌다.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와의 위에 영원히 성취되어 세워졌다. 행위의 언약은, “행하라. 아 사람아,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며,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살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한다. 은혜의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죄인은 다윗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사무엘하 23:5).

“나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언약이여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하네;
또 그 견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나는 느끼니
나의 기쁨의 보증이라.

나의 집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아도,
본성으로 갈망할 수 있구나!
본성이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기쁨

당신의 종들이 모두 갈망하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되셨으니,
예수, 나의 수호자, 또 나의 친구시라,
그러니 천국이 나의 마지막 집이라 -

당신의 모든 주권적인 뜻을 받기니,
그 모든 뜻이 사랑임이라;
그리고 당신이 하신 것을 모를 때,
하늘로써 오는 빛을 기다리네.

컴컴한 어둠 가운데 당신의 언약이
하늘의 광선을 내려 주실 것이라,
또 나의 눈꺼풀이 사망 가운데 닫힐 때,
내 희미한 마음을 지키네.”

혼합이 없음

영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은혜는 대가 없고, 영원하며, 무한하다.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피하고 율법에 매달린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은혜의 언약에 비하여 행위의 언약을 선호한다. 어떤 자는 은혜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을 율법과 완전히 섞어 버린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 두 가지 혼합은 은혜에

대한 부인이다 (로마서 11:6; 갈라디아서 5:1-4). 하나님께로 난 자들 가운데에서 조차, 행위를 향한 끔찍하고 사악한 성향이 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확신과 평강의 근거로 어리석게도 우리 행위와 우리 체험과 우리 느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 결과는 언제나 속박이다.

율법과 은혜 사이의 광대한 특징을 만드셨던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두 가지 언약은 동과 서, 빛과 어둠, 불과 물처럼 다르다. 율법은 사망이다; 은혜는 생명이다. 이 구별은 바로 복음의 심장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율법과 은혜, 의와 구원을 위한 나의 어떤 행위와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내가 영접됨의 총체를 위하여 내 대신 누군가 모든 것을 하는 것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는 것이다. 칭의가 은혜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임을 깨닫기 충분한 확실한 시야를 가지자 조차도, 여전히 매우 자주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생각에 속으며, 그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더 영접되게 하려 한다. 어느 정도 우리는 절차와 의식과 선행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로와 은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언약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접되며, 언약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30).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다.

우리가 구원자에게 속한 것을 아주 많이 하거나 그분께 아주 많은 것을 더할 수 없다. 그분은 은혜에 속한 언약의 총합이다. 기록되기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이사야 49:8-9).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보증과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행위의 일시적인 언약 (저주와 사망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속한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히 대체되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함을 고백하면서 율법의 속박 아래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데려가려 하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 많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보았다. 율법에 완전하게 복종하라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율법에 의해 충실하게 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을 한다고 고백한다. 그것이 문제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코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최상의 수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답변할 필요가 있는 질문을 21 절에서 내놓는다. 그것은 단순히 과장된 질문이다. —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 자신을 의롭게 하려 하고, 하나님

게 영접되려 하며,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평강을 구하는 당신은 율법이 정말 뭐라 하는지 듣지 않느냐? 율법은 결코 평강과 용서를 말하지 않으나,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고 선포한다 (로마서 3:19, 20).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와 정죄를 선고한다. 율법은 생명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사역한다 (고린도후서 3:7). 율법은 순종의 충직한 노력이 아니라, 완벽한 복종을 요구한다 (갈라디아서 3:10). 당신은 정말 속박과 사망의 멍에 아래 있기를 원하는가? 정말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가?

Edgar Andrews 는 그 사실을 지적한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기를 갈망하는 너희가, 모세의 성경을 듣지 (유의하지) 않느냐?’ 물론, 의도된 교묘한 속임수는 없다. 바울은 단순히 시내산 율법이 모세의 손으로 기록된 성경의 더 큰 부분, 즉 모세오경을 이루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세의 모든 저술의 상황에서 모세의 율법을 갈라디라인들이 보았다면,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유대교도들의 진입을 거절했을 것이다.”

갈라디아의 유대교도들은, 오늘날 율법적인 행위 떠벌이들처럼, 율법을 매우 편협하게 해석했다. 바울이 다투었던 유대교도들은 복음 시대 믿는 자들에게 오직 십계명과 할례와 선택적인 성일들만을 적용하였다. 오늘날 그들의 추종자들은, 아주 드문 예외로 십계명만을 적용하게 하고, 율법을 그들 자신에게 합당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와 같은 율법의 편협한 해석과 적용으로, 그들은 구약의 내용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특히 모세에 의해 기록된 구약의 다섯 권의 책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보통 “율법서”로 지칭되는 것들을 취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고 듣고 유의하기를 거절한다.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고백하는 한편, 그들은 율법을 파멸할 것이다.

율법의 전하는 바는 복음의 전하는 바 —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 와 정확히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은혜와 구원의 선포다 (누가복음 24:27; 요한복음 5:39; 히브리서 1:1-14). 바울은 22-24 절에서 사라와 하가와 그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신성한 영감으로) 복음의 전하는 바와 행위와 은혜의 언약을 묘사하는 비유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그 경우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두 여인과 그들의 아들들은 단순히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의한 영적 진리의 예표였다. 그들은 행위의 헛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효험을 보여주는 우화 (비유)로서 살고 있었다.

두 아들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22 절).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 (창세기 25:1-4).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은 행위와 은혜의 예시가 되게 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이스마엘은 종, 사라의 시녀, 하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는 종일뿐이었지 상속자가 아니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자유한 여인이었으며, 가족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어졌던, 사라에게서 났다. 그것이 이삭을 자유자이고, 아들이며, 상속자로 만들었다.

바울은 율법에 매인 자는 모두 노예들이며, 계집 종 하가의 영적 후손됨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사용한다.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영적 후손들이다. 하가와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관계 덕에 모든 것을 소유하였던 사라와 그 아들 이삭에게 속한 특권 중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려는 것임에도 단지 종들이다. 그들이 의를 따를 지라도, 그들은 “의의 법을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9:31-10:4).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없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비록 아브라함이 나이가 든 남자이고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자

궁이 수태할 수 없는 나이든 여자였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13:16; 15:4-6). 모든 것이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였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창세기 15:6; 로마서 4:18-22). 그러나, 해가 지나고 그들이 더 늙어갔기에, 점차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결코 태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사라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냈다. 그녀가 제안하였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동의하였으며, 그것으로 주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들 자신의 노력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사라는 그녀의 하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하루 밤 동안 그의 첩으로 내어 주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와 사람의 판단을 혼합하였고, 따라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육체의 지혜가 신성한 계시의 표면에 흘렀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부인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집 중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23 절)라 말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셨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이스마엘, 입에 있는 한 끊이지 않는 고통과 문제를 일으켰던 종을 산출하였다. 그것이 정확히 율법과 은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육체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를 혼합하려 시

도하는 모든 자의 오류이다. 인간의 노력 (율법 순종, 종교적 의식, 선행, 결단 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 모든 시도는 실패로 가는 멸망이고 오직 속박과 문제를 산출한다.

이삭은 반면에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고 “언약으로” 낳았다 (23 절). 그는 육신으로 잉태되거나 천연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았다. 그의 아버지는 거의 100 세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90 세였고 불임이었다 (로마서 4:19). 그들은 단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이삭이 천연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것이 가능했다면, 아무런 믿음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런 의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낳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아들 (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줄 여자의 씨)을 주실 것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로마서 4:20-22).

약속의 씨가 되므로,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표이고 그림이었다 (갈라디아서 3:16-18). 그의 출생은 또한 새로 태어남의 예표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처럼 “그 영을 따라 태어난다” (갈라디아서 4:29). 우리 구원자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6) 라고 하셨다. 새로 태어남은 육체의 역사가 아니라, 그 영의 역

사,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으며, 도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언약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에스겔 36:25-27).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거듭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다 (로마서 8:17).

“이삭은 자연의 일반적인 질서와 과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잉태와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 덕분이며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와 호의 덕분이었다. 약속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예표이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약속의 자녀들은 후손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과 권세와 은혜로 거듭났으며, 약속에 따라 은혜와 영광의 상속자이며, 그들이 율법에 속하고, 그 행위에 속하면 그렇지 않다.” (John Gill).

비유

24 절에서 사도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이 역사의 사건들이 단지 그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예시로 일어난 것을 이해하기를 뜻하지 않았다. 신성한 영감으로, 그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로 일어났으며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려는 계획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들이 일어나게 하고 창세기에 기록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행위의 옛 언약과 은혜의 새 언약 사

이의 구별의 그림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두 언약 사이에 일정한 구별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동산에서 행위의 옛 언약을 세우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셨다. 새 언약, 은혜와 약속의 언약은 그리스도, 우리 보증이고 언약의 보증인 분과 함께 영원 가운데 세워졌고 (히브리서 7:22), 시간 가운데 갈보리에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비준되었다 (히브리서 9:11-28).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이고 다윗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의해 예언 가운데 언급되었다 (시편 89; 예레미야 31; 에스겔 36; 참고. 히브리서 8:10-23; 10:16-22).

율법과 행위의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모든 책임을 지우셨다. 그것은 아무도 지고 갈 수 없는 짐이었다. 새 언약 안에서 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 위에 책임의 모든 무게를 올려 놓으셨으며,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만 완전히 책임지시도록 하셨다. 우리 보증이시고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의 전체와 우리 구원의 전체를 그분께 맡김으로, 주 하나님께서 구속과 은혜의 전체 역사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다 (에베소서 1:3-14; 로마서 8:28-30).

생명과 은혜, 구속과 평강의 이 새 언약은 비록 처음 맺어졌지

만, 가장 마지막에 제시된 것이었다. 영원 가운데 맺어졌지만, 그것은 언제나 새롭고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새 언약”이라 부른다. 율법과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 명령하셨고 그분의 언약을 그가 여기는 날에 그가 분명 죽을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죽음으로 위협하셨던 창세기 2 장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은 타락 이후 창세기 3 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여자의 씨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분의 타락한 자녀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심지어 언약이 결백한 희생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그 죽인 희생의 가족으로 옷 입힘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것인지를 묘사하셨다. 이 은혜의 언약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안에서 더 큰 충만으로 점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성취되었음을 본다.

계집 종의 자녀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행하려 하면서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사이에, 모든 믿는 자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다윗과 함께 노래하며 자유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대가 없고, 흠 없고, 변치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기뻐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하 23:5).

“다윗의 주이고 또 우리의 주와 함께,
언약이 한 번 맺어졌으니,
그 매인 자들은 확고하고 확실하네,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 않을 것이라;
성삼이일께서 서명하셨네
서로 사랑하심 가운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구한 언덕처럼 확고하니
이 언약은 허락하네,
그 강한 확신과 뜻이
모든 축복을 보증하네;
파멸이 모든 자연의 틀을 흔들 때
그 일점 일획도 그대로 있네.”

24 장

하가와 사라

갈라디아서 4:25-31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꺾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25-31)

바울은 창세기에 기록된 사라와 하가의 이야기가 비유임을 천명하였다. 21-24 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들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성경 안에 계시된 두 언약을 상징함을 보여 주었다. 이스마엘은 행위(율법)의 언약을 상징하고 이삭은 은혜의 언약

을 상징한다.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두 언약의 차이점을 보여주며 그 비유를 계속 설명한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두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들은 두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두 예루살렘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4:25).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만 있다. 행위와 은혜의 종교다. 한 체계는 구원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행한 것에 의해 얻어진다고 선포한다. 다른 쪽은 구원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 두 체계는 여기서 두 예루살렘에 의해 상징된다.

하가는 시내산을 상징하거나, 그 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인물이다. 하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고 주어진 언약을 상징한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계집 종이므로, 그녀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처해 있던 속박 상태를 상징했다. 그들은 그 때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죄와 사탄과 세상과 그 정욕에 대한 도덕적 속박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법적 속박 상태, “종의

멍에”에 있었다 (갈라디아서 5:1). John Gill 은 그들의 상태를 매우 분명하게 기술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몽학선생 아래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다. 그것들은 할례나 그들이든 그들의 조상들이든 견딜 수 없었던 멍에였으며, 그것이 그들이 율법 전체를 지키도록 속박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과 그들이 봉헌해야 했던 많은 제물들은 여전히 죄를 없앨 수 없으며, 죄의 식의 짐에서 그들의 양심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다만 그들을 향한 계율의 기록으로서, 그들의 죄와 유죄를 선포하며 드리는 모든 제물과 자신들을 위하여 희생된 그 짐승들처럼 죽기에 합당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의 율법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어김은 사형의 벌을 받을 뿐이었으며, 그 두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노예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또한 도덕법에 대하여 속박되었으며, 그 법은 그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였으나, 행할 힘을 주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의 치유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완전한 의를 요구하였으나, 그 완전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지 않았다. 율법은 평강이나 위로의 말한 마디보다 오히려 모든 반대가 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율법은 회개를 용납하지 않았다. 죄에 대하여 기소하고, 그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였으며, 그에 대한 죽음으로 저주하고 정죄하고 위협하였으며, 그 모든 것

이 그들을 계속적인 노예상태로 있게 하였다.”

비록 예외가 있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도록 했던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의 노예 상태를 심화시켰다. 그들의 복종은 고용된 복종이었지, 아들의 순종이 아닌 노예의 순종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순종이 아니라 공포의 복종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지 않든지, 노예 상태에 있다. 하가는 지리적이나 정치적 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상징하였으나, 그것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종교 체계, 자기 의, 행위의 종교를 상징하였다. 바울은 여기서 행위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영적 속박 안에 사는 사람을 낳게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가는 모든 율법 종교, 모든 자기 의의 행위 종교를 상징한다.

사라는 반면에, 모든 참 종교를 상징한다. 그녀는 은혜의 언약을 상징한다. —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4:26). 여기서 바울은 우리 중보자이고, 대표자이며, 죄 속량 구원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의 언약을 기술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시내산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언약 가운데 제시되고 주어진 의는 그분의 순종이지, 우리의 순종 안에서 보여진 것이 아니다. 구속은 그분의 희생과 만족이지, 율법 순종과 종교적 의식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을 통해서이지, 세상의 제사장

직분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접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0:10-22). 이 언약은 율법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며 모든 믿는 자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머니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포용한다는 의미 안에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은혜에 속하여 태어났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9).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은 언약의 은혜로 산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함에 있어서 동일한 비유를 사용한다. 그는,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6 사

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교회가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것은 그 이름이 평강을 표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하에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평강의 자녀들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으며 평강으로 부름 받았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린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언약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며, 위대한 왕의 왕궁이고, 하나님 경배의 장소로서 함께 짜여 있으며, 요새화가 잘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 안에서 교회의 그림과 우리 하나님의 왕궁으로서 있다.

하가와 사라가 두 특징적인 아들을 낳았으므로 (노예와 상속자),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두 특징적인 나라 (노예자의 나라와 자유하게 태어난 아들의 나라)를 낳았다. 누구든 동시에 두 나라에 속할 수는 없다. Edgar Andrews 는, “우리는 동시에 율법과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행위에 속한 열매 없는 종교에 매인 채 땅에 속한 예루살렘의 자녀이거나,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노예이든지, 아니면 이삭처럼 상속자이다.”

종노릇

바울은 하가는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한다”고 말한다. 이 종노릇이 무엇인가? 어떻게 율법으로 인하여 의를 구하는 모든 자가 종노릇으로 빠져들었나?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종노릇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종노릇 가운데 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지만,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한다. 율법은 사람이 보상을 위하여 행할 것을 요구하나,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다. 율법은 죄에 대한 의와 만족을 모두 요구하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산출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지 않게 하는 것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으며, 완벽함을 요구하는 율법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레위기 22:21; 갈라디아서 3:10). 하나님의 의에 무지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 그들 자신의 의를 이루려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9:31-10:4).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그칠 수 없다. 그들은 끝없는 종노릇과 노예로 멸망 된다.

죄인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행위든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는 감옥이다. 다시 Edgar Andrews 의 말을 인용하면, “심지어 행위가 ‘믿거나,’ ‘신뢰하거나,’ ‘위임하거나,’

‘행복하는’ 것을 요구 할 지라도, 이것은 진리이다.” 그런 것들은 할례, 안식일 준수, 고행과 순례 같이 진짜 ‘행위’이다. 율법은 죄인에게 은혜를 위해서 행하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가 대가 없이 온다고 선포한다. 선행은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른다. 선행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2:8-10).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신다.

율법주의의 종노릇이 단지 행위로 정당화하는 의를 찾는 자들만 가리킨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그것은 그들 자신의 행위로 성화 가운데 의와 거룩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사실상, 그것이 정확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3 장과 4 장에서 다루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1-3, 10). 성화는 칭의 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없는 은사이며,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누린다 (고린도전서 1:30-31; 히브리서 10:10, 14).

참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무지로 인하여 종노릇으로 자신을 넣을 수 있으며, 이 서신서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책의 여섯 장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가 본 것처럼 믿는 자들인 갈라디아인들을 다룬다 (3:1-3, 26-29; 4:6-9; 5:7-10, 13; 6:1). 그는 그들을 거짓 가르침, 행위의 의라는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럽게 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된 믿는 자들

로 그들을 여겼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구하며, 죄에 대항하려고 애를 써 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9-11, 19-20; 10:31).

자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4:26).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약속의 언약 위에 기초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새 언약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기록된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4:27).

바울은 여기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지속적인 확장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의 성취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이 구원 받을 때까지 약속함에 있어서 이사야 54:1 을 인용한다 (로마서 11:26-27).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지 못함이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불능이 하나님께서만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든 우리에게 구원을 맡겼다면,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 (로마서 5:20).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이 가득 사는 성이 될 것이다 (계시록 21:10-17).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4:28). 믿는 자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되었고 드러졌다 (에베소서 1:3, 4; 요한복음 6:37-39). 이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적으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1:12, 13; 에베소서 1:19-20; 골로새서 2:12).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8:16, 17).

이 은혜의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언약의 층만 가운데 하나님으로 났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더이상 그 요구나 징벌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율법이 없는 사람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 율법, 그리스도의 통치와 율법 아래 있다 (고린도전서 9:21; 갈라디아서 6:2).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 (예레미야 31:31-33).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기를 받는다 (고린도후서 5:14).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실로 자유하다 (요한복음 8:36).

박해자 이스마엘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4:29).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약속의 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은 행위로 인한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율법 속박의 멍에 아래로 되돌리려 하면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중상하고 박해한다. 행위에 의한 구원과 은혜에 의한 구원은 상호 배타적이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에 의해 위협을 받았듯이,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로 위협 받는다. 그는 이삭이 행한 어떤 것에 의해서 위협을 받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유자로 태어난 아들로 살았던 단순한 사실로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어떤 것으로 위협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박해하지 않는다.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에 속한 자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유자로 태어난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로 위협을 받는다.

이스마엘은 버려짐

은혜와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 배타적이다. 따라서 바울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4:30). 이것이 아브라함에 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창세기 21:10-12). 육체의 자녀, 아브라함의 행위의 열매인 이스마엘은 그를 낳았던 어머니와 함께 내쫓겼으며, 아브라함에 의해 쫓겨났다. 하나님은 참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행위와 은혜의 어떤 혼합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서 11:6).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의 누더기 천 조각을 던져버려야 한다. 행위 종교는 우리 교회들에 의해 버려져야 한다. 우리는 결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5:11).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다. 행위로 의를 구하는 자, “반은 그리스도이고 반은 육체체인 자들, “반은 은혜이고 반은 행위” 옹호자들은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4:31). 율법과 은혜의 혼인은 있을 수 없다. 믿는 자들은 혼혈이나 잡종이 아니다. 우리는 대가 없는 은혜의 자녀들이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의 상속자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25 장

은혜의 복된 자유

갈라디아서 5:1-12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의 복된 자유, 은혜의 자유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기를 촉구하며, 우리가 그 자유를 결코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주셨던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붙잡고, 지키며,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그 자유는 너무 보배로워서 잃어버리거나 당연히 여길 수 없다.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자유이다. 모든 믿는 자, 모든 구원 받은 죄인, 모든 하늘로 난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4:31)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복된 자유 안에서 계속하여 굳게 서 있어야 한다.

1 절에 있는 바울의 권고는 2-4 절에서 주어진 권고들보다 더 압력을 주는 주장으로 촉구하는 것일 수 없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역사를 그들 자신에게 의미 없게 만들었으며 은혜로부터 함께 타락하였다 (2-4 절). 행위 구원은 단순히 교리적 오류가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심각한 거부이다. 그것을 품는 것은 “다른 복음”을 품는 것이다 (1:6-9).

자유하게 됨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 절).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자유케 지키시는 분도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 죽음에까지 순종하심과 새로 태어남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은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분은 의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보증과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은혜의 복된 자유 안에 우리를 지키신다. 하지만,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과 그분을 계속하여 신뢰하는 것과 율법의 속박의 고통스런 멍에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1. 그 자유는 율법의 속박에서의 자유이다.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사실은 더이상 강조하여 천명되고, 신약 전체를 통하여 있는 것보다 더이상 지속적으로 천명될 수 없다. 믿는 자들에게 관련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대하여 죽었음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고 선포한다 (로마서 6:14-15; 7:1-4; 8:1-4; 10:4; 갈라디아서 3:24-25; 골로새서 2:8-17; 디모테전서 1:8-10). 신약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을 하도록 율법에 의하여 동기를 부여 받는 다는 것을 찾을 단 하나의 단락도 없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4). 아니다. 그분은 율법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것을 성취하셨으며, 그것을 완성하셨으며, 마침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도록 지어지셨다. 이제, 그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확히 동일한 의미 가운데 아주 동일한 정도까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갈라디아서 3:13-14)와 율법의 정죄(로마서 8:1)와 율법의 언약(갈라디아서 4:24-31)으로부터 자유하다. Martin Luther 는 이렇게 썼다. “죄와 사망 대신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율법의 종노릇과 두려움을 양심의 자유와 복음의 위로로 바꾸셨다.”

구원이 은혜로써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할례와 절기와 희생제물과 모든 견디기 힘든 모세 시대의 육체적 절차와 의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도덕적 율법의 통치(십계명)를 의식법과 도덕법을 나누려 헛되이 시도하면서 우리 위에 부여하려 애쓴다. 그와 같은 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법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려는 자들은, 그것들이 양립한다면, 의식법의 모든 육체에 대한 계명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고 또한 요구할 것이다. 희생제물이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서가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라. — 민수기 28:9-10).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맘대로 범하라는 것을 제시하거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며 믿는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반역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건 데,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율법의 멍에와 종노릇과 저주와 지배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 — 아 행복한 상태라!
예수께서 피 흘리셨으니, 사함이 있구나.
율법으로 저주받고 타락으로 상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셨도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니 — 정죄함이 없도다!
예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도다.
‘내게로 오라’ — 아 그의 달콤한 부름을 들어보라!
오라 — 그러면 모두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 아 영광스러운 부름이여!
분명 그의 은혜가 우리를 타락에서 지키실 것이다.
그의 부르심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니,
복된 구원이네 —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 Philip Bliss --

2. 은혜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우리는 율법의 존재로부터 자유하지도 않고, 율법의 내주함으로부터 자유하지도 않으며, 율법에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하지 않고, 다만 율법의 통치와 저주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다 (로마서

6:11, 18; 요한일서 3:5).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을 그리스도께 씌우셨으며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그대신 그분을 벌하셨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그분의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없애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죄가 되게 하셨던 그 어떤 자에게도 결코 죄를 입히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말한다 (로마서 4:8).

3. 이 자유는 생명의 자유이다.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이다 (에베소서 2:1, 5-6; 베드로전서 1:23-25; 계시록 20:6). 첫 번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영광의 참여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던 만큼 확실하게, 그분이 마지막 날에 생명과 불멸의 우리 몸을 살리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3-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우리는 “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로마서 8:2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자유와 함께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가 온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파멸하셨다. 하나님의 택정한 모든 자가 혈과 육의

참예자 였으므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 할 사람이 되셨다. 우리 대표자에게서 그분이 우리 본성 안에서 사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대한 신성한 공의의 주장을 만족하게 하기란 불가능하였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위에 있는 사탄의 권세와 무덤의 권세를 파괴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정복자 이상이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없앴으므로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사람을 사망 가운데 괴롭게 하는 것은 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 받았다. 그분의 피로 우리 죄들은 씻음 받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 안에서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1-5).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 말라. 죽는 것은 용서받음이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짐”은 결코 정말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요한복음 11:26).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사망과 정죄의 판결에 우리를 종노릇 가운데 잡아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 3:13).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

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4). 그는 정죄하려는 율법의 권세의 마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 안에 어떤 믿는 자 위에 정죄를 내릴 아무런 율법적 주장이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주장을 만족시키셨다. 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7:4; 8:1-4).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특징을 바꿈으로써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끔찍한 일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종류의 사망도 공홀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큰 축복이다. John Trapp 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은 다만 영원한 빛의 여명이다. 죄의 징벌이 아니라, 죄의 기간이다. 그것은 영원의 문을 여는 튼튼한 짐꾼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가는 거친 경로이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그들 앞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의 거만한 요르단을 가로지르기를 두려워 해야 하는가? 그 사실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알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1:25-26).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것은 단지 위치의 변화일 뿐이다. 사악한 자에게 죽음은 공의의 처형이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죽음은 슬픔의 시작이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감이다. 반역자에게 죽음은 감금이지만, 믿는 자

에게 그것은 자유다.

4. 은혜의 자유는 아들의 명분의 자유이다.

더 나아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향한 자유로이 나가게 하셨고 (히브리서 4:16), 복음의 계명의 자유로이 사용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을 사용할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훈계이다 — 행위 종교의 어떤 체계로 당신을 누구든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9-10).

굳게 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라.” 바울은 여기서 전장에서 쓰는 말을 빌어 사용한다. 그는, “너의 진지를 지켜라.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유는 지속적인 공격 하에 있다. 노예의 치욕과 고역과 족쇄와 비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를 종의 멍에 아래로 되돌리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의 노예의 멍에이다 (갈라디아서 2:4). 율법에 종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

은 견딜 수 없는 멍에 하에 있고 (사도행전 15:10), 그들 자신의 복종으로 의를 헛되게 좇는 정죄를 받았다. 그들은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한다. 주 예수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가 그분 안에서 그들의 혼의 안식을 찾게 될 것이라 확신시키시며, 죄인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도록 부르신다 (마태복음 11:28-30).

여기 타락하고 파멸된 유죄의 죄인들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그리스도께 오는 것 외에는 받을 구원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와서, 우리 주와 구원자이신 그분만을 신뢰함— 우리의 유일한 속량으로서 그분의 피와 우리의 유일한 의로써 그분의 순종을 신뢰함— 을 제외하고 우리 혼을 위한 어떤 참되고 평안하며 만족스런 안식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지친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9-30). 삶의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주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와 지배에 순종 함으로서만 우리 혼에 안식을 찾는다. 안식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멍에 아래 우리 목을 기꺼이 밀어 넣는 것이다. 우리가 할 때와 오직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멩에가 진정으로 쉽고 그의 짐은 진정으로 가볍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장담하건대, 당신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멩에를 당신에게 지우고, 당신의 혼에 안식을 찾아라. 그분의 은혜의 멩에를 그분께 당신의 주로서 엮드리며 당신 위에 지라 (누가복음 14:25-33).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복음의 멩에를, 당신의 선지자이신 그분께 엮드리며 당신 위에 지라 (예레미야 6:16). 그분의 섭리의 멩에를 당신의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당신 위에 지라 (시편 31:1, 5, 7, 15). 오직 이런 방법 안에서 우리는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복음의 부름은 안식으로의 부름이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복된 안식으로의 부름이다. 구약의 안식일이 가리키고 예표 하였던 것은 이 안식이다. 구약 안에 있는 안식일 법에 관련한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그 안식의 필요와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4:9-10). Edgar Andrews 는, “그것은 그분과 함께 죽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행하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며,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 되는 것이다... 사로 잡힌 상태에서

풀려난 새는 산 위로 자유로이 날아 오르고, 땅 위를 날아다니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그 방랑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 따라서 역시 자유롭게 된 혼에도 한계가 없다. 자유롭게 탐험하는 것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이다 —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됨이’ 자유롭다 (에베소서 3:18-19).”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2 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구원자로서 신뢰받아야 한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이든 더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가장 확고하게 의로운 의무들이라 할 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에 더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개선하려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 더한다면, 그것이 할례이든 침례이든지, 성경 읽기든지, 기도든지, 교회 출석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이든지 더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만으로 그리스도를 충만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교만한 자기 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으신다 (로마서 10:3).

빛진 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3 절).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 실행으로 어떤 정도든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지 않으며, 따라서,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켜야 할 빛진 자이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서 4:21).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0).

은혜에서 떨어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 절). 그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따라가라. 기록된 그 대상과 무슨 이유를 위함인지 기억하라. 바울은 그들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얻으려 하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그들의 행위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가 직접 말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인한 구원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편, 모두 그로부터 떨어져나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떨어졌으며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된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일단 구원 받았지만, 이제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결코 은혜 가운데 참되게 행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은혜 가운데 행보하는 척하였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은 결코 믿음을 갖지 않았다. 행위와 은혜는 상호 배타적이다 (로마서 11:6).

“아무것도, 크든지 혹은 작든지;
아무것도, 죄인도, 아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하셨고, 모두 하셨다,
오래, 오래 전에!

그가 높은 보좌에서,
행하고 죽으려 몸을 낮추셨을 때,
모든 것이 충만이 이루어졌다;
그의 외침을 들어라 -

‘다 이루었도다!’ 실로 그렇다,
모든 기록이 이루어졌다.
죄인아, 이것이 네게 필요한 전부다.
말하라, 그렇지 않은가?

지치고, 수고하고, 발걸음 무거운 자여,
왜 그토록 수고하는가?
너의 행하는 것을 멈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오래, 오래 전에!

예수의 역사에 네가 매달릴 때까지
단순한 믿음으로,
행함은 치명적인 것이다.
행함은 사망 가운데 마치니라!

너의 치명적인 ‘행함’을 던져 버려라,
예수의 발 아래 던져라.
그분 안에, 그분 안에만 서 있으라,
영광스럽게 완성하라!”

James Procter

26 장

의의 소망

갈라디아서 5:5-6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5-6)

바울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칭의가 대가 없고 완전하며, 우리 자신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완전히 별개로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이,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보여 주었다. 이 장의 시작 절에서 그는 이 의를 아는 모든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에 속한 복된 자유 가운데 굳게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자유는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하신 순종과 죽음으로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완전하고 온전한 자유이다. 그분의 교회의 위대한 머리와 보증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그 축복된 자유를 소중히 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자. 그분은 우리의 보증이고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의 모든 요구에 답하셨다. 그분은 모든 죄에 대한 우리 빛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징벌을 받으셨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대한 신성한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되었다.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분은 율법을 확대하셨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사야 42:21). 의와 구속에 대한 그분의 성취하신 역사의 기초 위에, 그분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사야 49:9)하신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15).

“따라서, 하나님의 전체 교회와 그 교회의 개개의 혼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 받았다. 범죄 사실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의 고소로부터, 양심의 경고로부터, 불신과 타락한 상태의 마귀의 전체의 모든 행렬로부터 구원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거룩한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하나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과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스스로 기쁘게 되심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 관점에 포함되고,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전히 죄인들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거룩하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은 바 된다” (에베소서 1:6).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5).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여전히 죄인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간다. 새로 태어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창조 하셨지만, 우리의 옛 아담에 속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옛 본성은 모두 거룩하지 않다.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죄의 공격을 느낀다. 우리는 내적 부패의 무게 아래에서 신음하고 슬퍼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전쟁 중에 있어 왔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내적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뻐하나, 우리가 선한 것을 하려 할 때 우리에게 악이 존재함을 계속하여 발견하며,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 (로마서 7:14-23).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 인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내적 부패로부터는 자유케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 죄들로 인한 징벌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죄의 비통으로부터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정복자 이상으로

만드셨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우리 지체 안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사악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체험을 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악함의 가혹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율법의 공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죄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록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한일서 2: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는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자유이다. 기록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17).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축복의 영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이다.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대가 없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의롭게 되었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이루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을 확신에 차 기대한다 (로마서 4:25-5:5).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5 절).
—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권능과 운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가 아니라 하늘이나 영원한 기쁨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영의 영향과 증거 아래에서 믿음으로 믿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이다.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가져오게 된 하나님의 의를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확신시키는 책무와 역사를 가진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6:8-11). 그가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성취되고 가져왔으며,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들에게 전가된 의와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순종으로 완성된 심판(정죄)에 대하여 확신시킴으로 마음 속에서 믿음을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상상 속의 의를 없애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확신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복된 자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오시고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선택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육체에 속한 모든 소망을 벗어버리기를 기뻐하며 “주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멈춤으로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확신으로 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16:14 에 있는 구원자의 말씀의 의미이다. —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의의 소망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 바울이 여기서 “의의 소망”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와 의가 앞으로 소망할 어떤 것이라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온전하여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2:9-10). 전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인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역사되었으며,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계시되고 적용되므로 복음 안에서 계시되었다. 그것은 아버지께 의해 우리 위에 놓여졌고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의 현재의 소유인 것이다. 기록되기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11).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30). 하나님 앞에서 의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의는 우리가 미래에 갖기를 소망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의”라고 불리며, 믿음이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원한 영광의 확신하고 갈망하며 확신된 소망과 기대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유인 그 완전한 의로 우리에게 확증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지게 하신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속한 우리의 기업에 대하여 확신한다. 사실상, 성령은 스스로가 그 기업에 대한 인침과 서약이다 (고린도후서 1:21-22; 에베소서 1:13-14; 4:30).

우리 소망의 유일한 근거와 기초와 확신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운 자 말고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임을 안다 (계시록 21:27).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공의의 근거 위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몹시 기다린다. John Gill 은 이렇게 적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확실하고, 실질적이며, 확고하고, 실질적이고, 가치 있고 기다릴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소유되었을 때 궁극적인 기쁨과 함께 있을 것이며,

풍성하게 만족하게 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게 되며, 적어도 그 가운데 유익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그 위에 두며, 그것과 비교하여 시간과 느낌에 속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바라본다.”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6 절). —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이 “할레”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의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시도하는 모든 것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비록 할레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었지만, 그 의식 절차를 지킨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을 행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가 모든 의를 성취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순종과 죽음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아무 효험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에서 완전히 떠났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무지하여,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며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복음의 복된 주장의 달콤한 의미를 아직 알지 않았다.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3-4).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에서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 믿는 자 각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주신 그 믿음,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 가운데 널리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운행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고린도 후서 5:14). 이것이 그 영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22-23).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보인다. 믿음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에 도달하여 그 성향을 통제한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다. 그것은 온유와 애정 가운데 체현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율법에 기초한 (행위에 기초한) 모든 종교는 마음을 차갑고 단단하게 하며, 판단하고 비정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 추종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웃게 하면서, “너는 제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사야 65:5)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알게 하며, 그들을 사랑 가운데 그들 자신보다 그들의 형제를 더 중하게 여기게 만든다. 믿음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 은혜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용서하고, 동정심이 있도록 만든다. 야고보가 그것을 말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의 생명의 법이다.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더이상 두려움의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그로써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외친다.” (로마서 8:15).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아무것도 자유처럼 헌신을 일으키지 않는다. 완전하게 기쁜 자녀를 찾아보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자녀를 보게 될 것이며, 가볍고 쉬우며 기쁜 일들처럼 그 책무를 바라보는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비통한 자를 찾아보면, 모든 책무가 그에게 쇠사슬 같은 자를 보게 될 것이다. 율법은 속박이고 사망이다. 은혜는 자유이고 생명이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 만약 당신이 율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달리 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8).

27 장

이스라엘의 요동케 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5:7-12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7-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다. 그것은 그분의 의와 평강의 왕국이다. 하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서 가져가고 그들을 어떤 외적인 대상이나 의식에 고정함으로써 그들의 평강과 기쁨을 파괴하려는 모든 힘을 다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어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요동케 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부패하게 하는 영향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진전과 예배를 훼방하는 자들이다.

구약의 교회는 그런 요동케 하는 자들이 많았다. 내 생각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자는 그 사악한 왕 아합이다. 어떻게 아합이 그의 유아적인 투정과 지속적인 죄로 이스라엘을 계속적인 혼란에 있도록 하였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그들을 여호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행한 행위를 경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에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두셨고, 그들을 그분의 교회의 위로와 보호와 교훈과 보존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 거룩한 옛 선지자가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경이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자처럼 용맹스러웠다. 그는 의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엘리야와 아합의 대면에 대하여 만날 때, 무신론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요동케 하는” 자로 혐의를 두었다는 것을 읽고 놀랍지 않은가? 실로, 이것이 언제나 그랬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놀랄 것이다. 그들의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언제나 맞선 자들이고, 진리의 길을 떠받힌 자들이며, 성도들의 평강을 훼방하는 혐의를 그들에게 씌운 자들이다. 따라서 아합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혐의를 씌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세에게 혐의를 씌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혐의를 씌웠다. 하만이 모르드개에게 그렇게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그렇게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하여만 유일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약 안에서 교회에 대하여도 사실이였다. 신약 가운데 이것의 몇 가지 예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예시된 것에 대한 이 연구 가운데 우리 생각을 국한 시킬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열심이였고, 자기 희생적이며, 성공적이였다. 하지만, 그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모순과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았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다.

이들 이스라엘의 요동케 하는 자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 갈라디아로 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음의 사실에 직접 반대가 되는 어떤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상 바울이 가르쳤던 것—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장사되었고,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음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은혜의 말씀과 함께, 이 거짓 교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던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앗아갔다. 자유자로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 드

리는 대신, 그들은 율법에 매인 종으로서 유대 달력의 “달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도록”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과 율법적 지위를 버티고 많은 사람을 그들의 신념으로 속이기 위하여, 그들은 바울 자신이 이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을 말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단락에서 오늘 저녁 바울은 이스라엘의 요동케 하는 자와 그들의 율법적 가르침을 비난하고 있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지도해 왔으며 그들의 오류로부터 그들이 회복하도록 그의 확신을 표출하였다 (10 절). 그러나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정죄한다.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실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확실하게 지게 될 것이다 (10 절).

경주에서 방해 받음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와 주로 영접했던 때의 그의 생각으로 네 번이나 돌아간다 (1:8-9; 3:2-3; 4:9, 12-15). 그러나 어떤 자가 그들의 경주를 방해하였다. 그는, 7 절에서, “너희가 잘 경주 하였도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누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도록 방해하였는가?”고 묻는다.

바울은 특징적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유명한 지협 주민의 경주

와 비교한다 (고린도전서 9:24; 빌립보서 3:13-14; 디모데후서 4:7-8; 히브리서 12:1-4). 경주에서 우리를 재촉하는 증인들의 군중이 하늘에 있다 (히브리서 12:10). 이들은 우리 보다 앞서 간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우리 앞에 놓인 일련의 일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로다. 경주는 인내를 갖고 끈질기게 달려야 한다.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앞서 경주를 달리셨으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종국에 우리에게 관을 씌우실 것이다.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22).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1-4)

갈라디아인들이 처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그

들은 잘 달렸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확고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 뒤를 따라 들떠서 달렸으며, 복음 진리의 옛 경로 안에서 달렸다 (예레미야 6:16). 그러나 그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그들의 경로를 차단당했고, 저지 당하였다.

“누가 너희를 막더냐?” — 바울과 복음 안의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격려하였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였다. 그들을 막았던 자들은 다름 복음으로 그들을 돌리게 하고,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거짓 교사들이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의, 완전하고 대가 없는 칭의의 의와 그리스도에 의한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질문은 진정한 미사여구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게 되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히브리서 12:14)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갈라디아인들을 방해하는 방법이 되었던 행위 주의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여 말하고 있다. 그의 목적은 율법주의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오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8 절). —

갈라디아 믿는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하며, 무력한 죄인들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며 그리스도께 나왔다. (고린도전서 1:30). 그들은 율법의 계명에 그들 스스로 순종함 가운데 의를 구하며 율법으로 돌아섰다. 누가 그들이 그와 같은 큰 실수를 범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확신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셨던 성령이 아니었다. 그들을 방해하였던 자들은 스스로를 빛의 천사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의의 전도자들로 변화시키는 사탄의 사자들인 거짓 사도들이었다 (고린도후서 11:2-3, 13-15).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의 속박으로 그들을 매었던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복음의 경로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없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8 절). — Edgar Andrews 는 이렇게 썼다. “어떤 권면인가? 분명히,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주장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을 부르신 분).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지, 결코 사람들의 행위나 종교적 준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Andrews 교수는 계속하여 말한다
...

“여기 가장 가치 있는 시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가르침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 믿음이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기 진리의 두 기둥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두 기둥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가르침을 지탱하고 지지한다. 교리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독실하게 보여도, 다음의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 그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만들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2. 그것이 사람의 활동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가?

그것이 구원 안에, 경배 안에, 섬김 안에 혹은 하나님을 위한 삶 안에 있는 가르침이든 아니든, 그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면 유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갈라디아인들이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에 이 시험을 적용한다면,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완성되고 충만한 속량의 역사로부터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것을 곧 깨달았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 그는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옮겨 내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는 것을 계속하신다. 율법은 의심과 공포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이 섬기도록 강권하신다. 율법주의적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의 부름에 유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름에 유의하라.

“매일 매일 그분의 달콤한 음성이 들리네,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아, 나를 따르라.”

적은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9 절). — 행위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대답한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전체 율법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구원이 우리가 율법에 복종하는 것으로 온다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믿는 자들이 율법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참 의 안에서 살려는 모든 자들은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와 같은 모세의 의식의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그것에 반대하는 누구든지 음란함을 조장하는 자임에 틀림 없다.” 그런 것에 대해 바울은 약간의 오류는, 특별히 은혜로 만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의에 관련하여, 반죽 덩어리에 있는 누룩과 같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모든 것에 급속히 퍼지고, 전체 복음을 오염시키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헛되게 만든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복사가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 하라” (마태복음 16:6). 바울은 동일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약간의 타락한 원칙들이 진리의 몸 전체를 타락하게 한다. 율법주의 누룩이 이미 갈라디아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들이 그것에 붙게 되어 진리를 포기해 버리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4:10-11). 몇몇의 타락한 사람들이 회중의 몸 전체를 타락하게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5:6). 따라서, 그들은 절대 피해야만 한다 (롬 16:17). 이 거짓 교사들은 허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당신 안의 확신

바울이 10 절에서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는 모든 자에 관한 것임을 들을 수 있다. —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는 그들에게 날카롭게 말했지만, 일단 그들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얼마나 철저하게 부합되지 않는지 보았다면, 그들은 율법주의와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모두 버렸을 것이다. 그는 그들 가운데 은혜로운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행하실 것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오류와 사악함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저버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한 심판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악한 유대교주의자의 저주스런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확실한 보존에 대하여 확신하는 만큼, 그는 다른 복음, 행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균등하게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었다. —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0 절). 그리스도의 교회를 오염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와 앞으로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16-17).

십자가의 거치는 것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11 절). —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이중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들은 한 곳에서 바울이 할례를 전하고 (그는 디모데가 편의상 할례를 받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의롭게 되거나 더 영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회유할 소망 가운데 (작동하지 않았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 (사도행전 16:3).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의 복음에 반대하는 그들은, 의를 진작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자들에 대항하여 고소를 꾀부으며, 대가 없는 은혜를 전하는 그 어떤 자라도 죽이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는다.

바울의 반응은 단순하고 핵심을 지적한다. 그는, “만약 내가 할례 (율법 순종)를 전한다면 왜 너희 율법 교사들이 잔인하게 나를 반대하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행위를 주창하는 자들에게 걸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반대하였다. 타락한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들의 구원자이며, 우리 의이신 주이고, 우리 죄 속량의 대속자임을 가르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자기 의를 다치게 하는 것 —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이심이라는 복음의 분명한 계시 —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임 —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는 그분 안에서 모두 온전하다는 것에 반대한다.

베어 버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2 절). — 사도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베어버릴 것을 갈망하였다. 그것은 그가 말한 것과 같다. “나는 이런 너희 혼의 선동자들, 요동케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 했던 것처럼 강박 관념에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거세하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인들을 뒤집고 있었던 유대교주의자들이 약간의 육체 절단이 영적 가치에 속하여 있으니, 따라서, 그

들로 하여금 심지어 좀더 근저에서부터 자르도록 하라. 키벨레의 이교도 제사장들처럼 되게 하고 그들 스스로 고자가 되게 하라.” 그는 유대교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모두로부터 배어지기를 원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진실한 사랑의 행위였다. 바울은 오히려 전체 회중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기 보단, 몇몇의 타락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고통 받게 하였을 것이다. John Gill 은 이렇게 썼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과 관련한 사도의 확고한 원함이든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이다.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사는 땅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더 많은 해악을 행하지 않도록 한다. 그가 말한 이것은 그들 개인들에 대한 증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선을 위한 염려로부터 한 것이다.”

28 장

“더욱 탁월한 방법”

갈라디아서 5:13-15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13-15).

이 구절들은 6 장을 여는 구절들로 연장되는 매우 중요한 단락이다.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복된 자유 가운데 그 영 안에서 행보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필요하고, 분명하며, 특정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이 자유가 사랑의 자유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믿는 자들이 구원 받은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다.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이 지속적으로 끌려들어가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피해야 할 악들이다. 그 하나는 율법주의의 무시무시한 악이다. 다른 것은 음탕함의 동일하게 무시무시한 악이다. 둘 다 육신의 악한 산물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인들에게 이 서신서의 더 큰 부분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율법의

속박의 억압하는 멍에 아래로 놓으려 시도해온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와 자기 의와 오만함을 드러내고 질책하는 일에 할당했다. 이제 그는 음탕함의 주제로 돌아 왔다.

그것이 가장 현저할 때, 율법주의는 음탕함을 산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상한 역설처럼 보일 것이다. 역설적인 추측은 그러나 자기모순이 아니다. 율법주의는 적의, 반목, 이단과 중상의 어머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적이었던 자가 있었던가? 그는 하루 세 번 기도하였다. 그는 일 주일에 두 번 금식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 그는 율법적 도덕주의자 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보다 더 음탕한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였다. 그는 구원자께서 모세의 율법과 시저를 대적하여 말하도록 술책을 쓰려 하였다. 간음 행위를 한 여인이 사형선고를 받도록 데려왔지만 그들의 동료 바리새인들을 고소하지 않은 채 그의 천막에 남겨 두었던 자들이 종교적 율법주의자들 무리였다.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은 주 예수를 죽이려 돌을 들었다. 그들은 영광의 주 예수를 그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따라서 바울이 그토록 강력한 율법의 정죄에 넘어지게 한 음탕함에 대항하여 확고한 경고를 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허가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는 사랑의 복된 자유다.

더 나은 길

바울은 복음의 탁월함을 보여 주었다. 그는 죄인들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나무랐다. 그는 일단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의롭게 되면, 그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지도 않고 온전하게 되지도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는 3 장에서 질문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3).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입장은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의 결과이지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이제, 누구든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1-22 를 보라). 바울은 음탕함에 대하여 확고한 경고를 제시한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가 음탕함이 아니라, 사랑임을 말한다. 우리는 모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자유롭다. 믿는 자들은, 비록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중상의 고소를 퍼붓기를 좋아하지만, 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의 육적인 법에 따라 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율법에 따라 산다.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고린도후서 5:14). 율법주의적 의무는 결코 율법을 성취할 수 없으나, 그러나 사랑은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 아래로 옮겨졌다. 그리

스도의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법이다. 율법주의는 결코 할 수 없으나, 사랑은 율법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가 산출하는 쓰디쓴 반복을 막는다.

이것이 바울이 “더욱 탁월한 방법”이라고 부른 것이다 (고린도 전서 12:31-13:13). 사랑은 기독교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이다. 그 영의 열매는 사랑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하늘의 기쁨은 사랑이다. 땅의 평강은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방언은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은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선언과 존속과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랑을 반사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광경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천국 같은지,
주를 사랑하는 그들이
서로의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또 그분의 말씀으로 너무도 충만할 때.

각각이 그 형제의 한숨을 느낄 수 있을 때,
또 함께 한편을 나누네;
슬픔이 눈에서 눈으로 흐를 때,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기뻐하네.

질투와 경멸과 교만에서 해방될 때,
우리의 바램 들은 모두 위에 있으니,
각각이 그 형제의 잘못을 감출 수 있네,
또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네.

사랑이, 하나의 기쁜 흐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가슴으로 흐르니;
또 연합의 달콤함, 또 소중한 존경이,
모든 행동에서 빛나네.

사랑은 매는 황금 사슬이니
기뻐하는 혼이 위에 매이네;
또 그는 하늘의 상속자라
그 가슴이 사랑으로 빛을 발하네.”

“자유로 부름 받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 절).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진 복된 자유에 대하여 듣거나 읽을 때마다, 그들의 생각에 적신호가 즉시 올라간다. 우리가 성경의 말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며,” 그로써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그런 복음

선포가 거룩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음탕함 가운데 살도록 인도할 것이라며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험박과 보상으로 지배 받고 행동한다고 알고 있고, 그들의 종교가 용병의 의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사실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자유에 속한 자들을 확신시키기를 거부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없애 버려라! 그 대신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충고를 우리에게 한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즐기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유를 이용하지 (혹은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그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그들의 관계,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자유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갈라디아의 행위 주창자들은 그들의 교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3:21). 그들은 모세 율법의 통치가 아직도 유효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의미하다고 가르쳤다 (갈

라디아서 5:1-4).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를 자유로 부르심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일깨운다. —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는 율법에 의한 정죄와 죄로 인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포함한다 (로마서 8:1).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육체적 계명과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골로새서 2:16-23).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억압적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로마서 6:14-15; 7:4; 10:4).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 영접되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6-7; 히브리서 10:19-22).

“육체의 기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부정하고 사악한 본성은 너무도 비열하고 사악하여 선함 가운데 격려를 음탕하게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음탕한 것으로 본다. 복음 안에서 계시된 은혜에 속한 달콤하고 복된 가르침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택정, 영원한 사랑, 대가 없는 칭의, 죄에 대한 무책망, 변치 않는 은혜, 절대적 보증, 등.), 비록 모든 참된 거룩에 대한 그 근원과 감화일지라도, 믿지 않는 종교인들에 의해 부패하게 되고 오용되며 악을 위한 텃개와 변명이 되게 한다. 이것이 우리 거룩한 구원자께서 증오하시는 니콜라당의 교리다 (계시록 2:14-15).

여기에서 바울의 언급은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이다. 믿는 자들은 더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로마서 8:9),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로마서 8:12-13). 하지만 육신, 육신의 옛 본성은 우리 안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항하여 전쟁 중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본성은 거둬나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악을 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바울의 충고를 필요하게 한다. 우리는 육신에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오용하면서,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자유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악한 정욕들에게 길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 모두에게 치욕스러운 것이므로, 오히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디도서 2:10).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마다 오용되거나 육체의 기회로 이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 형제를 상하게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Edgar Andrews 는, “이 자유를 옛 본성에 빠지려는 핑계로서 사용하는 것은 관점에 있어서 모순이다. 그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인데, 자유와 무법은 격렬한 적들이지, 친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 충만한 인간 본성이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꾀들이나 동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디모데전서 6:3).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자유가 있으나,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6:12). 그리고 우리 자유는 결코 더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될 만큼 억눌려서도 안 된다 (고린도전서 8:9, 13). 우리는 사람의 선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지 (고린도전서 9:12, 19:22; 고린도전서 10:23, 24, 31; 11:1), 우리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 복음의 자유와 성도들의 섬김은 나란히 간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가족 관계,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희생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서로를 섬길 것을 가르친다. 신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선한 행위는,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헌신적이며, 거룩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서가 아니라(그것은 이전의 바리새인들의 실행이다.), 친절과 사랑과 긍휼의 행위이다: 아버지 없는 자와 고통

받는 자를 방문하고, 냉수 한 컵을 주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것 등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통한 그들의 순례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자. 그것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에 동정하며,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참으며, 오래 참아야 하고, 서로를 향하여 인내하고, 친절하며, 온화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존중함으로써, 서로를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여야 한다 (빌립보서 2:1-4).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진 빛이다 (로마서 13:8). 만약 우리가 사랑함에 대하여 더 열려하면서 사랑 받는 것에 대하여 덜 열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개, 다툼과 분열, 시기, 악의, 그리고 불화로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애착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 속에 넓게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라는 위대한 예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요한복음 13:13-15; 에베소서 4:32-5:1; 요한일서 3:16-17). 그분은, “나는 섬기는 자

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했다 (누가복음 22:27).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7).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셨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부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요한복음 13:4-5). 선지자는 메시아를 종이라 불렀다 (이사야 42:1; 50:4-11; 52:13-53:12).

이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깊은 애정이지만, 그러나 애정보다 더한 것이다. 사랑은 헌신이며, 자기 희생의 온유함이고, 순수한 관심이며, 도울 준비이다. 그것은 대가 없고, 동시에 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William Hendriksen 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경고할 때, 그는 이기주의에 대항하여 섬김을 두고 있는 것이다…악덕은 오직 그 영의 선물인, 사람의 책임이란 덕에 의해 정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구원자여, 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키며,
또 보살핌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로,
비탄 중의 나를 면케 하시는 가운데,
나를 관대하고 온유하게 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소서 보여줄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심으로, 구원자여,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생명을 내려 놓도록 도우소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성취된 율법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4 절). — 바울은 하나님의 감화로 전체 모세의 체계를 하나의 계명으로 축소한다.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3:9).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율법의 그와 같은 관점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율법이 되게 하고 삶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방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크게 마음 상한다. 아무것도 진리에서 더 멀어질 수 없다. 사랑의 법은 복음의 새 계명이다 (에베소서 5:2; 데살로니가전서 4:9; 야고보서 2:8; 베드로전서 1:22; 요한일서 3:23; 4:21). 이 사랑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내주하시는 그 영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22; 요한일서 3:9-24). Henry Mahan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과 관련해서 하기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말씀 안에서 ‘사랑’을

모두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7:12).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개인적인 처신과 행동을 통제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곳에서 나의 공개적 처신을 통제한다. 사람이 올바르게 사랑하든, 그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더이상 무엇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오직 이렇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내가 곤란이나, 위험이나, 어떤 종류의 필요 안에 있을 때, 나는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환영한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가르치는 지침서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빛비춤 받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누가복음 10 장의 율법사처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이며, 그 대답은 그 질문에 이은 우화에서 주어진다. 나의 이웃은 누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누가복음 10:25-37).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그러나 우리 책임 (우리 사랑의 큰 특권)은 믿음의 권속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우리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10).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떤 방법이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가 나를 증오하고 나의 적일지라도 나의 이웃이다 (마태복음 5:43-48). 나의 이웃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말만 많이 하며 그들이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주 보기 드문 것이다. 사랑은 느낌과 감상과 감정 그 이상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해야” 한다. 사랑은 단지 사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선하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10).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가능한 방법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의 짐을 지며,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 나는 그의 결함과 약한 점들과 무지를 참고, 모든 것에서 그와 함께 오래 참게 된다.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인내하지 못할 자를 인내하며,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비열한 영을 가진 자에게 친절히 한다. 사랑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게 만들고 부모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녀들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며, 남편이 잔소리하는 부인에 대해 인내하게 하며 아내는 완고한 남편에 대해 인내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나는 그를 사취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그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의 잘못과 약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서 선한 행위들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서 말씀하실 바로 그것들이다. 그것들은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들의 참 가치에 그것들을 가능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것들이다.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은 선한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의 승인을 받고, 갈채를 받는 의식 절차와 제전과 성일과 복식과 음식에 관한 법과 금식과 다른 셀 수 없는 것들임을 헛되이 상상한다. 그들의 종교는 길거리와 시장 터 종교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종교적 율법과 관습에 속하는 외적 의무들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동안, 그들은 폭력과 증오로 가득 차있다.

질투와 증오심으로 인하여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자들이, 그들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려,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하였던 (요한복음 19:31) 그 사실 속에서 말고 이 무시무시한 율법주의 영에 대한 더 큰 예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신약은 물론 구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두시는지 보여주는 사례들로 넘쳐난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음식이 없어 비록 율법이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였지만, 진설병을 먹었다. 우리 구원자의 제자들이 주를 따르면서, 우리 안식일이신 그분 안에 안식하면서, 옥수수 이삭을 뜯어서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은 율법의 안식일 법을 어겼다. 주 예수 그분 자신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볼 수 있었음에도,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안식일을 어기셨다. 이 모든 것에

서 우리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공활을 위하여 부르셨지, 희생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님을 배운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라고 촉구한다. 그는 그들과 우리에게, “만일 당신이 선행을 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귀하게 하려 한다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세상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가 행위로 온다고 가르치시는 자들은 결코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 절). —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 “만약 너희가 비판적이고, 용서하지 않고, 불친절하며, 비꼬고 다툼으로 가득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과 평강을 파괴할 것이다. 사랑은 우리를 함께 묶고 평강 가운데 함께 살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접합제이다.” (에베소서 4:1-7; 골로새서 3:12-14).

갈라디아 교회 내에, 오늘날 수도 없는 교회들 안에서처럼, 많은 다툼과 분열, 험뜯음과 중상, 비꼼과 질투가 많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5 장의 상황에서 15 절에 있는 경고를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이 악의 근원이 율법주의와 자기 의의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한 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율법을 사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일단 율법의 명백한 의무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 속에 성취되었다며,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자신을 그들 위에서 심판하는 자로 올려 놓는다는 사실이다.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런 육체의 정욕을 성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공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죄인됨을 알며,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피와 의인 죄인임을 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안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형제 자매들을 존중할 것이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할 것이다.”

바울의 경고를 듣고 유의하자. —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곳의 사람들과 그곳의 교회 지체들은 들짐승들처럼 서로에게 달려드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다툼과 분열은 언제나 육체적이고 경건치 않다 (고린도전서 3:3). 양을 물어뜯고 게걸스럽게 먹는 개와 늑대들을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양이 서로 물어뜯고 먹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잠언 6:19) 주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이다. 다툼과 분열은 교회의 평안을 파괴한다 (고린도전서 3:17).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르게하고 (에베소서 4:30)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함이다.

이 15 절에 관하여 네 사람의 글에서 인용된 것이 있다. 각각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통찰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인하지 않고서 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면, 사나운 짐승들처럼 되고,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시키며,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 주시기를 거부하는 것 외에 무엇이 기대될 수 있으며, 사랑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야 할 것이며, 그들의 파멸을 찾는 악한 영이 만연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Matthew Henry)

“다툼과 투쟁과 언쟁과 비방과 굳고 불의한 말을 무는 것은 사람들과 마귀들의 외부로부터의 모든 공격보다 더 속히 산산조각 낼 것이다.” (G. S. Bishop).

“동일한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상호 파멸을 위하여, 자진하여 함께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미친 것인지!” (John Calvin).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허물어질 때 평강과 하나됨은 교회 안에서 끝나고 만다. 교리와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충돌들이 일어나고,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물어뜯고 파멸시키는, 즉, 그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서로 정죄한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과 모든 시대의 체험이 증언한다. 현재의 많은 교파들은 한 교파가 다른 교파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이르렀다. 그 영의 하

나가 잃은 것이 되었을 때 교리나 생명에 동의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오류들이 측량할 수 없고 끝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화를 피하기 위하여 바울은 원칙을 제시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생명의 정거장에서 그의 의무를 하도록 하라. 아무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수고는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도록 하라. 모두가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도록 하라.” (Martin Luther).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축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를 향한 우리의 처신으로 평강의 매임 안에서 그 영의 하나를 지키도록 노력하자 (에베소서 4:2-3).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경멸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비통하게 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도록 하자 (에베소서 4:30-5:1-2).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것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다른 사람이 평강 가운데 행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기를 고집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의 유익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단지 그들을 피해야만 한다 (로마서 16:17; 데살로니가후서 3:6, 14-15).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의 지혜로운 가르침의 말씀을 한번 더 읽고 그 말씀의 감동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당신 마음에 그것들을 은혜롭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라. — “형제들아, 너

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29 장

내 혼의 가장 큰 혼란

갈라디아서 5:16-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16-17)

믿는 자들은 두 가지 구별되고 나누어진 싸우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육체와 영.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옛 본성을 혁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택정하신 자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신다. 우리의 예전의 아담에 속하여 타락된 죄로 충만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육체는 영으로 억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영은 육체를 상대로 전쟁을 치른다. 그러나 결코 육체를 정복하거나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육체는 죄로 충만하다. 육체는 저주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의 이중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바울의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이부분과 로

마서의 7 장과 요한일서 3 장을 바울과 요한 모두가 모든 믿는 자 안에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옛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으로서 나고,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의만을 행할 수 있는 새 의로운 본성 모두가 있다고 가르친 것에 대해 결론짓지 않고 정직하게 해석하기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성화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옛 본성의 개선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새롭게 지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성숙이다.

모든 믿는 자는 그 본성의 이중성을 고통스러운, 쓰디쓴 고통의 체험으로 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든지 그가 모든 것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신속히 답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크게 갈망하는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내적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뻐할지라도, 당신의 지체들 속에는 당신에 대항하여 전쟁하는 또 다른 악의 법이 있다. 선행을 하려 하겠지만, 그러나 악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존재하므로, 따라서 당신은 하려는 것을 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의 선에 속한 최선으로 고상하고 가장 신실한 행동일지라도, 정직하게 평가할 때, 동기와 실행에서 죄로 손상 당하므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내 모든 의가 불결한 천 조각이다!”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삶에 만족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다른 어

편 것보다 더 육체와 영 사이의 이런 전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곧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내려 놓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

“내가 이르노니.” — 악을 향한 우리 육체의 끔찍한 성향을 극복한다면, 미친 개처럼 서로 물어 뜯고 파멸시키는 것을 피한다면, 우리는 죄를 흔들어 깨울 뿐인 율법의 육체의 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운 법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 이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삶은 종종 여행에 비유된다. “행하다”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살다”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된다 (마가복음 7:5; 로마서 4:12; 6:4; 8:1). 바울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예수가 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영접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 영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언과 간증을 갖고 있다 (히브리서 11:5-6; 요한일서 5:10-13; 에베소서 1:3-6).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1-4에서 선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

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 바울은 육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것이라거나, 육체의 정욕이 더이상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행하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성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확실성으로 천명되었다. 믿는 자들은 육체의 악한 명령으로 살지 않고, 그 영의 은혜로운 통치에 따라 산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로 천명되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 성령의 영향으로 우리 자신을 양보하는 것을 자기 수양과 자기 부인으로 다룰 수 있다면 육체의 정욕을 성취시키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 만약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이 통치 받는다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바울의 주제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믿는 자에게 있는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Edgar Andrews 가 “율법과 육체가 은혜와 그 영에 대항한 공모자들이다.”고 그는 우리

에게 말하고 있다.

육체와 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나니.” — 그가 여기서 사용한 것처럼, “육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죄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담 본성의 옛 사람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은 부패의 내적 본질, “육체적 생각”이다 (로마서 8:7). 육체는 육 체이고, 그 외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죄로 충만한 육체이다. 그것은 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영”은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한 내적 본질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가리킨다. 이것이 “너희 안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27). 이것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난 거룩한 것들이다 (요한일서 3:9).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 그들은 적들이다. “육체는, 혹은 옛 사람은, 육체의 나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그 영에 대적하 거나 혼 안에서 은혜의 본질인 육체적인 것들을 뜻하고 선택하고 갈망하고 사랑한다…그 영이나 새 사람, 영적인 나는 부패한 본성에 대적하는 것들인 영적인 것들을 뜻하고 선택하고 갈망 하며 인정하고 사랑한다.” (John Gill). 그들은 빛과 어둠 혹은 불과 물처럼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대항하여 계속하여 전쟁을 한다.

육체는 언제나 그 영에 대항하고 그 영은 육체를 대항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믿는 자는 완전하게 선한 것을 하려 한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 없는데, 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의 옛 본성은 죄 밖에 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에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그 영은 육체가 그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을 막는다 (로마서 7:15-17, 22, 23).

두 군대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표현된 비탄의 노래다 (6:13). — “술람미 속에서 네가 무엇을 보겠느냐? 그것은 두 군대의 무리였구나.” 그녀는 말한다. “내 안에 충돌과 혼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두 군대가 전쟁 중입니다. 만약 나를 바라본다면, 맹렬한 전투를, 악과 싸우는 선을, 어둠과 싸우는 빛을 볼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대항하여 갈라진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되고 정확한 묘사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가, 우리가 이 육체의 몸 안에 살고 있는 한, 속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겪으며, 육체와 그 영 사이에 지속적인 충돌을 경험한다. 이 충돌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고통과 혼란을 초래한다.

이 내적 충돌은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실제이다. 믿는 자의 삶

은 모두 달콤하지는 않다. 모두 기쁘고 평안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고통과 많은 혼란과 많은 눈물을 야기하는 어떤 쓰디쓴 충돌을 가져 온다. 이 육체와 그 영 사이의 다툼은 하나님으로 난 자 모두에게 충분하리만큼 분명하다.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종교주의자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운 궤변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슬픈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완벽한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를 통하여 이 충돌의 흔적들을 보게 된다 (1:5; 3:1; 5:2).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이 내적 충돌을 본다 (시편 42; 43; 73). 로마서 7:14-25 에서 다뤄지고 설명된 것과 여기 갈라디아서 5:16-18 에서도 그것들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은혜의 체험 속에서 이 끔찍한 내적 충돌을 본다.

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동일한 다툼을 가져왔다. John Bunyan 은, 그가 “거룩한 전쟁 (The Holy War)”이라고 제목 한, 그의 마음과 혼의 충돌에 대한 책을 썼다. Richard Sibbes 도, “혼의 충돌(The Soul's Conflict)”라고 부르는 유사한 책을 썼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속에서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닮아가고 연합하게 하는 의로운 본성이

있다. 이 선과 악의 두 가지 세력 사이에는 평강이 없다 (요한 일서 3:7-9).

두 가지 본성

이 충돌은 거듭남으로 야기되고 시작한다. C.H. Spurgeon 은, “죄의 통치력은 사람이 회심되는 순간 사망에 떨어지나, 그러나 죄의 싸우는 힘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 하지만 옛 본성은 뽑히지 않았다.

옛 본성이 거듭남 안에서 죽거나, 심지어 그것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한 순간도 생각하지 말라. 육체는 육체이고, 결코 육체 외에 어떤 것도 아닐 것이다. 노아, 롯,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모든 믿는 자들처럼, 이 사실과 싸워야 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의 정직한 시험을 넘어서서 속에 두 가지 전쟁중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가 필요 없다. 우리 최선의 생각들은 죄와 함께 부패하였다. 우리 가장 뜨거운 기도는 육체의 정욕으로 더럽혀졌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육체 욕망으로 부패하였다. 우리 가장 영적인 예배가 속에 있는 어둠으로 훼손되었다. 우리 가장 거룩한 동경이 혐오스럽다. 우리 구원자를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은 자아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도 부패하여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거의 부를 수 없다. 때때로 우리는 쓰디쓴 체험으로 찬송의 진실함을

모두 발견했다...

“방황하게 되니, 주여, 내가 느끼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네:
여기 내 마음이 있으니, 아 받으시고 인치소서,
위에 있는 당신의 뜻을 위해 인치소서.”

나의 소망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선택 받았으며 (예레미야 1:5; 31:3), 그리스도보혈로 구속 받았고 (갈라디아서 2:20; 고린도 후서 5:21),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났음을 (에베소서 2:1-4) 당연하게 확신한다. 이런 것들은 내게 큰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준다.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은혜를 통하여 선한 소망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그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확신과 확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확증을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요한일서 5:1, 12-13; 히브리서 11:1).

“나의 소망이 아무것 위에도 세워지지 않으니
예수의 피와 의 외에 없다네
가장 달콤한 구조를 감히 신뢰하지 않으니,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에만 기대하네.”

하지만, 내 혼 안에는 끔찍한 싸움이 있는데, 내 영 안에서 괴롭히는 시험과 내 마음 위에 무거운 짐이다. 나는 새 마음과 새 의지, 새롭고 하늘로 향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창조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의와 복종을 바라고 구하는 본성이 창조되었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것들을 할 수 없다.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악이 내게 존재하는 내 지체들 안에서 율법을 발견한다. 불신자들의 가장 모독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경멸할만한 부정과 범죄와 죄를 내 혼 안에서 발견한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기도라고 부르는 내 기도 가운데 너무도 많은 이기적인 정욕이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경배라고 부르는 그것이 내 경배 가운데 너무도 많은 교만이 있다. 세상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나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부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너무도 많은 불신과 이기적인 적의가 있다. 내 안에 있는 시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이다. 마음의 평온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멸하는 것이다. 나의 걱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인이다. 나의 탐심은 하나님을 대항한 교만한 배역이다.

“점진적 거룩함”

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죄가 없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점진적으로 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사람들이 “점

진적 성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대하여 익을 때까지 의와 거룩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영화롭게 됨은 개인적인 거룩 안으로 그들 자신이 점진적으로 도달한 마지막 결과라고 가르친다. 만약 그들의 교리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사람이 노력으로 인한 자기 부인과 개인적 거룩으로 궁극적으로 이 생에서 죄 없는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교리는 물론, 성경에 반대가 된다 (요한일서 1:8, 10). 정직이 나를 그런 교리가 모든 개인적인 체험에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나는 은혜 가운데 지난 37 년 동안 성장하였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 주 안에서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증가하였고, 성숙하였다. 그러나 나의 죄는 감소하지 않았다. 죄에 속한 나의 외적 행위들은 더 제한하고 통제하였다. 그러나 내 육체 안의 악은 감소하지 않았다.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 지금 더 나빠졌다. 독자들이여,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아픈 마음으로,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한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히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고 죄로 충만한 사람이다.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경험했다 (로마서 7:14-24). 이것이 내 혼의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우리는 우리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두 가지 본성, 두 가지 본질이 있고, 계속하여 서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두 가

지 본성은 육체와 그 영이다 (요한일서 3:9).

다윗의 분투

바울이 갈라디아서 5:16-17 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른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시편 73 편에서 다윗은 육체와 영 사이의 그 자신의 혼의 전쟁과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한다. 그가 자신의 가족을 바라 볼 때, 모든 혼란들이 있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악한 자의 예절과 평강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그는, “나는 거의 실족할 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시편 73:2, 3, 13, 14).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끝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시편 73:21-22).

여전히 죄인

다윗의 말을 나의 것으로 취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글을 읽는 당신 앞에서 내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을 한다. 내가 첫 사람 안에서 쓴 글로 인하여,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나는 끔찍하게 불결하고 죄로 충만한 사람이다. —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22 절). 내 인생에서 약간의 시험을 겪었다. 그러나 내가 전에 겪었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험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한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죄에 대한 언제나 늘어나는 인식과 자각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묘사하려 세 가지 말을 사용한다: “우매,” “무지,” “짐승.”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자처럼 행동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말이다. 그것은 그가 시편 14:1 에서 무신론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동일한 말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잊고 악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말을 자신을 묘사하는데 사용한다. 그는 심지어 그의 우매함을 더 강조한다. — “내가 이같이 우매하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지하였다.”고 말한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나의 무지를 폭로한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가!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들짐승처럼 행동하였다.”라고 말한다. “짐승”이라는 말은 어떤 소름 끼치고, 무시무시하고, 몹시 거친 동물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육체에 대한 정확한 묘사다. 그 늑은 이는 죄로 충만하고, 거칠고, 무시무시한 동물이다.

“내 모든 뉘두리를 드러낼 것인데,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나의 어떤 말도 완전히 칠할 수 없으니

내 죄의 그림이라.”

다윗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짐승으로” 묘사할 때 내 자신을 가장 사실대로 묘사한다. 땅 위의 사나운 짐승들처럼, 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결탁되어 있다. 뿌리를 찾아 땅을 헤치는 수탉지는 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언덕을 배회하는 야생 당나귀의 새끼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 굶주린 늑대는 영원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할 수 있는 한 짐승을 교육하고, 훈련하지만, 본능적 식욕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짐승들 같은지! —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어리석게도 너무 결부되어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우리가 짐승처럼 결부된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말자. 그러나 그것을 부인할 정도로 교만하거나 어리석지도 말아야 한다.

나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들짐승들 같다. 나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지극히 적은 감정과 열정이 있는 것 같다.

“여기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엎드려 기는지 보라,
이 하찮은 장난감을 좋아하는;
우리 혼들은 날아갈 수도 걸어갈 수도 없네
영원한 장난감에 이르기란.

헛되이 형식적인 노래를 부르고,
헛되이 살아나려 분투하네;

호산나 외침이 우리 혀에서 왜 하고,
또 우리 헌신이 사망하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언제나 살게 될까
이 가련하고 죽어가는 처지에서서요?
우리 사랑이 당신께 너무 희미하고, 너무 차고,
또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그리도 큰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잔인한 죽음과 마음의 냉랭함과 냉담한 무관심이 있다. 나의 전도, 나의 회개, 나의 성경 읽기,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예배, 모든 것이 그토록 죽어있다! 사나운 짐승들처럼, 우리는 끔찍하게 짧은 시야를 가졌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시간에 관한 것으로 너무 염려하고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하다.

우리의 동물 같은 걱정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잔인한 짐승들에 꽤 비교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체험의 이 어두운 길로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당신이 이것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할 만큼만 말할 것이다. C.H. Spurgeon 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그 자신이 마귀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자신 속에 있는 마귀를 가끔 느낄 것이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같다. 이 죄로 충만한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악은 없다. 우리는 악하고, 악할 뿐이며, 계속해서 그렇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롭고 주권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었다. 짐승의 특징들은 우리 각자 속에서 격분하는 것이다. 내 육체 안에는 사자의 교만과 말 거머리의 탐욕과 황소의 날뛰는 분노와 늑대의 질투와 수나귀의 완강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변하지 않은 옛 본성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옛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자. 은혜는 우리에게 새 본성을 준다.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육체이고, 회석되지 않은 악이며,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악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있을지라도, 옛 아담은 여전히 옛 아담이다. 은혜는 아담을 정복하고 아담을 통치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아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각자 속에서의 이 전쟁과 싸움은 지속적이고 변함 없다. 마침내 은혜가 승리하고, 육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림 받는다. 이것이 나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정직한 죄에 대한 고백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 한 가지 사실을 나는 인정해야 한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14, 18).

여전히 믿는 자

비록 내가 타락한 죄로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나는 여전히 믿는 자이다. 나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찬양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23-24). 나는 죄로 충만하고, 부끄럽게도 죄로 충만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광스럽게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기쁨과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의 죄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변하지 않더라도, 결코 당신에게 책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당신을 주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4:8; 8:1; 요한일서 2:1-2).

네 개의 기둥들

여기 당신과 나의 믿음을 위한 네 개의 축복의 기둥들이 있다.

1. 첫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내를 주장하였다. —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버리시지 않는 한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가까이, 너무도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수 없네;
그분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나는 그분처럼 가까이 있기 때문이네.

귀하네, 너무도 귀하네 하나님께,
더이상 귀할 수 없네,
그분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나는 그분처럼 귀하기 때문이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와 관계는 하나님 그분 자신처럼 변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마음 속에 있고, 그분의 눈 앞에 있으며,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마음 위에 있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는 사랑 받으시는 자 안에서 영접된다.

“그분의 흠 없는 옷을 입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거룩하도다!”

많은 은혜와 많은 은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리

스도께 영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락하고 사악한 사람이, 자신의 악한 마음을 알고 그의 철저한 타락의 쓴 맛을 본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당신 앞에서 죄 많은 짐승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믿음이다. 오직 죄인이기에 우리는 대속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무사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말라기 3:6). 그것은 우리의 인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내에 달려 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붙잡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사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20 년 전도 더 이전에 한 성경 총회에서 이 선포를 하였다. 내가 얼마나 큰 소란을 일으켰는지! 그러나 이 복된 사실이 얼마나 나의 혼을 안심시키는지를 당신에게 다 말할 수 없다! —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크게 결정된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결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하고, 놀랍게도 선하다. 그러나 여기 더 좋은 것이 있다. 내가 실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그럼에도,” 그분은 실수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신다. 시편 89:27-37 을 읽어보라.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 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2.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에 대하여 말한다. —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 손은 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 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나의 힘의 손이 유일한 약점임을 내포한다. 그분이 나를 전능한 은혜로 붙드신다. 그분이 나를 붙드셨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와 선하 섭리 안에서, 내가 타락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지만, 내가 타락할 때 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3. 셋째, 시편 기자는 미래를 위한 신성한 인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찬양한다. —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그분의 지혜로운 계명에 따라,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명령하신다.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경로를 이끄신다. 그분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길 안으로 인도하신다 (잠언 3:5-6).

4. 그리고, 넷째로, 영광 안으로 영원히 영접될 확신을 갖고 말한다. —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다, 옛 아담은 죄로 인하여 곧 썩어지기 위하여 무덤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을 영광 안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5:25-27; 유다서 24-25; 예레미야 50:20; 시편 17:15).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충직한 제자에게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가 세 번 그의 구원자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에 깨달은 적이 있는가? 여기 그 제자에게 하신 주님의 바로 다음 말씀이 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

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나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영광의 내 혼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다. —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5-26 절).

내 자신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소망이나 칭찬을 주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과 하나님께 영접에 대한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그분 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 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주께 돌이키며 스스로를 대속자 위에 던진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소망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 모든 소망이며 그리스도는 내가 갈망하는 모든 소망이다. —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무도 없다.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깨끗하게 함을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 영접

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의 반석이고 내 마음의 힘이다. 그분이 그 위에 내가 건축될 반석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힘이고, 지주이며, 위로이고, 확증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으므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예레미야애가 3:21-26).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결코 기대하지 말라. 당신의 형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결코 기대하지 말라. 당신의 죄 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계속하라. 그는 당신을 내쫓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일서 2:1-2). 당신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라. 그분의 피가 효험 있다. 그분의 은혜가 변함 없다.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다. “그분의 공훈이 무궁하시도다!”

선한 효험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악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실 수 있었으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로 택하지 않으신다. 왜? — 그 사실은, 이 내적 충돌들은 어떤 선한 효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견디기 어려운 만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이 큰 악한 날들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죄와의 모든 싸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신 그

리스도께만 의지하게 하며 (고린도전서 1:30), 요나와 함께,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죄와 힘들게 싸움으로,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임”을 발견한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으로 받게 한다 (예레미야애가 3:1-27). 이 땅 위에서 죄와의 우리의 싸움들은 하늘의 더 달콤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죄와의 우리 싸움들은 “구원이 주께 속하였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만든다.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은혜롭게 우리가 더 큰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 유용하게 하도록 위해서 한 악에 우리가 빠지도록 허락하실 것을 보도록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직한 인지와 우리가 결코 죄가 없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요한일서 1:8-10) 우리를 서로 간에 은혜롭고, 친절하고, 용서하며, 인내하도록 만들게 할 것이다.

곧 끝남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내적 충돌이 곧 끝날 것이다 (빌립보서 1:6; 유다서 24-25). 우리는 곧 이 땅의 성막을 내려놓게 될 것이며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온전하게,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말에 승리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날에, 이전 것들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그것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악한 결과는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한 우리는 “두 군대의 동행으로서”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충고의 말을 주겠다 —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라.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교통 가운데 지키라.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당신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지키라. 당신의 마음을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라.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당신의 혼을 그리스도 위에 안식하게 하라.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

30 장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갈라디아서 5:18-21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18-21)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우리 혼 안에서, 육체와 그 영 사이의 전쟁이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그 말이 여기서 읽게 됨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그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이 문제 관하여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 그것은 말하자면, 손을 잡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침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함축된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된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났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죽은 사람은 인도 받을 수 없다. John Gill 은, “그것은 비록 연약함에 대한 선한 다루심일지라도 어떤 힘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 힘이 없다면, 그들은 인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연약함이 없다면, 인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고 썼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노예 상태와 죄와 멸망과 파멸의 길로부터 그리스도께로 그분에 의해 인도 된다. 그들은 시내의 불타는 산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 되었다. 그들은 모든 율법적 행위와 개인적 의를 믿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리스도께 인도 된다. 우리는 피난처와 안전과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 인도되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피로, 칭의와 성화를 위하여 그분의 의로, 모든 은혜의 공급을 위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와 뜻 안으로 인도하시고, 믿는 죄인들이 믿음과 진리의 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을 우리 소망으로 바라보며, 의와 거룩의 길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 순례의 모든 날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영에 의해 인도 받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기록되기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것은 불분명한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 내에서 수 차례 반복된 말이다 (로마서 6:14, 15; 7:4; 10:4).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다시 읽어 보라 —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의와 성화와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만 인도되므로, 우리는 사실과 우리 자신의 양심 안에서 모두 완전하게 구원 받았고 자유하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정죄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위로의 지식과 체험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속자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하지 않는 영접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율법적 의무와 종교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율법이 (종교적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음으로, 내적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뻐하고 그들의 구원자인 하나님과 서로를 즐거이 섬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용병들이 아니라, 자원병들이다. 우리는 심판이나, 보상이나, 혹은 보상을 잃어 버리게 될 두려움으로 인하여 동기를 받지 않는다. 바울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때, 이것 또한 함축된 의미다. — 당신이 만

약 율법에 의하여 인도 받는다면, 당신은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그 영 안의 생명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이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더 깊은” 생명인가? 그것은 “더 높은” 생명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는 한편, 몇몇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인가?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 안에 계급 구별이 있다는 생각을 진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단호하게 “아니다!”이다. 바울이 이 단락에서 서술하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살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믿음의 생명이다. 단지 자연인이 숨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이다. 그 영 안에서가 아닌 육신 안에 사는 자들, 그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정욕으로 인도되는 자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죄 안에서 죽은 자이다 (로마서 8:1-14).

“성령을 좇아 행하라” (16 절)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이다 (18 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 행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육체를 그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22-25 절), 그 영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바울의 전체적 강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충고하며 (13 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4 절)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촉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면서, 우리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8:10).

“너희가 아니하리라”

기억하라. 바울은, “그 영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 절). 18 절은 동일한 것을 말한 다른 방법이다. —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 절). 그리고, 19-21 절에서 그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말한다.

“이제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간통, 간음, 부정함, 음탕함, 우상 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분노, 분쟁, 선동, 이단, 질투, 살인, 술 취함, 흥청거림, 등과 같은 것들이고, 이전에 말했던 것이며, 과거에 너희에게

도 또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행위”라고 말한 끔찍한 악을 아주 먼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발견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 기억하라, 바울이 이 “육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세속이라는 말로부터 온 말이다. 세속적인 사람은 본성에 의해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가 함께 세상 속으로 가져온 모든 것이다. 우리 생각들, 우리 애착들, 우리 양심, 우리 의지는 모두 천연적인 사람인 죄에 의해 모두 통치된다. 육체는 세속적인 생각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기뻐하시게 도 할 수 없다 (로마서 8:6-7). 이 세속적인 생각 (육체)는 행위 가운데 스스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영에 분명하게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현저한 육체의 행위이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다. 그것들은 율법 안에서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의 양심 가운데 현저하다.

“육체의 행위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육체의 행위라고 하고, 한편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산출된 것이 그 영의 열매라고 한다. 바울은 특별히 일곱 가지 다른 육체의 명백한 행위를 언급한다. 이런 인간

성의 죄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세대 안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바울이 여기서 기술한 것들은 타락한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야비함의 끊임 없는 흐름 안에 있는 악한 흐름이다. 이것들은 나쁜 교제에 의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악이다 (마가복음 7:20-23).

걱정의 죄들

바울은 첫째로 걱정의 죄들을 언급한다. 걱정은 끊임 없는 불안 가운데 그 자체를 팔아 넘기는 마음의 질병이다. 그것은 결코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성적 죄들”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울이 칭한 걱정의 죄들은 “간음, 간통, 부정, 음탕함”이다. — “간음 (adultery)”은 혼인 침상의 불결함이다 (잠언 5:18-19). — “간통”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어떤 불법적 성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말이다. 여기서 “간통 (fornication)” 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 단어로 “외설 (pornography)” 이란 말이 된 단어이다. 그것은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성적 도착 행위들이다. — “부정 (uncleanness)” 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안에 순결의 부족함에 대하여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이다. 간통처럼, 그것은 일반적으로 향문 성교나 다른 성적 도착을 가리킨다. — “음탕함”은 모든 음탕하고 감각적인 모든 욕망과 불결한 말과 더러운 행위들과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한

다. 음탕함은 그 욕망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 사람을 특징짓는 자기 통제의 부족이다. 사회와 종종 종교적인 세상조차도 이런 악들을 너그럽게 봐주고 심지어 진작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모두에 직접 반대가 되는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6:9-11).

모독의 죄들

다음으로, 사도는 모독의 죄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우상 숭배와 마법이다. — “우상 숭배”는 분명 탐심을 포함한다 (골로새서 3:5). 그러나, 이곳에서 그것은 거짓 신들과 형상들에게 하는 경배에 대한 특정한 지칭이다. 우상 숭배는 그런 경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성한 존재의 어떤 묘사는 종교화, 형상, 초상 등등을 포함하는 우상 숭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참 하나님의 사랑과 동경과 갈망에 대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대신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 “마법”은 실질적이거나 가상된 초인적 행위를 성취하기 위한 마술의 사용이다. 세속적인 생각은 그 기초로 마법의 어리석음으로 바꾸고 (점술가, 점성술, 등)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한다.

교만의 죄들

다음으로, 바울은 교만의 죄들이라고 부를 것들의 긴 목록을 열거한다. — “증오”는 살인이다. G.S. Bishop 은, “본성의 두 가지 극단성은 음란과 살인이다. 추가 이들 사이에서 흔들린다.

미에 대한 경배는 탐닉으로 마친다! 세겜은 디나에 덮이 빠져서 그 여인을 범한다. 암논은 다말을 파멸하고 분노하여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쫓는다.”

“불일치”는 서로 다투고 언쟁하는 것이다. — “경쟁”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존귀나 기쁨으로 인하여 성질이 끓어 오르는 것이다. — “분노”는 복수를 하려는 난폭한 격정이다.

“다툼”은 알력을 야기하는 평안과 조화의 붕괴다 (야고보서 3:14-16).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믿는 자들은 그것을 진정시킨다 (잠언 15:18). 다툼은 사람들이 이기적 동기로, 각자가 자신에 대한 체면을 갈망하는 데서 언제나 일어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잠언 17:19). 다툼은 언제나 교만의 결과이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25).

“선동”은 분파와 파벌과 분열이다. 사회나 가정이나 종교적 “선동” (분파)는 교만과 다툼의 악한 결과다. — “이단”은 교리의 나쁜 원칙이고, 복음을 전복하는 것들이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과 판단으로 세우려는 끔찍한 교만의 결과이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선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의 불안정하고 비탄을 주는 그런 화들이다. 시기는 우리 앞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전진하는 것을 볼 때 교만하여 일어난다. 시

기는 혼을 파괴한다 (잠언 14:30). 시기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하였다. 시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였다. 시기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시기는 방탕한 형제가 아버지의 집 밖에 있도록 하였다. 사랑은 시기심이 없다 (갈라디아서 5:13; 고린도전서 13:4).

“살인”은 단지 자기 자신의 증오와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다. — “술 취함”은 마약이나, 술을 마시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생각과 몸이 도취됨이다. — “방탕함”은 만취함으로 인한 통제불능의 폭력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을 말한다. 그 말에 대하여, John Gill 은, “그는 이야기를 접었고, 육체의 모든 행위를 열거하는 것이 너무도 지루하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머지가 심판 받게 될 만큼 필요치 않았고, 세속적인 마음이 단지 악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에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합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든 행위를 억제하고 정죄하려 주어졌다 (디모데전서 1:9-10).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21 절 끝에서 사도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이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Henry Mahan 은 이렇게 썼다…

“이런 죄로 충만한 실행들은 육체의 특징인 것과, 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했고 그것들을 행할 잠재력이 여전히 우리 육체에 존재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롯과 베드로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형태가 아님을 깨달아라. 이것은 믿는 자의 실행이 아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의지의 성향은 거룩과 의와 평강이다. 이런 육체의 원칙과 실행들로 여전히 사는 자들은 구속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타락과 하나님을 증오하는 반역의 교만한 뿌리이다. 그것은 언제나 교만한 자기 의 가운데 아주 교활하거나 뻔뻔하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높인다. 기록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13).

31 장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19-21 절에서 우리는 복된 대조가 있는 것을 본다. 거기에서 사도는 우리 앞에 육체의 열일곱 가지 행위들, 하나님을 증오하는 세속적 생각의 산출물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의 마음의 노력으로 산출된 행위들을 제시한다.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는 자들은 영원히 저주 받게 될 것이다. 여기 그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하늘로서 난 혼 안에 있는 (그로써 역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산출된)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은 그 영의 열매를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서 취급한다. 그는 그 영의 열매들 (복수)가 아니라 열매 (단수)로 기술하고 있다. 그 영의 열매는 포도 송이처럼 열매 덩어리이고, 은혜의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 안에 가져오게 된다. 이 성령의 열매는 믿는 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언급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모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공동되고 지속적인 열매로 주어 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 영의 열매로서 아홉 가지 것들을 특별히 이름하고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모든 믿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그들 안에 창조하였다. 서로와 관련하여, 모든 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받았다. 그들 자신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다.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 사람은 천연적으로 자신을, 정말로 오직 자신만을 사랑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더하는 것을 위해서만 다른 모든 것들(가족, 친구, 소유물, 등)을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기조차도 않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어떠하실 것이라는 그들 자신의 관념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들에게 유익하려 존재하신다고 헛되이 상상한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6). 사랑은 그 영의 열매이지, 육체의 열매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

처럼, 실로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참 성품 가운데 진실로 계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린도전서 16:22; 요한일서 4:19).

하나님께서로 난 자는 모두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고 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기적의 일부이다 (고린도후서 5:17).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랑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는 더이상 육체를 만족시키고 높이는 그것 만을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것에 언제나 눈길을 돌린다. 다른 모든 사랑은 이 사랑에 부속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우리 사랑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부속되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모든 것에서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섬기기를 구한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랑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모든 하늘로 난 혼의 참된 증거이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

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 하다. 사람이 자신의 혼 안에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을 알고도 그의 은혜로운 구속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도 생명의 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많은 약함과 죄들과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고 진심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17)라고 고백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을 또한 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랑에 앞선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 받고자 하는 어떤 갈망을 품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어떤 회개나 믿음을 갖기 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소유하기 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예레미야 31:3).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속하셨으며,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앞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랑의 이유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

랑하셨음이라.” 우리 마음은 너무도 굳어 있고 우리의 의지가 너무도 고집스러워서, 만약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시려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주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죄와 타락의 한 가운데로 그분이 지나가셨고, “사랑의 때”였음을 보셨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사랑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 대신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반역의 마음을 정복하셨다. 그리스도를 우리 유일한 구원자로 신뢰하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 믿는 자들은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의 기쁨, 희락을 가졌으며 이를 누린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단기간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린다. 그러나 그들의 쾌락은 그들이 쫓아 다니는 텅 빈 비누방울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허탄하고 일시적인 기쁨이다. 믿는 자의 기쁨은 더 실질적인 어떤 것에 기초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빌립보서 4:4). 하박국과 함께 우리는 노래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7-18). 육체 가운데 아무런 확신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 (빌립보서 3:3).

움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가 두려워했던 때는 유일하게 주께서 등을 돌리시므로 공포와 절망이 그 끔찍한 그림자를 그의 혼 위로 덮일 때였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 영의 은사와 열매이다.

믿는 자들은 기쁨을 꾸며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쁨을 갖고 있다. 우리는 충동적인 어리석은 자들처럼, 진짜 슬픔과 비탄을 알아채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나,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기쁨을 갖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영원히 복을 받으며, 그분의 신뢰할 수 있는 선하심과 은혜를 확신하고 있다 (로마서 8:28). Chris Cunningham 목사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 즐거움의 대상이 무한하고 변함 없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억제할 수 없다.”라고 썼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할 때, 미가엘이 다윗을 멸시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정하시는 사랑 가운데 기뻐한다. 다윗을 향해 시므이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사탄이 우리를 향해 비판을 던질 때, 우리를 우리 구속이며 의이신 그리스도께로 보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심을 알기에 기뻐한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 힘이 연약함 가운데 완전해지는 분 가운데

기뻐한다. 우리가 철저히 부족함을 볼 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는 것을 알므로 기뻐한다. 우리에게 관한 한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보기를 기뻐한다. 우리 몸이 죽어갈 때,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분께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 속에서 통치 받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는 우리 마음에 화평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을 갖는다. 비록 우리가, 천연적으로,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므로” (이사야 57:20),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늘 감시하는 눈과 전능한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양과 같다. 비록 우리 죄가 우리 앞에 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모든 죄와 죄의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희생으로 영원히 없어졌음을 알므로 화평이 있다. 비록, 때로는 세상의 무게와 그 관심이 우리 혼을 박살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는 분 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지며, 마음의 화평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분은 그분의 아들,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 죄들을 씻어 버리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셨던 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심을 알므로, 하나

님은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때가 끝날 때, 우리는, 구약의 시므온처럼, 우리 구원자 위에 우리 눈을 고정하고 평강 가운데 육체의 이 몸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시편 4:8), 우리는 화평한 수면 가운데 눕게 될 것이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하나님과 관련하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창조하였다. 서로와 관련하여,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주어진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 — 성령 하나님은, 우리 혼 안에 생명과 믿음을 그분이 창조하실 때, 오래 참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있음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시험, 성가시고 괴롭히는 것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 견딜 인내를 주신다. 혼 안에서 체험한 은혜가 구원 받은 죄인들을 더디게 화를 내게 하고 용서할 준비를 하게 한다. 은혜는 천연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고 속히 양값음하는 자들이 인내를 갖고 무례한 자를 품으며 범한 자들을 용서하도록 한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따르기 위한 사례 이상이다. 그분이 생명 안에서 하셨던 모든 것은, 그분은 우리 중보자와 대표자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심 안에서 하셨으며,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셨으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려 우리의 대속자로서 견디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삶과 죽음 안에서,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또한 우리 본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2:21-25). 누구든,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바로 오래 참음의 구체화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지를 보였을 때, 그분은 인내력을 갖고 같은 진리를 반복하여 다시 가르치셨다. 그들이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때, 그분은 그들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보였다. 그들이 그분을 포기했을 때 조차도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을 포기 해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사망에서 부활하시자 마자, 그분의 흩어진 양 떼를 찾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그분께 오기를 부끄러워했을 때, 그분은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서 갈릴리에서 그를 만날 것임을 전하셨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모든 호흡과 행동으로, 우리의 반역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증오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분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구원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조롱하였지만,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셨다. 우리는 그분을 모독하였지만,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셨다. 우리가 그분의 피와 의를 경멸하였지만,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날 가운데, 그분의 전능하신 긍휼로 지옥의 바로 그 아가리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붙은 나무인 우리를 잡아채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으며 그분께 대항하여 계속하여 죄를 짓겠는가.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배경을 아시고 우리가 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죄들 이후 우리를 다루기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부정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이 표현으로 바울이 뜻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택함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죄인들을 오래 참게 만드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하고, 그분의 의로 옷 입어야 하며,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그런 끔찍한 성질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는 자비라.” — 오래 참음은 자비와 친절과 호의가 동반된다. 이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그들에 대하여 하는 말 가운데 보여진다.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자비” 가운데 실증된다. 자비는 온화하고, 평화롭고, 온건한 영이며, “신성한 본성에 참여자가 된” 자들 위에 주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영이며 (고린도전서 10:1)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영이고, 그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사무엘하 22:36; 시편 18:35).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

하니라”(야고보서 3:17). 이 자비는 사람됨과 유용함을 파괴하는 타협과 소심의 수동적 영이 아니다. 그것은 미덕보다 악행이고, 은혜보다 타락의 표현이다. 우리 주 예수는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자비한 사람이었으며, 가장 담대하고 가장 용감하였다. Charles Buck 이 매우 정확하게 자비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두려워서 참 의를 단념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언으로 중요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로, 굳은 마음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간적 영과 확고한 원칙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하지만, 자비는 엄함과 가혹함의 매우 반대이고, 교만과 거만의 반대이며, 폭력과 억압의 매우 반대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큰 관심을 갖도록 하는 형제 사랑과 친절에 속한 자비로운 영이다. 그것은 믿는 자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부담을 경감하기를 찾게 하며,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범 죄를 품으며, 심각한 심판과 복수를 막도록 한다. 자비는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타락했을 때 서로 회복하게 하고 (갈라디아서 6:1-2),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도록 하는 온유와 인성의 영이다. 믿는 자들은 쓰지 않고 인정 많으며, 모질지 않고 도움이 되며, 비열하지 않고 자비롭다. 실로, 자비는 위대함과 지혜이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다.” — 양선은 선을 행하기 위한 준비, 특별히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 선을 행할 준비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로서 서신을 쓰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18)라고 말했다. 양선은 천연적으로 우리 안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18)라고 우리 주께서 선포하신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무한하게 선하시며, 변치 않고 선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시다. 타락한 사람은 선하지 않고, 다만 부정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선한 것을 행할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없다, 아무도 없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 안에서 은혜의 전능한 역사를 행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삶이 양선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양선이나 우리가 행하는 양선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가? 진실로 절대적으로 선하고 순수하며,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믿는 자의 마음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이라든지, 혹은 그 안의 생각조차도 있는가? 물론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성경과 우리 삶의 체험에 대한 정직한 고찰 모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만든다 (요한일서 1:8, 10).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선하며, 완전하게 선하다. 하나님께로 난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요한일서 3:9). 그러나 우리 옛 본성은 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라 부를 수 있는가?

“양선”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는 은혜, 우리가 새로 태어남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신성한 본성의 속성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선의 행동을 하게 한다. “선한 행위”에 대하여 종교적 세상에서 많은 말이 있다. 복장, 음식, 외모와 관련한 다양한 행동 지침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에 의해 정의된 선한 행위들이 판단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한 행위는 언제나 형제간의 사랑과 친절과 자기 부인과 희생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아픈 자를 방문하는 것,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 궁핍한 자를 돕는 것 등이다 (마태복음 25:31; 야고보서 1:26-27).

선한 행위,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 믿음이 보이는 행위들이다 (야고보서 2:14-26). 선한 행위들은 성경 안에서 믿음의 나타남으로서가 아니고 언급되지 않는다. 만약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면, 믿음이 없는 행위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선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연결되었으며,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히브리서 11:6).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홀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만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고 아주 기쁘게 한다 (에베소서 4:32-5:2; 베드로전서 2:5).

충성, 은유, 절제

하나님과 관련하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창조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진다. 서로와 관련하여, 모든 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들 자신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백성이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라.” —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충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신실함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과 왕국 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신실함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들로 만드실 때, 그분은 그들을 충성되게 만드신다.

“그는 신실하게 거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안에 감탄할만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신실함보다 더 칭찬할만한 것은 없다. 믿는 자들은 신실한 백성이며,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며, 그분의 영광에 신실하고, 서로에게 신실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다. 이 신실함은 분명히 신뢰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의 책임에 신뢰한다. 이 신실함은 그 이상이다. 이것은 은혜의 내적 원칙, 그리스도께 대한 내적인 마음의 충절이며, 그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통제 받는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 — 온유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영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김없이 반대하는 것이 천명되어야 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한다. 온유는 사람을 쓸모 없이 소심한 사람으로 만드는 약한 성격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3). 그러나 나는 누구든 온유함의 예를 바로에게 누구든 요구하였다면, 모세가 그의 생각에 든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을 것임을 매우 확신한다.

온유는 쉽사리 분을 내지 않는 영이며, 길들여진 영이다 (야고보서 3:7-8). 믿는 혼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물 가운데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안에 창조된 마음의 태도이다. 온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 받고 열납 된 죄인들이라는 사실의 인식으로부터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의 골격이고 혼의 기질이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고, 그분의 자녀들이며, 그분의 종들이다.

이 온유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일뿐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겸허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되게 한다. 동시에, 온유 (참 온유)는

사람들에게 기개를 준다. 온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들인 사람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고 충성되게 하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로 우리 하나님이고 아버지임을 알게 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대부분의 사람이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그들은 “온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실로 온유하셨다. 온유 가운데 그분은 자원하여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엮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온유 가운데 그분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 내셨다. 온유 가운데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그분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드셨다. 온유 가운데 그분은 그 시대 가장 높이 존경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거만한 위선자들로 비난하셨다. 온유 가운데 그분은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간부를 간부라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을 여우들이라고 부르셨다. 온유 가운데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을 내 쫓으셨고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그분의 죄 속량의 죽음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정복하셨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니라.” — 절제는 내부로부터의 자제심이고, 금욕이며, 통제이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 욕망을 통제하고, 먹고 마심에 있어서 절제함 가운데 볼 수 있다. 그러나 절제에는 자기 수양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

력 안에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들을 왕으로 만드신다 (베드로전서 2:5, 9; 계시록 1:6; 5:10; 20:6).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마음 속에서 통치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욕정을 지배하시며, 그들 주변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지어 사망을 통치하시므로,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절제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며, 그들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통제 받는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본성과는 반대가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해서 산출된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속에 산출된 것이다. 그것은 새로 태어남의 결과이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이다 (고린도전서 4:7). 그것은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찾아 볼 수 있는 열매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마음 속에 새로 심겨진 씨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다자란 열매이다. 누구에게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사람 속에 있다. 이 열매에 관하여, John Gill은 이렇게 썼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육체의 행위들과는 반대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은 증오에 반대가 된다. 희락은 경쟁과 시기에 반대이다; 화평은 불화와 다툼과 폭동에 반대가 된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온유는 분노와 살인에 반대가 된다; 충성은 우상 숭배, 마법, 이단에 반대가

된다; 그리고 절제는 간음, 간통, 부정, 음탕함, 술 취함, 흥청망청에 반대가 된다.”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선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안에 이 열매가 보이는 자들,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난 자들,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이다.” (로마서 8:1, 4). 육체의 일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8).

32 장

성령으로 행할찌니

갈라디아서 5:24-26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

갈라디아서 5:24-26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할찌니”라고 그의 충고를 계속하고 있다 (16 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속한 믿는 자의 생명은 은혜로 사는 생명이며, 은혜로 지탱되는 생명이며,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 외적 행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와 선하심의 역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생명은 영적 소극성의 생명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엄격하고 단호한 결의의 생명이다. 우리가 우리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도록 하였던 한편,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자의로 인한 종들이다.

의도한 십자가 못 박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분께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에 그들의 육체를 못 박았다. 믿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기꺼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비밀스럽게 그분의 소유였으며,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께 의해 영원 전부터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분께 드러졌다 (요한복음 6:39). 우리는 그분의 양 떼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께 드러졌으며,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열납되었다 (에베소서 1:3-6). 그리고 우리는 사신 바 됨으로 그분의 소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대가로 사신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한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의 효험 있고, 대가 없는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나 더 이상이 있다.

우리는 계획 가운데 의도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믿는 자의 공개적인 고백인 우리의 침례 안에서, 우리는 물의 무덤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징적으로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세상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분의 은혜로 사망에

서 생명으로 살려졌으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것이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드렸음을 선포한다 (로마서 6:3-10).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자원하고 의도적인 항복이다. 그것은 의도적인 자아 부인이고,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생명의 포기이다 (마태복음 16:24-25; 마가복음 8:34-35; 누가복음 14:26-33). 이것이 바울이 육체의 갈망과 정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와 주로서 고백하므로, 우리는 우리 옛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로마서 8:13),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한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선택 받았으니
나의 하나님,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 으로서,
내 모든 것과 가진 것을 가져오니
그리스도 나의 왕의 통치 아래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께 순종하네.

택함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았으니,
두려움이 내 마음에 침입치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소유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며,
나를 그분의 보좌로 지키실 것이라:
내가 그를,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

구원자여, 나로 땅에 살게 하소서

당신의 견줄 수 없는 가치를 선포하려 합니다:
몸과 영 안에서, 주여,
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니: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내 죄로 충만한 육신이 배역할 지라도,
나를 강권하사, 주여,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땅 위에서 나의 일이 끝날 때,
나를 당신의 보좌로 안전하게 데려가소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단호한 헌신

24 절에 대하여 내가 제시한 해석은 25 절에 의해 입증된다. —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들은 “성령으로 산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가 소유한 생명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여전히, 이것은 영적 소극성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 하는 단호한 헌신의 생명이다. 그 영 안에서 행함은

그분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분의 영향과 지시 하에, 지속적으로 우리 의지를 우리 구원자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언제나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자아의 포기과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그리스도께 대한 자아의 포기를 포함한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흑자는 물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이 합리적인가?” 진실로 그렇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누가복음 16:5). — 이런 질문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의 채무자들에게 하였고, 내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게 된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내게 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더욱이 갚을 수도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빚이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빚진 자이다.

내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인간의 회계 장부도 내 삶의 모든 날을 풍성하게 축복받게 된 창조와 섭리의 은사들조차도 계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의 모든 날들을 되돌아 보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선포할 수

밖에 없으며, “분명 선하심과 공홀이 내 삶의 모든 날에 나를 뒤쫓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나의 행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혼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무한한 부요를 생각할 때, 나는 감사로 겸손하게 되고 놀라움과 찬양으로 위압된다. 내 빛의 계산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나는 그야말로 파산하였고,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와 지옥에서 영원히 사망하는 끔찍한 형벌 아래 정죄 받았다.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 날카롭게 외치는 양심이 나를 사망의 두려움 안에 붙잡는다. 사탄의 참소가 나를 밤낮으로 괴롭혔다. 내 어두운 혼에 짙어지고 가는 죄의식과 죄의 억누르는 무게가 무엇인지! 내 마음은 나의 속으로 침몰하였다.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에베소서 2:4) 안으로 들어오셨고, 생명과 믿음을 내게 주셨으며,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와 의로 나의 혼에 평강을 말씀 하셨고, 나의 모든 영광의 전능하신 구원자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므로, 나의 짐이 나의 혼에서 떨어졌다! — 아, 나의 혼이여, “네가 얼마나 빛졌는가?”

나의 구원자, 주 예수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리고 그가 내가 빛진 것을 모두 회복하셨고, 나의 주린 혼을 먹이셨고, 그 자신의 의의 옷으로 별거벗은 나를 옷 입히셨던 것을 기억할 때, 나는 그분 앞에 놀라 엎드린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이고 의로운 것을 행한 사람, 그분의 법 가운데 행하였고 그분

의 심판을 지켰던 자가 되게 하셨다. 그분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이 죄로 충만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고리가 아닌,” 대가 없이, 내게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으시고 주셨다. 그렇다, 그분은 내 대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능에서 나를 속량 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망의 재앙이 되셨고 무덤의 파괴가 되셨다 (에스겔 18:5-13; 호세아 13:14). 나의 영원한 축복의 구원자께서 내 모든 빛을 없애셨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충만케 하셨다. 그는 사탄, 내 참조자를 잠잠케 하셨다. 그는 영원한 속박과 고통과 영원한 사망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는 나를 그분의 자유와 희락과 영광의 영원한 왕국으로 옮기셨다. 그는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만드셨다! — “네가 얼마나 빛졌는가?” 아 나의 혼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이 나의 구원자가 되도록 주시는 것에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려 오심 안에서 나의 위대한 구원자의 사랑을 묵상할 때, 효험 있는 은혜 안에서 나의 혼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게 하심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울부짖는다. “네가 얼마나 빛졌는가,” 아 나의 혼아! 아 보배로운 빛이로다! 그것은 영원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빛지는 것이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한다!

“여기, 주여,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인된 칭찬

26 절에서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이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문제가 형제 사랑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그 영 안에서 행한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로부터의 존귀와 존중과 칭찬을 갈망하고 구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결단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그분과 그분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서로를 좋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아는 우리는 거만한 우월감을 보임으로 서로를 경멸하고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 주신 은사와 능력을 시기하지 말고 다만 그들과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와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6 에서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그 핵심을 다룬 말을 한다. 거기서 그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우리는 육체의 행위로, 혹은 율법을 들음으로써 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갈라디아서 3:1-3).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율법을 성취하고, 우리 구원자를 확대하는 것은 오직 그분 안의 믿음으로써 뿐이다 (로마서 3:31; 히브리서 11:4-6).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만약 당신이 그분을 영접하였다면,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당신은 그분께 죄인으로서,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서 신뢰하며 나왔다 (고린도전서 1:30-31). 당신은 종으로서, 그분을 당신의 주로 영접하므로 그분께 엎드렸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 (출애굽기 21:1-6). 당신은 그분께 고메르처럼 신부로서 나왔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당신의 신랑으로 품으며 정복되었다.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으므로, 모든 것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행하라 (시편 23:1; 잠언 3:5-6). 그리스도를 따르므로, 믿음 가운데 행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모든 것 가운데 그분께 감사를 드려라. 그분께 찬양하라. 그분의 본을 언제나 따라라 (요한복음 13:15; 베드로전서 2:20-24; 에베소서 4:32-5:2).

만약 우리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 영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1-

17).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소모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소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33).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2). 이 세상에서 만족의 비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31-34). 매일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항복하라. 그분께 비교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빌립보서 3:7-10). 매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라.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버려라, 그러면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5).

갈라디아서 5 장에 있는 바울의 말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한 목사께서 하신 설교를 인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요약은 없다고 생각한다. —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달콤한 마음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라.”

33 장

서로에게 종노릇 함

갈라디아서 6:1-5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1-5)

갈라디아 인들은 어리석게도 모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애를 써왔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다시 노예 상태의 멍에에 얽혔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들 중 아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하지 않았다. 사탄은 그렇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들 율법 장사꾼들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경우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우리 칭의가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 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교리는 동일하다.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혜로 만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길을 버렸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한다. “당신은 율법에 의해 살기 원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의 통치함으로 살라.” 여기 살아가는 원칙인 율법이 있다. 그것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에 영향을 주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동정하고 도움이 된다. 전체 율법이 이 한 가지, 사랑 안에서 성취된다. 사랑 없이는, 사람들이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거만하고, 독선적인 경건은 위선이다.

그 독선적인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법규로 만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확실히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율법의 본질과 영이 무엇인지 — 사랑 — 잊어버린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 안에) 너무도 의로워서 그들은 무정하고, 가혹하며,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판단적으로 되는데,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다. 모세 율법의 의라고 할 지라도 사랑의 의이다. 그러나 나는 부드러운 마음이었고, 친절했고, 자비로웠던 그 독선적인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율법의 사문을 보고 사망처럼 무정하고 엄격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율법이 되도록 하자: — “서로 사랑하라.” 무정하고, 엄격하고, 가혹한 것들을 거절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2). 5 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이지 종교적 의식과 경건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할 것을 촉구하였다 (5:13-14).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섬길 것인지를 말한다.

타락한 자의 회복

바울은 이 장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가 타락할 때, 영적인 자들이 (말하자면, 성령으로 행하는 믿는 자들) 타락한 자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작한다. —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을 바로잡을지 말한다. — “온유한 심령.” 그는 온유한 심령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 “네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고, 그는 그의 충고를 바짝 밀어붙인다. —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이다. 믿는 자들은 믿음의 가족 안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다. 가족이 함께 서로 짜여지고 그것을 강하게 만들기 좋아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섬을 위하여 갖게 되는 온유한 보살핌 가운데 나타난다. 강한 사랑의 가족 안에 전체 가족은 한 사람의 필요에 모인다. 필요가 크면 클 수록, 가족의 사랑은 더욱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부여진다. 그리고 그 필요는 가족 내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보다 결코 더 클 수 없다.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자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필요이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타락한 형제자매의 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줄 더 큰 기회나, 야고보가 “순수한 종교와 순결함”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예시화할 더 큰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한다.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에 탐닉하는 것이 아닌 타락한 자를 볼 때,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이사야 65:5)고 말하는 거짓 동정심으로 타락한 자를 바라 보면서, 심판석을 속히 취하려고 하는 그 교만과 독선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태복음 7:1)는 우리 구원자의 말씀을 언제나 듣자. 그와 같은 독선적 자기 의적인 경멸로 타락한 성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로마서 14:10)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타락한 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리를 둘 기회에 뛰어들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며, 우리가 죄를 용인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바울이 여기서 주는 가르침은 합당한 교회 징계에 어떤 방법으로든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합당한 교회 징계이다. 가족 안에서 징계의 목적은 타락한 지체를 내 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교회에서 교회로,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그들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의 가치가 있는 회중을 끊임없이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난다. 한 이야기가 하나의 요점을 예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루진다.

Frederick 프러시아 황제가 한 번은 감옥을 순시하였고, 많은 수감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투옥되었던 죄목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자신이 잘못 기소되었고 선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받아들였고 그의 투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던 한 죄수와 말했다. Fredrick 은 간수를 외쳐 불렀다 — “빨리! 그가 이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 사람을 풀어줘라!”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모질거나 엄격하지 말고, 동정심이 있고 온유 하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온유의 영 안에서” 타락한 자들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온유의 영”에 대한 바울 자신의 설명이 다음 말 안에서 주어진다. —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일 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타락한 형제나 자매들이 했던 바로 동일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타락한 자들을 다룸에 있어서 관대해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문제의 절대적 진리는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6:23).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어떤 것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요한일서 1:8, 10).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서 3:2). 죄는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배역의 문제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종종,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다. 실수와 타락은 의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다. 그것은 죄를 변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처벌 받아야 할 범죄로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함으로—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이가 넘어질 때, 그를 때리거나 나아가 꾸짖지 않는다. 그 아이를 들어 올리고, 도와주며, 그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 타락의 본성에 관계 없이, 형제나 자매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은혜로만 구원 받은 죄인들임을 아는 자들은 그 타락한 자를 회복하여야 한다.

짐을 짊어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종노릇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 —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 절). Scott Richardson 목사가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등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얼굴

을 덮은 흙 한 삽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모든 것이 충돌과 상처와 고뇌이다.” 그것은 정확히 솔로몬이 그것을 묘사한 것과 일치한다. 그렇지 않은가? —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도서 2:23-24).

삶이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고뇌가 연이어서, 종종 빠르게 이어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뇌와 슬픔으로 고통 받는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윗처럼 그들을 경멸하는 배우자와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자녀들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많은 사람들도, 읊처럼 사별과 몸의 질병과, 감정의 고통과, 친구들에게 오해 받고 잘못 보이며,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다. 그 사실은 이 세상을 통한 우리의 인생행로를 해 나가는 길을 따라 우리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고통과 염려로 가득하다. 만약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짐에 눌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짓누르는 짐을 혼자 지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짐이 어떤 면에서 그들 자신의 믿음과 의가 부족하거나,

감추어진 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지적하는 바리새 인들처럼 (마태복음 23:4), 그들의 짐을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1 절과 2 절을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두 구절은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져야 하며, 사랑 안에서 타락한 자들의 필요를 사역하며, 잘못을 용서하고 회복하도록 그들을 도우며 우리가 타락한 형제자매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다. 혹자는, “그리스도 인들은 그들의 상처를 쏘는 유일한 자들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종교적 사람은 그들의 상처를 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를 고친다.

타락한 자들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예시이다. 따라서 서로의 짐을 지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한다.” (요한복음 13:34-35). 갈릴리의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믿는 자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 한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한 대조를, 우리가 돌비에 새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고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분명한 대조를 한다.

자기 기만

모든 교만은 자기 기만이다. —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3 절). 만약 누구든

그가 타락한 형제자매보다 더 낫다고 상상한다면, 또 혹은 타락한 자보다 그가 더 강하고, 더 영적이고, 더 의로우며, 혹은 더 거룩하다는 이유로 타락한 자가 행한 것들을 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는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 속이고 있다 (요한일서 1:7-10). —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5).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로마서 7:18).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공훈, 우리의 보존, 우리의 은사들을 빚졌다 (고린도전서 4:7).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가 아무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모든 교만과 독선주의는 하나님께 혐오를 일으키는 것이다 (잠언 6:16-18). 어느 누구에게 있는 그런 태도는, John Gill 은 올바르게 관찰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그는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는 표시이다.

자성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4 절). — 여기서 바울이 자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를, 타락하였기 때문에 더 약하거나 덜 은사를 받은 믿는 자들로 내려다보게 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가 약간 특별하고, 강하고, 또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란 쉽다. 얼마나 오만한 어리석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의 신실함과 그리스도를 위

한 사랑을 각자가 입증하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바울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라고 할 때, 그는 빗대어 말하고 있다. 그의 의미는 단지 그것에 반대가 된다.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을 빌립보서 3:3 에서 그가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안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인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확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1:1; 고린도전서 1:30-31). —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3 절).

바울의 훈계를 유의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완전한 의, 온전한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절대적인 열납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없는 양심 안에서 기뻐하는 한편, 우리가 죄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9:12-14; 10:22; 고린도후서 1:12). 우리가 바울의 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의미 안에서 이다. 믿는 자는 옳과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분 자신 안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지만, 사람 앞에서 그분 자신의 성품의 증거 가운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안

에 계신 그 영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칭의와 의에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믿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칭찬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타락한 자들과 같지 않다고 확신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들과 잘못들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기 의의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의 태도이다.

심판의 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자신의 행로 심판을 받게 되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심판 받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자각하며 산다. —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5 절).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후서 5:10; 계시록 20:11-15).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하는 그 재판장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았던 하나님-사람이다 (요한복음 5:22, 사도행전 17:31; 고린도후서 5:10).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기록에 따라서, 그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책들이 열릴 때, 그 어떤 공포의 충격이 기록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어떤 속량도 없는 자들의 마음과 혼을 엄습할 것인가! 그 책을 열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 가운데 저지른 모든 범죄, 모든 위법 행위,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 7:10).

나는 이것이 비유의 말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들을 기억할 책들이 필요 없으시다. 그러나, John Gill 은, “그 책들에 의한 심판, 또 행위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엄밀하게, 얼마나 공의롭고 공정하게, 법원에서 법전을 언급하는 가운데 심판이 시행 될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책들을 쓰시고 갖고 계시는 것으로 자주 제시된다. 그리고 이 책들에 따라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책들은 무엇인가? — 전지의 하나님의 책 (말라기 3:5) — 기억의 하나님의 책 (말라기 3:16) — 창조의 책 (로마서 1:18-20) — 하나님의 섭리의 책 (로마서 2:4-5) — 양심의 책 (로마서 2:15) —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 (로마서 2:12) {이 율법의 책은 두 판이 있다. 첫 번째 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있다 (출애굽기 20:3-11). 두 번째 판은 서로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포함한다 (출애굽기 20:1-17).} — 복음의 책 (로마서 2:16).

그러나 아무런 범죄들도, 아무런 죄들도, 아무런 위법들도 볼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것,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전지한 시각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있다! —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쥘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 쥘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20). 그들의 이름들은 다른 책, 하나님 자신이 친히 쓰시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봉인하신 책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한 기록과 우리 신성한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완전한 의의 기록 (예레미야 23:6, 참고 33:16), 완전한 만족의 기록, 영생의 약속이다.

이런 질문이 종종 생긴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후에 저질러진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죄들과 타락들에 대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 질문이 이전에 일어났던 유일한 이유는, 그로써 율법의 채찍과 공포를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두기 바라는 많은 자가 연옥에 대한 로마가톨릭 교리의 유물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언젠가 그들의 죄들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죄들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결코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4: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대한 우리 빛을 갚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것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범죄들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들을 다시 기록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죄들을 덮으셨던 부은 결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귀속되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은 결코 어떤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태복음 25:31-40).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슬픔과 비탄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혼인 잔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의로운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 따라 의롭게 보이는 자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어떤 죄의 흠도 없이, 사악함의 주름이나 범죄의 흔적이 없이, 선을 행했던, 선하고 완전하게 선한 것 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그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 22:11).

누가 이 완전하게 의로운 자들인가?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6:9-11; 로마서 8:1, 32-34). 천국은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택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얻은바 되었고 사신바 되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기업을 받기 위하여 미리 예정되었다 (에베소서 1:11). 그리스도는 우리 선주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소유로 취하셨다 (히브리서 6:20).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8:17). 우리 구원자는 우리 중보자로서 받으신 모든 영광을 그

분의 모든 걱정하신 자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5, 20).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늘 영광에 대한 가치가 있다 (골로새서 1:12). 영화는 단지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은 은혜로만 의해서 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의 어떤 부분도 우리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보상 모든 것이다! 모든 영적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소유이다 (에베소서 1:3).

그 크고 끔찍한 심판의 날에 죄의 유죄가 밝혀진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누그러지지 않는 진노에 영원히 고통 받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악한 자라고 부르실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저를 데려가라! 저를 묶어라! 저를 어둠 속으로 던져 버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날에 악한 자에게 긍휼도, 동정도, 비탄도, 소망도, 끝도 없을 것이다! 지옥에 그들은 가기 마땅하다! 지옥에 그들은 가야 한다! 지옥에 그들은 갈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는 경계하라!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피난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큰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엄습할 것이며 당신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간청하니, 하나님의 긍휼로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화목 하라! 그 크고 끔찍한 날에,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

견되도록 하자.

그 큰 날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34 장

성령 안에서 씨 뿌림

갈라디아서 6:6-10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a.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이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갈라디아서 6:6-10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할찌니”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계속하여 준다. 주 예수께서 “선을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38),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 그분의 제자들인 모든 자는 이 세상을 통하여 선을 행하며 간다 (에베소서 2:10). 육체에 씨 뿌리는 자들(육체를 따라 사는 자)은 영원한 비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에 씨 뿌리는 자들(그 영을 따라 사는 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8:5-6; 갈라디아서 6:8).

물론,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행위를 근거로 하늘에서 보상을 받거나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단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공훈을 그 원천에서 찾으려 하자.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쁜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목회 지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 절). —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역 교회의 목사들, 선교사들, 전도사들) 일을 하여 이익을 본 자들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당신의 육체적 건강을 보살피는 의사, 당신을 보호하는 경찰, 당신의 집을 증축하는 목수, 당신의 차의 기름을 교환하는 기술자, 당신을 위해 잔디를 깎는 이웃집 소년은 모두 그들의 봉사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당신이 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구하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신의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야 한다. 복음 전도자들이 대신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자원하는 관대함으로 그들의 생계를 지원 받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지원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가장 분명한 천명 가운데 하나이다. 복음의 전도로 유익을 얻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위하여 그들

의 물질을 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지역 교회가 활동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 공과금을 내야 한다. 사무용품을 사야 한다. 설비가 유지되어야 하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고 복음을 대가 없이 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대가 없이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역의 일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지역 교회들이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복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꾼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아야 하나? 이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복음 사역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성경 안에는 아무런 물질적 부족이 없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하여 나타나는 주제이다. 구약 성경의 모세 경륜 하에서 하나님 섬김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사역하였던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었다 (고린도전서 9:13).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의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소유의 십 분의 일, 그들의 돈, 재산, 곡식, 그리고 가축의 십 분의 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였다. 유대인들은 레위인 제사장의 사역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쓰기 위한 십일조를 지불하도록 요구되었다 (민수기 18:21).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 그분의 것을 흠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말라기 3:8-9).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 말고는 지금의 복음 시대에 십일조를 낼 것이 더이상 요구되지 않고 있다 (골로새서 2:16-23).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Kentucky 주의 Louisville 에 있는 Hearts Harbor Tabernacle 의 마지막 목사였던 A. D. Muse 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당신이 십일조를 한다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 십일조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법자이다.” 다른 말로, 단지 십일조만 내는 사람은 단지 율법주의자이며, 그만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반율법주의자 이다. 인색한 수전노가 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원을 위하여 그의 물질을 주는 것을 이기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렵건대, 은혜가 없는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는 자들이다. 그들은 관대히 주며, 기분 좋게 준다.

복음 사역의 재정적 지원에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서 주어진 가르침들은 오해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관대하게 지원할 것이 기대된다. 이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실행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인 속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은 기꺼이 그것에 순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9-10; 누가복음 10:4-7; 고린도전서 9:14; 디모테전서 5:17-18).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사역한 사람들에게 의해 지원 받고 뒷바라지를 받아야 한다. 충성된 사역자들은 파견된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로서 그 곳의 교회에 의해 충분하고 관대하게 지원 받아야 한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막을 만들도록 요구된 때가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존귀한 일이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목표가 자신을 부요 하게 함이 아니라, 어린 교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고 (테살로니가전서 2:9) 어린 자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고린도전서 9:15-19)자 함임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천막을 만들면서 그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는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부끄러운 치욕이었다. 복음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며 도처를 여행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할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공급할 책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였다.

합리적인 교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 “함께하다(communicate)”라는 말은 “함께 나누다(share) 혹은 분배하다(distribute)”라는 뜻이다. 그것은 “공유(communion)”라는 말에서 왔으며, 기본적으로 “공동체(fellowship)”와 동일한 의미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 모두에게 그것을 전한 자들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복음의 전파와 함께 교제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 Edgar Andrews 는 이렇게 설명한다…

“바울의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은 그들의 물질적 부를 ‘가르치는 자’와 나누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회중은 그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그들 자신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사람의 표준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나누다’라는 말이 내포하는 것처럼).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 레위 지파의 지원을 위하여 내려 놓게 하셨던 원칙이었다 (비록 신약 성경은 의무를 자진한 마음으로 바꾼다). 개척 선교가 포함된 곳에, 그리고 설교자를 지원할 회중이 있을 때까지, 보내는 교회 혹은 교회들은 이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의해 보내졌을 때 (사도행전 13:3), 그들의 지원을 위한 서약을 확고히 하면서 처음 육 개월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구브로로 즉시 떠났다. 그들은 그들

이 교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어서기 위한 그들의 필요를 잘 관심할 수 있었던 분인 성령에 의해서 보냄 받았음을 알았다 (사도행전 13:4-5).”

이 소통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썽하기로 하고 오는 모든 설교자, 전도자 혹은 사역자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자유 의지, 행위의 종교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요한이서 9-11 절).

바울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썽을 충성되게 가르치는 그 전도자들은 교회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개성이나 매력이나 화려한 연설에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유익하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언제나 인상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은 언제나 교훈적이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언제나 감동시키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적절하다. 모든 전도자는 반드시 한 가지에 의해 판단 받아야 한다: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로 말썽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청중에게 진리의 말썽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말썽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만약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

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면, 그는 그와 같이 틀림 없는 명백함으로 전할 것이므로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가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침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원한다면,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만약 그가 의식적으로 시종일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8:19-20 을 보라).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적어도 그의 머리로나 복음의 교훈을 모르기란 불가능하다. 그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과 정죄에 따른 그의 잃어버린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5:12; 에베소서 2:1-3).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훈, 즉 우리 주의 신성한 위격, 그분의 성육신과 동정녀 출생,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께 대표자로서 그분의 순종, 그분의 효험 있고, 죄 속량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것을 들을 특권을 받은 자들은 구원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실하게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모든 자는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가르침 받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전하는 모든 자의 필요를 관대하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이다. 이것이 유일하게 사리에 맞는 것이다. 당신은

복음의 선한 것들을 가르침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을 가르치는 그 사람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당신의 사리에 맞고 동등한 책임이다. 당신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9:11).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14).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공급할 것을 요구 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 (사도행전 6:2-4; 디모데후서 2:4). 사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 교회의 목회자를 공급하는 각각의 지역 교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단 그것이 보살피 지면, 각 지역 교회는 충성된 사역자들의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잘 건축된 교회들이라면 좀더 작은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야망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대함을 악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17-18). 그러나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결코 빈곤자로 살도록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내에서 수고하는 자들은, 사역의 일에 그들 자신을 충성되게 제공하므로 편안한 생활가운데 살도록 관대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

나는 종종 질문을 받는다. “얼마나 교회가 그 목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가?” 나는 답변한다. “당신이 사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목회자에게는 당신처럼 입고, 먹어야 하며, 주거할 집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을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처하지 않는 많은 필요한 지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의 식탁은 거의 언제나 먹어야 하는 추가의 입이 몇 개 더 있고, 그는 그들이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는 그의 일을 위해 필요하여 많은 거리를 여행해야 하고, 사야 할 책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냉정하고 격심한 현금이 매주 요구된다. 교회가 목회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좋은 방법이 이것이다. 적어도 회중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평균 수입만큼 목회자에게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의 추가 비용을 처리할 만큼 충분히 더해주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는 것이 기대되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유일하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기꺼이 주는 것

이 재정적 지원이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인 방법은 실상에 있어서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대가 없고, 자원하며, 관대한 은사들로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종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전도자와 사역자와 교회가 그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육체의 무기에 기대며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께 모독되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복음에 반대되는, 반드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들 위에 지워진 십일조의 율법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율법 아래로 되돌려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서약을 얻으려 하거나, 빵을 파고 잡동사니를 파는 것을 열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을 모금하려 투자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지원에 좌우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은 결코 구걸하거나 굶질거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도움을 얻으려 해서도 결코 안 된다.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은혜와 믿음의 모든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며,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속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대가 없이 자원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공급되는 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9:7).

만약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관대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관대하여야 한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목자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 떼를 인도하며 그들에게 인격적 본으로 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목회자에게서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직함을 감지하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반영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문제에 있어서 풍성한 가르침

을 공급한다. 고린도전서 9 장과 고린도후서 8-9 장은 이 주제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어야 할지, 언제 주어야 하는지, 혹은 어디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 없다. 십일조와 그런 모든 체계들은 전적으로 신약 성경 밖에 있다. 경배의 다른 모든 행위처럼, 주는 것은 믿음과 은혜의 행위이다. 그것은 대가 없고 자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제시된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분명하고 단순한 지침들이 있다. 여기 열 가지가 주는 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것들이다.

1. 우리가 드리는 것은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9:7).
2. 우리가 드리는 것은 대가 없고, 자원하며, 자유로워야 한다 (고린도후서 9:7).
3.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에 기인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8:7-9).
4.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 (고린도후서 8:12).
5. 모든 믿는 자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복음의 일에 드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6:2).
6.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물질의 한 부분을 드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6:2).
7. 우리가 복음을 위한 드림은 자유롭고 희생적이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9:5-6; 마가복음 12:41-44).

-
8. 우리는 주께 드리듯 드려야 한다 (마태복음 6:1-5).
 9. 이런 종류의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고린도후서 9:7; 빌립보서 4:18; 히브리서 13:16).
 10. 우리가 기꺼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는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9:10; 누가복음 6:38; 빌립보서 4:19).

누군가, “세 가지 종류의 드림이 있다: 억지로 드림, 의무적 드림, 감사의 드림. 억지로 드림은 ‘드려야 해’이다. 의무적 드림은 ‘안 드리면 안돼’이다. 감사의 드림은 ‘드리고 싶다’이다.”

인정된 원칙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 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 갈라디아에 있던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였던 자들 돕기를 그만두게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들에게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갈라디아 인들은 그만 두었다. 사람들은 쉽사리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정당화 되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끌려 떠났다.

그들은 자주 세상적 염려와 책임들이나 혹은 전도자에게 있는 아주 작은 실수를 찾아내어 핑계를 대며 그들의 수전노임을 변명하였다. 변명은 또한 값어치가 없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우리의 모든 수단으로 산다면, 우리는 너무 재정적으로 엷매이게 되어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를 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어떤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의 일 안에서 그를 도울 우리 책임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얼마나 주는 것과 아니면 주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목회자를 조정하려는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돈에 의해서 통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을 위하여 드리지 않을 구실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한다. 바울은,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으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의 지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돕기 위하여 당신의 물질을 주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 이것은 우주적인 율법이며,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 종류대로, 질대로, 양대로, 우리는 수확할 것이다. 만약 농부가 밀을 심었다면, 그는 밀을 수확한다. 만약 모자라게 심는다면, 모자라게 수확할 것이다. 만약 풍성하게 심는다면,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다. 만약 좋은 씨를 심는다면, 좋은 추수를 수확할 것이다. 만약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자연적인 세상에서 그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적용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주신 것으로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려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 하는데 쓴다면, 우리의 물질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호사에 허비하거나, 우리의 부를 늘리기 위하여 축적한다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부패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돈을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와 상황을 드러낸다 (마태복음 6:19-24 를 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린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거나 하늘에 속한 보상과 영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본문은 단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의 전파와 그분의 왕국의 선을 위하여 세상적인 물질을 내 놓는다면, 우리가 뿌린 위하여 뿌렸던 것 — “영원한

생명”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주신 것의 사용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것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실질적인 상태와 상황을 드러낸다 (마태복음 25:24-30).

요구되는 인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9-10 절). —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하여 많은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다. 우리 환경, 나라의 경제, 가족의 필요가 모두 변한다. 우리는 “그만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드리는 것을 줄여야 하겠다. 그것으로 성취될 것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은 현금 접시에 나의 몇 불을 놓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에 바울은, “지금 포기하지 말아라!”고 말한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된 때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수확할 것이다.” 뿌려진 씨는 다시 피어 오를 것이며, 물 위에 뿌려진 빵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보일 것이다. 그러나 씨를 뿌림과 추수를 수확하는 것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입증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그 영에 뿌리고 증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주실 것이다. Robert Hawker 의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뛰어나다...

“사도의 연속된 논점은, 그들이 직면하는 어떤 행사에도 그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시간 상태에서 주의 백성은 결코 낡아지지 말아야 하고, 그 생각이 흐려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분깃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분의 유익에 따라, 그분만을 위해서, 그들은 그 기업의 복된 열매를 수확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혼의 수고와 피 뿌림과 의로 인하여 그것들이 초래된다. 그 표현은 히브리서 6: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것이 아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 착한 일을 함으로써, 바울은 사람들의 필요에 소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와 이 문맥에서 그분의 종들의 필요에 소통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의 백성의 선과 복음의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일 가운데 그들과 참여하고 교제를 갖는다 (마태복음 10:40-42; 요한삼서 1:8).

바울은 그리스도께 위임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다. 만약 내가 어떤 것에 위임되었다면, 나는 내 삶을 그것에 던진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위임 되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던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이 드림이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완전한 위임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의 근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자.

35 장

십자가 안에서 영화롭게 됨

갈라디아서 6:11-18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찌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찌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11-18

이 굉장한 서신의 마지막 이 다섯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연히 고정된 그의 독자들

의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들을 통하여,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그 성취와 마침을 발견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임과 같 보리 언덕과 시내 산이 구원하는 곳임과 은혜와 의와 구원과 영생의 모든 축복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죄인들에게 흘러 내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서신서를 통한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한) 그의 의도가 이 한 교리적 주장 속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염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 절). — 바울은 이 서신서보다 아주 더 긴 서신들을 썼지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그러나 다양한 교회들에 보낸 그 서신서들 중 몇 가지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쓰게 하였다 (로마서 16:22). 이 서신서는 그 자신이 직접 쓴 것이다. 그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큰 애정의 표현으로서 이 사실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그는 그들을 깊이 관심하였고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 매우 염려하였다. 그들이 노출하였던 그 잘못들과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의 오류 속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 떨어져 버린 사실이 그를 크게 비탄스럽게 만들었다. 아, 오류와 죄로 인하여 그들의 평강이 위협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며 부서진 마음이어!

거짓 교사들

12 절과 13 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이 서신 전체를 통하여 노출되고 있었으며 그런 자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천명한다. 그들은 위선자들이며,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혼의 선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역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12 절).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을 한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찾음으로써 외적인 모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6:1-5). 영향과 교리와 교회 신경과 그들 자신과 같은 다른 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들은 믿는 자들이 율법의 통치에 의해 지배 받고 종교적 의식들과 성일과 관습을 지킬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처럼 사는 것보다 더 강요하려 한다.

그들이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혼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과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전적인 충만과 효험을 전함으로써 마음이 상하게 되는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박해로 고통받지 않으려” 함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량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의이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우리의 열납에 아무런 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그분 안에 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

레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3 절). — 이 종교적인 교사들,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에 대한 그들의 경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위선자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안다 (갈라디아서 3:10).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며, 따라서 그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자랑할 수 있다. Henry Mahan 은, “모든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것에서 영광스러워 하거나 즐거워한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 가운데, 그들의 외모 가운데, 그들이 만드는 소음 가운데, 그들이 하는 행위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얻은 혼들로 영광스러워 한다.”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4 절). — 참 믿음은 궁핍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한다. 믿음은 죄인들을 십자가로 데려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영화롭게 되며, 그로써 세상이 우리에게 못 박히고 우리가 세상에 못 박힌다. 비록 믿음이 의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의로 향한 믿는 자의 연결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

에서 완전하고 멸하지 않는 의에 대한 확증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의의 영원성에 따라서, 믿는 죄인들에게 앞으로 올 시대 안에서 영생과 영원한 의를 확신하게 한다. 우리가 믿었을 때 옷 입은 그 그리스도를 결코 벗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2:14; 갈라디아서 3:27). 구원의 옷은 결코 닳아서 얇아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의의 관복은 결코 낡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미 (그분 자신의 미)는 사라져 버리지 않는 미이다.

믿음은 언제나 십자가에 거한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떼어놓지 않으며, 먼저 믿음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십자가 뒤로 속히 이르며 그것을 뒤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은 결코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묘한 가르침은 우리가 십자가를 일단 믿으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 일단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단 믿고, 십자가에 언제나 남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무엇이 십자가인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그 사실을 아는 것, 비록 그것이 구원에 필요하다면, 구원이 아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글자 그대로 딱딱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상숭배자도 아니고, 종교적 유물의 숭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 나무 조각에 미신도 영적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표적과 상징과 대표나 형상 속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하여 말할 때, 그는 십자가의 영광스럽고, 혼의 구원의 교훈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피의 속량에 대하여, (로마서 5:6-11), 법적 속죄에 대하여 (로마서 3:24-26), 대속의 구속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18-21), 그리고 대가 없는 칭의에 대하여 (로마서 5:19) 말하고 있다.

여기 갈라디아서 6:14 안에서 사용되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십자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이교도들은 종교적 유산 속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우상숭배자들은 종교적 형상과 기적들과 상징들 속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무지한 사람들은 종교적 느낌과 감정과 체험 속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납고 거친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감상주의자들은 구속의 피의 옛날 옛날 이야기 만을 노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인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등을 돌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살육된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우리 연결을 보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구유에서 그분의 부활 영광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고난 받으셨던 모든 것이 하나의 영광스러운 전체를 형성한다. 우리 구속자의 역사 중 어떤 부분도 결코 불필요하거나 쓸모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역사의 어떤 부분이라도 버리는 것은 그분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기뻐한다. 하지만, 그 성육신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겐세마네로 나의 주를 따라가는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분의 고통이 완성된 역사가 아니었음을 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영광스럽다. 내 얼굴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한다. 내 눈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박힌 한 분에게 있다. 나는 그곳에서의 희생이 모든 자를 위하여 한번에 완성되었음을 확신한다. 나는 기쁨으로 빈 무덤 속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찬양 받으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이 가난한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 분임을 알고 기뻐한다. 아무것도 뒤로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전부와 나의 모든 의, 칭의, 용서, 열납,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그분의 역사 전체를 신뢰한다.

십자가 안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높이다, 자랑하다, 기뻐하다 라는 뜻이 있다. 바울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죽음 가운데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였다. 그는 십자가의 교

리를 성경의 유일한 주제와 그가 전하는 단일한 주제로서 찬양하였다 (고린도전서 2:2; 9:16).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체 뜻이며,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와 약속과 예언의 의도이고, 죄인들을 위한 소망의 기초이며, 모든 거룩의 동기이며, 그가 선포하려 보내졌던 그 말씀으로서 보았다.

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확신에 찬 소망의 유일한 근거로서 기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의 구원자로서 신뢰하였다 (빌립보서 3:3; 고린도전서 1:30). 그는 그의 모든 종교적 일, 지식, 그리고 체험들이 배설물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의 의로 옷 입었으며, 그분의 피로서 씻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열납되는 유일한 방법과 죄책감의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전하였다 (갈라디아서 2:21). 만약 의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아무도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아무것도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죄인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없으며, 아무것도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열납될 수 있게 만들 없으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원자”가 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고 공의롭게 하는 분” 모두 되시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 따라서, 구원 받은 죄인들은 사도와 함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4 절).

십자가에 못 박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14 절). — 그리스도 안의 믿음,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확신은 사도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였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의 가장 무자비한 대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그는 알았다. 이것을 아는 자는 기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와 구속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세상을 극복하였고,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을 정복하셨고, 그를 내쫓으셨으며,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 버리신 이후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복자 이상이다 (로마서 8:32-39).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육 당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분께 찬송을 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대항하는 모든 자를 죽은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며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던” 분을 찬송한다.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죽은 것들로 바라보자. 우리 혼 가운데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칭찬을 경멸할 것을 가르친다.

죽은 자들의 이득과 쾌락과 칭찬은 배설물처럼 무가치 하다. 그것은 정확히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 바라보게 되고 여겨지는가 이다 (빌립보서 3:7-15). 그러나,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세상”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갈라디아서 4:3-9), 율법의 육체에 속한 계명과 의식들을 특정하게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로마서 10:4) 이기 때문에, 율법의 안식일과 희생물과 제사들은 죽은 것들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15; 7:4; 갈라디아서 2:19-20). 우리 모든 영광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골로새서 2:14).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 세상이 더이상 바울에게는 죽은 시체 이상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매력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의해 멸시를 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언제나 있을 것이다. 율법이 그에게 죽었고 그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그 약하고 천한 노예 상태의 초등 학문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새 피조물

여기 우리가 율법의 행위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하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15 절). 할레나 율법의 육체적 계명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전혀 의미가 없다. 무할레는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에 장벽이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침례나,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바울의 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엉뚱한 해석을 제시하는 자들은 복음 계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다. John Gill 은 이렇게 썼다…

“비록 침례가 구원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할례처럼, 침례가 그리스도의 실질 계명이므로, 하나의 계명으로서, 혹은 침례가 사망과 장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뜻이므로, 하나의 상징과 표시로서, 혹은 침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용서와 칭의를 위한 그분의 피와 의로 인도하는데 사용되므로, 하나의 특권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따라서 교회의 교감에 필요하다. 또 반면에, 비 침례가 유용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교회 교제에 장애이다. 그것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침례에 대한 무지가 그리스도를 분개케 하며,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이 침례자 요한의 시대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경우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즉 유일한 것은 “새 피조물” 혹은 새 창조이다 (고린도후서 5:17). 이 새 창조는 “너희 안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27)이며, 부패하지 않은 “마음의 숨겨진 자” (베드로전서 3:4) 이다. 이 새 창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없애고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주시고, 의롭

다 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하게 하므로 (고린도후서 5:17),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을 때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이다. 그것은 또한 거듭남과 믿음과 변화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다 (베드로후서 1:4; 요한일서 3:9). 다시, John Gill의 설명이 뛰어나다.

“이는 ‘새’ 피조물이다, 옛 사람에 반대인 것은,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본질, 결코 이전에는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새 마음과 영, 새 눈과 귀와 손과 발로 되어 있고, 새 원칙과 행동의 표현이고 새 빛, 생명, 사랑, 갈망, 기쁨, 위로, 그리고 의무에 대한 표현이다. 이제 이것이 효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부여하시기로 그 안에서 약속하셨던 은혜로운 새 언약의 한 가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유익의 증거이고, 아버지께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며, 영생이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권리와 합당함을 갖고 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을 갖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양자들로 불린다. 그리고 구속 받고 새로 난 혼만 부를 수 있고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그들의 입에 담는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끝 없는 희락과 영원한 기쁨의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덕분에,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우리는 더이상 정죄의 판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율법에서 자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다. 우리는 이제 그 영 안에서 갈며,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결코 정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1-17). 모든 단순한 외적 종교는 철저히 의미가 없다. 참 기독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킨다 (요한복음 4:24; 빌립보서 3:3). 당신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이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외적 의식으로 성취되거나, 사람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성취된다. 새 창조의 이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고린도후서 5:18).

하나님의 이스라엘

16 절에서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강과 긍휼의 축복을 발한다. —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찌어다.” 은혜의 축복이 그 육체적 혈통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 것은 없다 (요한복음 1:12-13).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란 천연적 나라를 가리키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천연적 자손),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의 교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가리키고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을 망라한다.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 받을 것이다 (로마서 11:25-27). 평강과 공휴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백성, 이 “거룩한 나라,” 이들 선택 받은 영생의 상속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의 평강과 공휴의 이 약속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직 “이 법에 의해 행하는” 자들이다: — 믿음의 법. 이 법은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의 법이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고린도후서 5:14-15),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요한일서 3:23).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한 어떤 것이나 체험한 것에 대한 모든 확신을 포기하며,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믿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며 (빌립보서 3:3),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하고 모든 충만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린도전서 1:30-31), 오직 우리 구속자의 십자가 안에서만 영화롭게 되는 자들이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17 절) — 사람이 혼을 산 사람들은, 갈릴리의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육적인 의식 속에서 영화로워 했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위를 자랑한다. 바울은 그런 것들 중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거짓 교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로 혼란스럽데 되지 않기로 정해졌다. 그는 그들의 대적을 그의 대적으로 여겼으며, 그들의 소유인 그의 손을 찼었다.

그는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행위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하여 전하는 자로서의 명성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는 그 낙인을 기꺼이 받았다. 그는 그의 계속되는 나쁜 명성 가운데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몸 자체에,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받았던 그 고통들의 결과로 그의 몸 안에 있는 흔적 안에서도 그것을 품었다 (고린도후서 6:4-10; 11:13-33). 그는 그들을 우리 앞에서 병사가 전투에서 잃어버린 무기의 조각을 붙잡은 것처럼 그의 용기와 헌신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유일한 논쟁 때문에 그들을 붙잡는다. 율법의 행위와 의지의 경배를 전하는데 있어서 성공과 권위가 있는 그 거짓 선지자의 모든 주장들을, 바울은 여기서 위선과 속임수로서 비웃는다. 그의 주께 대한 그의 순종은 그의 주의 뜻 안에서 그가 고난 받았던 일들로 분명하게 되었다. 그 말로 그는 서신서를 닫으면서, 그리스도 안의 그의 형제자매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의 무한한 축복을 그들에게 갈망하였다. —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찌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강해

Bible Class Lessons in the Book of Galatians

by

Don Fortner

번역: 박영호